

2010년도 졸업논문 소개

석사학위 논문

황순원 장편소설의 기독교적 상상력 연구

류 광 현

2010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남현 선생님

이 논문은 황순원 장편소설의 기독교적 상상력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황순원은 기독교적 배경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해방 이후 그의 장편소설들을 통해 기독교적 특성을 많이 드러낸 작가이다. 하지만 황순원 소설의 기독교적 성격을 밝힌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등장인물을 통해 표출된 특정 기독교 사상에 대한 신학적 평가나 해석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관념 편향으로 흐르거나, 혹은 황순원의 기독교적 작가의식의 전개 및 변화 과정을 따라잡지 못함으로 인해 작품에 반영된 그의 신학적 특수성을 세밀하게 구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고는 문학과 종교가 공유하고 있는 ‘상상력’이라는 층위에서 이 주제에 접근함으로써, 황순원 장편소설의 문학적 특수성과 종교적 특수성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즉 황순원 장편소설은 작가의 기독교적 상상력이 그의 문학적 상상력과 조응함으로써 탄생된 것이며, 여기서 ‘기독교적 상상력’이란 작가 황순원이 하나님(그리스도)과 세계(문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패러다임)에 의해 당대 현실과 인간을 바라보며 해석하고 새 가상의 현실을 작품 안에 창조함으로써, 신과 인간, 그리고 세계에 관한 실재(reality)의 유형과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황순원 장편소설은 ‘역설’의 상상력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카인의 후예〉, 〈천사〉,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작품들과, ‘변혁’의 상상

력을 특징으로 하는 후기(〈일월〉, 〈움직이는 성〉, 〈신들의 주사위〉)의 작품들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유일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역설’의 패러다임을 통해 현실과 인간을 바라보고 그 안에 숨겨진 ‘우상숭배’적 속성을 폭로함으로써, 당대 현실의 억압적 성격과 인간실존의 모순성, 그리고 ‘순수’의 의미를 드러낸다. 후자는 ‘성육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변혁’의 패러다임을 통해 현실과 인간을 바라보고 그 ‘자기소외’적 성격을 비판하는 한편, 이 내재하는 모순을 극복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기독교적 대안인식의 모색을 통해 ‘자유’의 의미를 드러낸다.

본론 II장에서는 황순원 전기 장편에 나타난 ‘역설의 상상력’과 그 귀결로서의 ‘유한한 인간실존의 인식’에 대해 고찰한다. II-1절은 황순원 전기 장편의 키워드 중 하나인 ‘순수’에 대한 주인공과 작가의 인식상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주인공들의 관심이 ‘존재의 상태로서의 순수’에 있다면, 작가의 관심은 ‘행위의 태도로서의 순수’에 있다.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우상화를 통해 그 구성원들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현실, 즉 상이한 가치관을 용납하지 않는 ‘단힌 현실’에 대한 작가의 ‘우상파괴’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기독교적 ‘유일신론’이라는 초월적 시선을 통해 현실을 바라볼 때, 무한과 영원의 차원으로 고양되고 절대화되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획일화된 이데올로기는 ‘우상’과 마찬가지로 그 의도에 있어 ‘불순’한 것으로 판명된다. 작가는 어떤 정당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탄생한 이데올로기가 수단의 우상화를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공포심을 조장해 그 사회 구성원들을 속박하며 변질시키는 과정을 묘사하는 한편, 그 우상숭배의 수혜자로 생각되던 사람이 실상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우상의 허위를 효과적으로 폭로한다.

II-2절에서는 황순원 전기 장편의 주인공들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이상적으로 인식하는 나르시스트들이자, 서로 대립하는 두 욕망이 그 안에서 공존하며 충돌하는 ‘단힌 인간’의 전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실의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홀로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주인공들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우상숭배, 즉 ‘모방적 자기신성화’와 ‘기만적 자기숭배’에 대한 작가의 ‘우상파괴’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전기

장편의 결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전과 비극성은 ‘닫힌 인간’이자 ‘자기 숭배자’인 주인공들에 대한 작가의 일관된 우상과괴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전술은 주인공에 대한 작가의 ‘유식한 무지의 태도’로서의 ‘아이러니’이다. 이 아이러니를 통해 무한과 절대의 위치로 격상되었던 현실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주인공의 자아이상은 유한과 상대의 세계 속으로 모두 귀환하며, 그와 더불어 순수한 세계와 불순한 세계, 선인과 악인, 피해자와 가해자 등으로 이분되었던 소설적 구도도 그 이원성의 해체를 맞게 된다. 이 지점에서 역설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수’의 의미는 ‘자기숭배적 태도가 배제된 관계성’이며, 이러한 ‘순수’ 이해는 유한한 인간의 자기중심성에 대한 한계 인식과 더불어 ‘순수’ 지향의 초점을 ‘인간실존’의 차원에서 ‘인간관계’의 차원으로 전환시킨다.

본론 III장에서는 황순원 후기 장편에 나타난 ‘변혁의 상상력’과 그 지향점으로서의 ‘공생적 인간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III-1절은 황순원 후기 장편의 키워드 중 하나인 ‘자유’에 관한 주인공과 작가의 인식상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의 주인공들이 인간관계에서 유발되는 ‘모든 고통과 상처로부터의 절대적인 자유’를 지향한다면, 작가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를 지향한다.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자기소외’적 주인공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로서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이 자기소외의 극복과 관련해서 작가는 기독교의 ‘대속(代贖)’ 교리가 인간관계에서 요청되는 개인의 최소한의 주체성마저 대체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한편, 주인공과 사랑에 빠진 여인들이 보여주는 ‘순수’한 관계성과 자기희생적 행동 속에서 교리가 아닌 삶으로 육화된 ‘대속’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랑에 빠진 한 인간이 주체의 자기동일성을 깨고 타인의 고통의 자리에 세움 받는 모습은 ‘소외된 인간을 위한 신적인 자기소외’로서의 ‘성육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황순원은 인간관계에서 유발되는 상처와 고통이 부정적 의미의 자기소외를 야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평범한 인간의 사랑 속에 스며든 신적인 사랑 안에서 긍정적 의미의 자기소외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에서 ‘공동체적 자유’의 실현과 인간 구원의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III-2절에서는 황순원 후기 장편에 나타난 현실 기독교 비판과 기독교 복음의 한국적 토착화에 대한 고민을 ‘공동체적 자유’의 실현을 향한 작가의 열망과 관련지어 살펴본다. 〈움직이는 성〉에서 주인공 준태를 통해 추구되는 ‘감자 새 품종의 토착지 발견’이라는 목표는 ‘민족의 정신적 정착지 모색’, 즉 ‘기독교 복음의 한국적 토착화’라는 주제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전개된다. 황순원은 이상적인 토착화 모델로 피선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접목모델’을 제시하고 준태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지만,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 속에 바이러스처럼 침투해 있는 샤머니즘으로 인해 그것이 시 기상조의 대안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 연장선상에서 작가는 ‘새로운 존재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이 성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빈민촌의 현실을 창조적으로 변혁시키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발효모델’을 현 단계에 적합한 토착화 모델로 제시한다. 나아가 빈민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성호가 힘없는 마을 사람들과 연대하여 ‘인간해방’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새로운 인식에 이르는 과정을 ‘합류모델’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작가의 이상으로서의 ‘공동체적 자유’가 현실 속에서 ‘실제적 자유’로 경험되는 순간을 극적으로 묘사한다.

석사학위 논문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 연구

고 은 임

2010년 2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정병설 선생님

본고는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 「명주기봉」에 나타난 애정 형상의 특징을 밝히고, 그것이 조선사회 상층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아울러 「명주기봉」을 분석하는 가운데 한글장편소설 전반의 애정 형상의 특징, 즉 다른 소설 양식의 애정과 변별되는 지점들 또한 드러낼 것이며, 이는 한글장편소설의 주향유층인 상층 여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

‘사랑’은 인간의 삶에 있어 매우 보편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여타의 것들이 그렇듯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인구학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는 테마로서, 현실적 상황을 토대로 그 구체적 형상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역사적·시대적 산물이다. 따라서 고전소설의 사랑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사회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전제이다. 여기서 ‘애정 형상’이란 ‘남녀가 애정을 느끼고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 그리고 애정을 둘러싼 관계 구도, 분위기 등 애정이 표상되는 모든 형태’를 말한다.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애정’이란 주제가 소홀하게 다뤄졌던 기왕의 한글장편소설 연구 풍토를 벗어나 사고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 가문소설로 자주 인식되었던 한글장편에는 가문의식과는 별개의 남녀 결연담이 다양하게 노정되어 있으며, 자유연애를 애정과 동일시하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다면 한글장편의 결연담 역시 얼마든지 애정

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회의 애정 유형을 당대 보편 문화를 형성했던 양반 남성의 이성관계에서 추출할 수 있다. 그것은 윤리적 의무감에 의해 형성되는 ‘도의적 사랑’, 정서적 자극과 친밀감에 의해 형성되는 ‘감성적 사랑’, 성적 욕망에 의해 형성되는 ‘성애적 사랑’, 현실적 필요에 의해 형성되는 ‘타산적 사랑’, 지적 교류에 의해 형성되는 ‘이지적 사랑’이다. 조선사회 부부관계에서의 애정은 대개 도의적 사랑으로 표상되었는데, 남성은 부부관계를 비롯하여 기생, 시비와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랑을 취한 반면, 양반 여성은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사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의적 사랑 이외 사랑도 부부관계를 통해 회구할 수밖에 없었다. 「명주기봉」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토대 위에서 창작, 향유되었다.

「명주기봉」은 다수 인물들의 결연담이 병렬적으로 전개되는데, 남녀의 결연 형태에 따라 중매혼과 애정혼으로 분류된다. 애정혼은 오늘날의 애정혼과는 다르며, 대체로 중매혼으로 결연하나 결연 방식 자체는 부부의 화합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결연 당시의 주변적 상황, 인물의 심리에 따라 남녀 간의 갈등 유무와 갈등의 정도가 나뉘는데, 외적 장애보다 인물의 내면 심리 상태가 남녀 간 화합을 어렵게 한다. 한편 중심인물들은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애정 양상을 보인다. 여성은 애욕추구형 인물과 요조숙녀형 인물, 남성은 영웅형 인물과 군자형 인물로 분류되는데, 다시 온화함, 완고함 등 이들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애정의 감정이 다르게 표출된다.

「명주기봉」 애정 서사의 특징을 여성 편향의 혼후 연애, 심리적 요인의 강화, 회극적 정조의 애정 추구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명주기봉」의 남녀는 혼인을 절대적 계기로 삼아 애정관계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혼후 연애가 「명주기봉」 남녀의 연애 문법인 셈인데, 혼후 부부관계는 모든 것이 주어지고 허락된 관계가 아니라, 오늘날의 연인처럼 단계를 밟아 점증적으로 애정을 형성해 가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때 여성우위의 애정관계가 형성되고 여성인물이 옹호되는 등 여성 편향의 시각이 두드러진다. 둘째, 남녀의 갈등이 前面에 드러나 치열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이 부각된다. 외적 요인이 인물들의 내면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외적 장애 그 자체보다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 인물 관계를 어렵게 한다. 또한 인물들의 성격 자체가 남녀 결연의 장애 요소로 등장하기도 한다. 셋째, 애정의 문제를 윤리적 가치로 재단하기보다 유희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시종일관 경쾌한 분위기가 유지된다. 여성, 남성 모두의 애정이 작중 인물들에게 포용되면서 애정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시각이 마련되고, 혼인생활에 있어 부부 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그려진다. 또한 익살스런 인물들에 의해 부부의 잠자리가 희연의 소재가 되고, 애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거짓 장례식이 치러지는 등 유희적 장치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유쾌하고 해학적인 애정 서사가 이루어진다.

「명주기봉」은 「명주기봉」만의 특수성과 함께 한글장편소설 전반의 보편적 특징 또한 지니는데, 다른 소설 양식의 애정 형상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혼전의 애정 자체에 주목하는 애정전기소설이나 혼사장에 극복에 주목하는 한글단편소설과는 달리, 한글장편에서는 일반적으로 남녀 결연에 혼인이 필수적이고, 혼인은 애정관계의 시작에 해당된다. 둘째, 한글장편소설의 남녀 결연 과정에는 당사자 간의 갈등 국면이 확장되어 있다. 한글단편과 애정전기에는 사랑의 의지가 확고한 남녀가 외적 장애와 대결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반면 한글장편에는 낯선 사람과 혼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갈등이 주요하게 서술되어 있다. 셋째, 한글장편에서 애정은 가문 내부에서 해결되며,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식이 보인다. 이는 애정이란 감정을 유교 질서 혹은 유교 이념 내부로 포용하고 흡수시키려는 것으로, 한글단편이나 애정전기에서 애정이 효와 대립하거나, 반예교적 성향을 보이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 세 가지 차이점은 한글장편의 주황유층인 상층 여성의 애정 문화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에는 조선사회 상층 여성의 의식과 욕망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에는 여성의 주체의식이 구현되어 있고, 규범에 의해 억압된 애욕에 대한 고뇌가 드러나 있으며, 여성들의 애정 환상이 표출되어 있다. 첫째, 다양한 애정 갈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인물의 적극적, 소극적 대응이 보이는데 여기서 여성의 주체의식이 보이며 그것은 긍정된다. 유교 이념

을 옹호하는 상층의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주체적 대응이 긍정될 수 있었던 것은, 부부관계는 절대적인 부자관계와 달리 상대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사 내 여성인물이 남성인물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형상으로 구체화되면서, 여성인물의 주체적 행동이 긍정될 수 있었다. 둘째, 당대 여성들은 一夫從事의 의무와 투기 금지,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성애적 사랑을 금하는 윤리규범을 요구받았는데, 그 결과 여성의 성적 욕망은 발현될 공간이 없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해야 했다. 이런 환경에서 「명주기봉」의 규범적이고 자의식 강한 여성들은 스스로 애욕을 소거시킴으로써, 외적 규범에는 충실하나 내적으로는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고 고결한 성품을 지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글장편에는 남녀가 관계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사랑의 다양한 면면들이 구체화되는데, 여기에는 상층 여성의 애정 환상이 투영되어 있다. 「명주기봉」은 갈등에서 화해로 가는 서사로, 이 과정에서 여성인물은 많은 고난을 겪으며 남편에게 박대를 당하나 결국 남편의 열정적인 사랑을 획득한다. 당대 현실의 부부관계에서 열정적 사랑은 여성에게 더욱 절실했던 바, 이러한 여성들의 애정 욕망이 우회적으로 투영된 것이다. 또한 여성인물은 남성인물의 감정적인 사랑보다 인격적 존중을 더욱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서 상호 인격적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부부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을 읽을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중세국어 명사형 어미 연구

신 용 남

2010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현희 선생님

본고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어미 ‘-옵’, ‘-기’, ‘-디’, ‘-ㄷ·ㅅ’이 명사형 어미임을 밝히고 그 형태론적, 통사론적 통합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에서는 명사형 어미의 논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옵’, ‘-기’, ‘-디’, ‘-ㄷ·ㅅ’을 두 자격법 어미로 규정하고 선어말 어미와의 통합여부, 조사와의 통합여부, 주어적 속격형과의 통합양상 등을 확인하여 이들이 명사형 어미임을 밝혔다.

3장부터는 6장까지는 각각의 어미가 선어말 어미, 조사, 주어적 속격형과 어떠한 통합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피고 각 어미가 통합한 내포문이 상위문 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명사형 어미 ‘-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옵’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 가장 대표적인 명사형 어미로서 경어법 선어말 어미 ‘-사-’, ‘-ㅅ·ㅁ’과 통합하며 격조사는 물론이고 보조사와도 특별한 제약 없이 통합함을 보였다. 또한 주어적 속격형과의 통합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였다. 아울러 ‘-옵’이 통합한 내포문이 상위문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로 기능함도 확인하였다. ‘-옵’과 통합하는 내포문의 서술어에는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상위문 서술어도 마찬가지이다.

4장에서는 명사형 어미 ‘-기’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5세기 당시 ‘-기’는 어미로서의 성격보다는 접사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음을 확인하고 불안정하기

는 하나 명사형 어미로 보는 것이 적절함을 논하였다. ‘-기’도 ‘-음’과 마찬가지로 경어법 선어말 어미 ‘-시-’와 ‘-ㅅ-, ㅁ-’과 통합하며, 격조사와 보조사와도 통합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주격조사와 통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문맥상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주격조사가 생략되었거나 통합하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보조사는 ‘-오, ㄴ-’과 ‘-도’가 통합할 수 있었다. 더불어 주어적 속격형과도 통합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기’가 통합한 내포문은 상위문 내에서 주어, 목적으로 기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기’와 통합하는 내포문 서술어는 주로 동사이며 상위문 서술어에는 제약이 없었다.

5장에서는 명사형 어미 ‘-디’에 대하여 논하였다. ‘-디’는 선어말 어미와 직접 통합한 예가 없어 그 통합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위문 서술어에 통합한 경어법 선어말 어미를 확인하여 상위문 우선의 원리에 의해 선어말 어미가 생략됨을 보여 선어말 어미와의 통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음’, ‘-기’와는 달리 ‘-디’는 조사와 직접 통합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 조사와의 통합도 제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대신 상위문 내에서 ‘-디’절이 주어와 목적어 역할을 수행함을 보아 주격조사와 대격조사와의 통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디’는 주어적 속격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음을 보였으며, ‘-디’와 통합하는 내포문 서술어는 동사로 한정되고 상위문 서술어는 형용사와 동사가 모두 올 수 있는데 상위문 서술어가 형용사일 경우에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동사일 경우에는 목적어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디’는 상위문 서술어가 연어인 타동사 구성일 경우 ‘-ㄷ, ㄹ’과 교체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명사형 어미 ‘-ㄷ, ㅁ-’에 대해 서술하였다. ‘-ㄷ, ㅁ-’은 경어법 선어말 어미 ‘-시-’와 ‘-ㅅ-, ㅁ-’이 통합할 수 있으나 조사와 통합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주어적 속격형과의 통합양상을 밝히고 그것이 ‘-ㄷ, ㅁ-’이 명사형 어미로 분류하는 데에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ㄷ, ㅁ-’에 후행하여 통합한 ‘-이’는 여러 이견이 있으나 부사화 접미사로 보는 것이 적절함을 지적하였다. ‘-ㄷ, ㅁ-’이 통합한 내포문은 문장 전체에서 주로 보어의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7장에서는 앞의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언급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이규보의 글쓰기 방식 연구

구 슬 아

2010년 2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종묵 선생님

본 연구는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된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산문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글쓰기 방식을 분석하되, 문장론 이상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글쓰기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글쓰기 양상과 내용 형성 과정을 실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규보가 남긴 산문 글쓰기는 문장론의 차원 뿐 아니라 그를 넘어선 창의적 글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험을 담지하고 있어 매우 특기할만하다. 특히 선행하는 글쓰기 전통의 계승과 창의적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창출신의(創出新意)’로 요약할 수 있는 이규보의 글쓰기 의식이 어떠한 전략으로 수립되었으며, 그것이 구현되는 양상을 분류하여 실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이규보의 글쓰기 방식과 실재를 집약하여 그 주요 특징을 고찰하고, 한문학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글쓰기의 통시적 흐름 속에 놓인 이규보 글쓰기의 의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규보의 글쓰기 방식에 주목하고 그 양상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훌륭한 글쓰기의 전통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가 다양한 현대적 활용 가능성 등을 탐구하는 작업에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II장에서 이규보의 글쓰기 의식을 일관하는 이론인 ‘창출신의론’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 글쓰기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하였다. 우선 이규보 글쓰기의 기저를 형성한 독서와 학습 태도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이규보는 당대의 형식주의적·모방적 글쓰기 풍토를 비판하고 새로운 독서 방

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가 서적에 경도되지 않고, 각종 불경, 도가서, 문집 등을 개방적 자세로 탐독함으로써 글쓰기에 필요한 내용과 표현의 다양한 자료를 습득하였으며, 전범의 자장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한 자세로 그 상대적 가치를 발견하였음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개방적 독서 및 능동적 학습의 태도가 이규보가 글을 쓰는 데 있어 사유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보다 능숙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창출신’의로 요약할 수 있는 글쓰기 의식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이 글의 내용과 형식의 창의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어떠한 형태의 전략으로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이규보가 개성을 드러내는 창의적 글쓰기를 위해 선행하는 글쓰기 전통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또 새로운 글쓰기를 위해 이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변용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또 의미의 구성과 표현의 과정에서 그러한 고민과 전략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했는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논의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기하고자 하였다.

이규보는 글의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이상학적 철학이나 사변적 논리에 주목하는 대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글로 표출해야 한다고 여겼다. 또한 창작주체의 천부적 재기(才氣)가 글의 내용 및 형식의 우열을 좌우한다고 보는 기의론(氣意論)을 전개하였다. 즉 이규보는 글을 쓰는 작자의 개성에 바탕을 두지 않고 선행하는 전범적 글쓰기의 의경과 형식을 추송하는 글쓰기 태도를 비판하였다. 동시에 기존의 글쓰기 방식이 변화된 현실과 작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 및 사유를 그대로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약하게나마 인지하였다. 아울러 유학적 의리와 도덕률에 바탕을 둔 도(道)의 개념과 달리, 작자가 몸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속적 관심, 그리고 작자의 체험과 감정, 의론의 강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경을 표현하려 했다. 이를 통해 그가 구현하고자 했던 글쓰기 방식의 최상의 경지는 의경 뿐 아니라 형식까지도 새로운 신의조어(新意造語)의 글쓰기이다. 그러나 이규보 역시 전통적 글쓰기의 내용과 형식을 학습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전무후무한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움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규보는 표현의 측면에서 전통적 글쓰기 장르를 변용하고 패러디하는

전략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이상에서 고찰한 이규보의 글쓰기 의식과 전략이 구현되는 실제 양상을 네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고, 구체적 작품을 예시로 들어 실증하였다. 이 때 네 분류 기준은 동·서양의 수사학에서 내용과 표현 양면을 아우르는 마땅한 글쓰기 용어를 찾지 못한 바, 사전적 의미에 의존하여 조어(造語)하였다. 먼저 비근하고 낮은 미감을 보이는 대상을 글의 소재로 확장하여 글쓰기 대상의 외연을 넓히거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동시대 여타의 문인들과는 다른 문예미를 보여주는 ‘뒤집기(overthrowing)’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뒤집기란, 틀에 박힌 사고(routine) 즉 통념이 되어버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관념을 전도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이규보가 비근하고 낮은 소재를 활용하여 작자 자신이 느낀 현실에서의 삶과 정감을 가감 없이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설로 인정받거나 당연시 되어 온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의경을 창출하는 ‘비틀기(twisting)’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비틀기란 선행 문인들의 글에서 정설로 인정받아 온 주제나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변형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이규보가 개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목적으로 일반적 인물 평가에 의문을 제기한 모습과, 의도적으로 특정 작품이나 문체를 선택하고 재해석하여 패러디함으로써 자신의 문재를 과시함과 동시에 이중텍스트의 미학을 활용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셋째, ‘따지기’에서는 구(句)와 장(章)의 배치와 같은 표현의 실제 기법을 살펴보았다. 따지기란 문제가 되는 일을 캐묻고 분명한 답을 요구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다양한 장법(章法) 활용과 논증 방식의 실험으로 분류하여 고찰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질적 문재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양식을 한 글 안에 혼용함으로써 새로운 글쓰기의 미감을 창출하는 뒤섞기(mixing)의 실재를 살펴보았다. 이규보의 글쓰기는 전통적 글쓰기의 경계를 넘나들며 변체(變體)를 구사하였고, 고정되고 단일한 격식에서 오는 진부함이라는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 뒤섞기를 활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Ⅳ장에서는 Ⅱ장의 글쓰기 의식과 전략, Ⅲ장의 글쓰기 실재를 집약하여 이규보의 글쓰기가 보여주는 주요 특징과 미적 특질을 고찰하고 이규보 글

쓰기 방식의 의의를 탐구하였다. 이규보는 산문의 전통작법을 다양하게 망라하여 적재적소에 자유자재로 구사함으로써 동시대 여타의 문인들과는 다른 개성적 글쓰기를 실현했다. 특히 이규보가 대상을 드러내고자 한 방식은 현실과의 긴밀한 연관 하에 진정성과 역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사학위 논문

옥국재 이운영 가사의 특성과 의미

신 현 웅

2010년 2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해숙 선생님

본 논문은 조선후기 사대부인 옥국재(玉局齋) 이운영(李運永, 1722~1794)이 창작한 가사 작품을 분석하여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세계관과 의식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가사가 당대 사대부가사와 가사문학사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운영은 대대로 서울에 거주하던 경화사족으로 그의 집안은 17세기 중반 이래로 서대문 밖에 일가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 선행연구자에서 그의 가사 작품은 내용과 표현에서 다채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아 왔다. 따라서 그의 가사 작품은 전환기가 심화된 18세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창작된 사대부가사에 반영된 시대인식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운영은 필사본 『언사(諺詞)』에 가사 작품인 「작정가(鑿井歌)」, 「순창가(淳昌歌)」, 「수로조천행선곡(水路朝天行船曲)」, 「초혼사(招魂辭)」, 「임천별곡(林川別曲)」, 「세장가(說場歌)」를 남겼다. 이운영과 관련된 연구는 그동안 가사 작품에 대한 작품론을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문제도 있다. 이들 성과에 기대더라도 이운영은 조선후기 가사문학사에서 여전히 과격적이고 돌출적인 존재로 남는다. 이운영은 이 시기 문학사의 흐름에 조응할 만한 작품을 남겼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논의가 작품에 내재한 작가의식을 규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전환기가 심화된 18세기 시가 연구는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옥국재 가사의 특징으로 지적인 서사성, 장르교섭, 해학성이 작가의식을 드러내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참고하면서 서사성의 도입, 기층양식의 활용, 희극적 상황의 설정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사성이 도입된 「순창가」·「임천별곡」에는 타자의 언어와 표현이 수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기에는 권위주의적 세계관이 점차 이완되는 시대에 살면서 타자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작가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층양식이 활용된 「수로조천행선곡」·「세장가」·「초혼사」에서는 작가가 기층양식이 환기하는 정서와 기층양식에 내재한 세계관까지 수용하고 있었다. 그가 이질적인 세계관까지 수용할 수 있었던 점은 그가 일원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할 것이다. 희극적 상황이 설정된 「순창가」·「착장가」·「세장가」·「임천별곡」에서는 인물들 간에 신분, 성별, 노소(老少), 성속(聖俗)이 역전 또는 전복되면서 권위적인 인물이 희화화되고, 갈등이나 대립이 웃음으로 포용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권위적 태도나 권위의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작가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들 작품에서 작가가 탈권위화를 시도하고 있는 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절에서 창작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품을 분석한 결과, 후대에 창작된 작품일수록 권위주의적 또는 일원론적 세계관에서 더욱 이탈하고 다원론적 세계관으로 나아가고 있는 작가의식이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옥국재 가사의 가사문학사적 의미를 공시적,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옥국재 가사를 비롯한 18세기 경화사족 가사는 개성적인 사상과 문학을 추구하던 서울 주변의 문학현실에 대응하여 통상적인 사대부가사의 내용과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특히 이운영이 가사 작품에서 권위적인 인물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하고 희극적 상황을 설정하여 웃음을 추구한 점은 18세기 경화사족 가사들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었다. 이와 같은 특징은 19세기에 유행한 서민가사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이운영이 시대적 변화를 감각적이고 빠르게 인식하여 그것을 가사로 창작한, 의식 있는 작가이자 선구적인 작가임을 의미한다.

그동안 전기가사를 사대부가사의 전형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운영은 문학사에서 돌출적이고 파격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기 가사의 동적인 변화와 전환기가 심화된 18세기에 다양한 세계관이 표출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옥국재 가사의 독특함은 다양성의 시각에서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옥국재 가사를 이후의 19세기 가사와 견주어본다면, 18세기 경화사족 가사가 자기 정체성을 벗어나, 다양한 시대적 요구와 개인적 필요에 의해 자유자재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따라서 옥국재 가사는 17세기와 19세기의 다대하고도 이질적인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시각을 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장용학 소설의 담론 연구

- 식민지 체험과 언어의식을 중심으로 -

임 미 진

2010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선생님

본 연구는 장용학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체험과 언어의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장용학은 식민지 통치 아래서 교육을 받은 세대에 속한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장용학의 성장 배경을 간과하고, 그를 ‘전후작가’ 또는 ‘전후세대’로 고착화시켰다. 장용학의 작품세계는 한국전쟁의 관련성 속에서만 주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가 1950~1960년대에 발표한 전기소설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장용학 작품의 다양한 국면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장용학의 후기소설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소설과 후기소설의 변모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장용학의 작가수업은 조선어 사전을 가지고 낱말공부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방 이후 국어를 정립하려는 운동과 함께 올바른 국어사용이 요구되면서 일본어는 억압되어야 할 타자의 언어가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언어가 다른 이들에게 강제되면서 지배적인 언어형식으로 재생산된다. 〈요한詩集〉, 〈非人誕生〉, 〈易姓序說〉 등에서 ‘말(언어)’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근대 제도와 권력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圓形的 傳說》, 〈遺皮〉, 〈喪笠新話〉 등에서는 이언어(diglossia)를 사용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작중인물은 식민지시기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며 일본어에 익숙한 세대들이다. 이들은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본래 공동체의 언어는 개인 자체에 구속되어 있기보다 공동체의

언어를 사회가 명명할 때 집단의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개별 구성원의 언어적 특수성은 배제된다. 이중어를 사용하는 화자는 개인의 언어적 특수성을 끊임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집단의 구속력 외부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집단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다. 장용학은 창작초기부터 문학에서 한자혼용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1년여에 걸친 유종호와의 논쟁으로 이어지는 데, 둘의 논쟁은 ‘국문학’을 정립하려는 제도적인 문제와 연관된다. 무엇보다 장용학은 민족과 한글을 동일시하려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장용학 후기소설의 특징은 과거를 복원함으로써 일본 식민주의를 전면적으로 서사화 한다는 점이다. 〈形象化未遂〉, 〈孝子點景〉 등에서는 과거를 은폐, 망각하려는 인물과 망각했던 기억을 복원하려는 인물이 등장한다. 기성 세대인 아버지는 과거에 친일적 행각을 벌였던 인물이다. 또한 그들은 한국 전쟁을 틈타서 재산을 축적하고, 혈연과 혈통을 중시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반면에 새로운 세대인 아들은 아버지의 과거를 폭로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장용학은 1세대의 과거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2세대를 등장시킴으로써 일제시대에서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서사를 복원하고자 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체험자가 아닌 관찰자의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식민성의 문제를 타자의 몫으로 환원시킨다. 이는 학도병을 소재로 쓴 《靑銅紀》, 〈山房夜話〉에서 극복된다. 《청동기》가 개인의 욕망과 민족이 대립적으로 그려지다가 차츰 ‘민족’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산방야화〉는 ‘민족’의 당위성이 전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식민지조선의 청년이었음을 자각하면서 내적분열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학도병에 입대한 자신을 끊임없이 반성하는 동시에 일본의 식민지배논리의 허위성을 고발한다.

1970년대에 발표한 〈傷痕〉, 〈山房夜話〉 등의 작품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가 등장한다. ‘내선일체’의 정책 하에서 태어난 작중인물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사회적 권력 안에 포섭되는 과정과 맞물린다. 그에게 모어는 ‘자기의 말’ ‘우리 말’이 아니라 특정한 담론 속에서 형성된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것이다. 이들에게 식민지 기억은 일종의 ‘상흔’

이었다. 그러나 일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본의 비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식민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는 식민주의적 소외의 특징을 전유함으로써 오히려 비판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용학은 ‘일본’이라는 타자와 정면 대결하고, 일본제국의 논리가 허구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복원해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장용학은 근대의 비판적인 요소들을 식민지배와의 연관성 속에서 사유한다. 그리고 자신의 식민지체험을 발견, 극복해가면서 문학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점은 장용학의 문학을 한국전쟁의 연관성 속에서만 설명한 논의들을 극복하고, 작품에 내재된 다양한 양상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국민연극의 현실 재현 방식과 극적 효과에 대한 연구

임 혁

2010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양승국 선생님

본 연구는 일제 말기 국민연극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희곡 텍스트들에 나타난 현실 재현 방식과 극적 효과의 다양한 국면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1940년대 연극에 대한 새로운 연극사적 평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연극 연구의 흐름은 당대 연극 활동이 일제의 통제와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로 일제 말기의 정치적 담론을 확인하고 그것이 각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양상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작품 외부의 담론을 텍스트와 기계적으로 대응시켜 극작가의 친일성에 대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형식적 분석을 어렵게 한다. 또한 하나의 연극으로서 국민연극이 고민했던 관객에 대한 인식도 간과하고 만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지양하고, 국민연극에 대한 공연 분석적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극이 표면적으로는 제국의 지배담론으로 채색되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면서 조선적 현실을 재현하고 여러 가지 극적효과를 산출해냈다는 점을 살펴본다.

우선, 국민연극 작품들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충실히 재현하여 정서적인 공감을 피함으로써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경직성으로 인해 무대를 외면할 가능성이 컸던 관객들과의 거리를 좁히려 하였다.

〈별의 합창〉, 〈북해안의 흑조〉, 〈전설〉 등은 효과적인 연극 기호들을 배치하여 식민지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일상적인 욕망의 표출

을 통해 관객들에게 호소한다. 한편, 국민연극 작품들은 일제가 전쟁을 확대하자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어머니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 설정에서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성애를 담지한 어머니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관객의 감정이입을 이끌어낸다. 〈황해〉는 모성애를 효과적인 오브제와 전사를 통해 제시하고, 〈물새〉에서는 부수적 인물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상은 〈산풍〉, 〈개화촌〉에서 보다 확대되고 변형되어 나타난다. 또한 국민연극은 1940년 전후로 고조된 만주담론을 무대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일부 작품들은 만주라는 공간을 비참하고 힘겨운 삶의 현장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모습은 주로 고향과 대비되어 나타나는데, 결국 관객에게 토속적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여러소리〉, 〈희생〉 등의 중·단막극에서는 주로 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만주와 조선의 대비가 나타나며, 장막극에서는 다양한 연극적 기호들을 통해 고향의 정서가 무대화된다.

이렇게 국민연극은 다양한 연극적 기법을 이용하여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한편, 공연 환경의 발전에 힘입어 소재와 공간의 확장을 이루게 된다. 이는 물론 일제의 전쟁 동원 논리를 극적으로 제시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극적 효과를 산출할 가능성을 갖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표면적 이데올로기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국민연극의 다양한 양상들을 포착할 수 있다.

먼저 시청각적 효과를 동반한 대형 무대장치와 관객들의 상상적인 재구성을 요구하는 무대 공간 등이 주목된다. 이는 관객에게 흥미로운 볼거리 그 자체로 작용하여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을 갖기 때문이다. 〈현해탄〉, 〈신곡제〉 등에서 이러한 지점들을 볼 수 있는데, 일제의 논리를 선전하는 무대가 극적 효과의 면에서는 관객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극은 역사적 소재를 활용하여, 공간을 확장하고 식민지 현실을 우회적으로 형상화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낙화암〉은 백제의 멸망사를 다루면서 국가가 몰락하는 궁극적인 원인을 내부의 분열과 간신들의 배신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친일극이라고 하겠다. 그리

나 관객이 이미 알고 있는 실패한 역사를 다루면서, 적국의 침략에 끝까지 응전하는 인물들의 발화로 망국민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는 국민연극이 일제의 논리에만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동학당〉은 역사적 사건을 허구적으로 확장하는 극적 장치를 사용하여 대중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정치적 사안을 교묘하게 무대화한다. 더불어 국민연극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극적 효과에 미치는 언어의 영향이다. 국민연극은 연극적 의사소통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당시 일제의 언어 정책을 일정 부분 피해갈 수 있었다. 조선 관객을 일제의 논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연이 조선어로 행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무대 위에서 일본어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일본어와 조선어가 공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역사〉와 〈산하유정〉은 국민연극이 요구하는 일본어의 제한적인 사용을 충실히 이행했고, 여기서 일본어를 보급하려는 일제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효과를 산출하기도 한다. 〈역사〉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는 오히려 습득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산하유정〉은 일본어가 서툰 조선인을 등장시켜 일본어 자체를 희화화하기도 한다. 이는 언어를 통해 제국의 권위를 축소하는 극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국민연극은 그 전체를 일제의 정치적 담론에 포섭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면모들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극의 표면에서 친일적 요소를 찾아서 비판하는 것은 단면적인 접근에 그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국민연극에 대한 접근은 각 작품의 내부로도 시선을 돌리고, 극작술이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극적 효과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주지번의 문학 활동과 한중 문화 교류

정 생 화

2010년 2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종묵 선생님

본고는 조선 중기 한중 문화교류의 실상을 살피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朱之蕃(1558~1624)은 명나라 황태자의 탄생을 반포하는 사신으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翰林院 修撰이었다. 그는 역대 조선에 온 중국 사신 중에서 문학과 학문, 예술에 대한 수준이 매우 높았으므로 한국문화사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다. 또한 조선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중국에 전한 한중문화 교류의 매개 인물이었다.

그의 문학 활동은 매우 광범위하였다. 諸子百家에서부터 佛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책들을 편집하고 간행하였으며, 『詩法要標』, 『篆訣歌』,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은 한시작법과 한문공부 그리고 전서의 교재로 조선에 유입되어 널리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그의 저술들은 중국 외에도 일부 희귀본이 한국과 일본에 다수가 소장되어 있다.

주지번은 조선사행을 계기로 하여 조선의 穆陵盛世 문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가 조선에 온 1606년은 임진왜란을 겪고 난 직후였다. 당시 명나라는 문학과 사상,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일련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은 시기였으며, 조선 문인들은 전쟁으로 인한 치진 몸을 달래고 문학과 예술에 대한 열망과 지식에 대한 욕구가 왕성했던 시기였다.

주지번이 교류했던 조선의 문인들은 주로 허균, 이정구, 신희 등 조선의 엘리트 문인들로서, 명나라 복고주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로 분류된다. 이 중 허균은 종사관으로 주지번과 사신일행의 전체 노정을 함께하면서 조선의 역

사, 산천지리, 문학과 예술에 대하여 광범위한 교류를 가졌다. 이밖에 주지번으로부터 명문단의 최신 소식들을 접하고 또『世說刪補』등 전후칠자의 저술들을 받아보았는데, 그 뒤 허균이 펼친 저술 활동과 사상적 변화에는 주지번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주지번은 조선 문인들과 매우 깊은 동문의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주지번은 조선에 도착하여 원접사인 柳根을 포함하여 李好閔, 李光庭, 李廷龜, 申欽, 趙希逸, 李志完 등 27명의 조선 문인들과 화창을 하였는데, 이들이 지은 한시를 『東方和音』이라는 제목으로 『奉使朝鮮稿』와 함께 중국에서 간행함으로써 조선의 자연경관과 문물을 중국에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한시를 중국에 전파하는데 있어서 문화대사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의 唱和墨跡은 그 일부가 현재 심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주지번은 조선의 한시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특히 조선의 고시와 당풍을 지향한 한시 작품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이는 그가 명복고주의에 의거한 한시 비평을 내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조선의 여성문학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하면서 허난설헌 시집의 서문도 써주었다. 그는 직접 허균으로부터 받은 許蘭雪軒의 시집을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간행함으로써 조선 문학을 널리 동아시아로 전파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밖에 주지번은 당시 명나라에서 유행하던 吳派風 문인화첩 『千古最盛帖』을 직접 꾸며 와서 조선왕실에 선물하였는데 이로써 『萬古奇觀帖』이 탄생되고 후대에 지속적으로 모사되어 문인들에게 완상되었다. 그의 서문이 있는 『雇氏畫譜』는 미술 교재로 널리 보급되었는데, 이렇듯 주지번의 문화 제반에 걸친 활동은 당대 조선에서 매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조선 후기 화단에까지 그 맥을 이어갔다.

그의 필적은 『明倫堂』, 『望慕堂』을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한국에 널리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주지번은 조선에서 청렴한 사신으로 그 위상이 아주 높은 인물이다. 그는 호방한 성격으로 조선 문인들과의 교류에서 인간다운 정을 나누었으며 문화교류의 장을 펼쳤다. 주지번이 조선 문인들과 가진 문화교류는 그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 이는 한중 두 나

라 지식인들이 단발적인 교류가 아닌 장기간의 문화교류였다는 점, 그리고 두 나라 문인들이 가진 교류는 상호간의 교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석사학위 논문

김수현 TV드라마 〈부모님전상서〉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연구

스리바스타바 사티안슈

2010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양승국 선생님

본 연구의 목적은 김수현의 TV드라마 〈부모님전 상서〉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TV 방송이 시작된 지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오늘날의 TV는 신문, 잡지, 라디오, 인터넷에 비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친밀한 매체로 자리 잡았다.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장르는 드라마이다. 또 한국 사람들은 유독 드라마를 좋아한다. 최근 아시아권에서 소위 ‘한류’ 열풍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한류를 이끌어낸 것도 한국의 드라마이다. 한국인의 보편적인 삶과 호흡을 함께한 장르였기에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오늘날과 같이 장르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예나 지금이나 가족은 한국인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만큼 당대 현실과 대중의 의식을 반영하는 텔레비전 드라마에는 대부분 ‘가족’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러한 가족 드라마를 논의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김수현이다. 김수현은 올해로 작품 활동 40년을 맞이한다. 김수현은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 한국 가정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꼬집어왔는데 그의 영향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TV 드라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과거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저널리즘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문예 영역과 학계는 TV 드라마 연구에 대해 경직되고 아직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김수현의 〈부모님전상서〉를 대상으로 하여 드라마의 형식적 분석에 근거하여 검토하고자 했다.

68부작인 이 드라마는 김수현의 대표적인 가족드라마로서 홈드라마의 장르적 관습에 매우 충실한 드라마이며 불륜 같은 자극적인 소재나 이분법적이고 흑백논리적인 갈등의 설정 없이 평범하고 잔잔한 일상사를 다루면서도 방영 기간 내내 30%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안재효의 가장 역할을 통하여 젊은 시청자들과 어른들 세대의 진정한 소통을 꾀하였으며 이 드라마는 가족 간의 배려를 중시하고 바람직한 가족성원의 역할의 본모습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사고의 차이를 현대적이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내용 전개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지지를 얻은 작품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와, 현대적인 소재의 대비를 통해 오늘날 한국 가정이 처한 현실과 이에 따른 작가의 생각과 해결책을 잘 제시하였다. 이 드라마의 특징은 ‘한옥’이라고 하는 한국적인 공간(집)과 ‘밥’이라는 소재이다. 이 두 가지의 소재는 이 드라마에서 극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집’이 전통적인 한옥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주말드라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족이데올로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집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거의 모두 이 집으로 수렴되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모두 알려지고 그 과정에서 해소된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식사 장면은 단순히 가족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 아니라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고 역할하며 그것을 해결 하는 역할을 한다.

주인공인 안재효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쓰는 편지 내용을 내레이션 방식을 통해 주인공과 시청자의 공감대 형성하고 이상적인 아버지 상을 현대적으로 재구성 했다는 것이다. 매일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루 일을 보고하듯 일기처럼 써내려가는 이 부모님전 상서는 안재효에게는 지극히 사적인 일이라고해

도 이 드라마에서는 부모님께 올리는 편지형식이자 돌아가신 부모님과 안재효 자신과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사건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이 편지를 통해 내용과 안재효의 심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내레이션의 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국의 현대 가정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이란 주제를 작가의 개인적인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시청자가 직접 판단하게 하는 결론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방식 혹은 중립적인 태도를 통하여 남녀 성역할과 이혼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과, 성실의 자폐아 자녀와 불륜 문제 등 한국의 현대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두었다. 이러한 미완성적인 결론이나 주인공들의 중립적 혹은 방관적인 태도는 작가의 어떤 사회 현실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 반대를 드러내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시청자를 한꺼번에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또한 문학적 차원에서 이 드라마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김수현의 문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그의 극적인 대화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차범석 후기 희곡에 나타난 극작술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

박 미 란

2010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양승국 선생님

본 연구는 차범석(1924~2006)의 1970년대 이후 희곡을 대상으로 극작술의 변모 양상을 살피고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 시기 희곡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범석은 해방 이후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극작가로 평가되면서 사실주의극에서 벗어나고 있는 다양한 작품은 선행 연구에서 간과되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표현 형식의 다양화와 한국적 연극의 모색이라는 연극계의 변화 속에서 차범석 또한 기존 사실주의극의 환영주의적 극작술에서 탈피함으로써 새로운 연극을 모색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은 차범석이 기존의 환영주의적인 극작술에서 벗어나 서사적 기법을 활용하여 매개적 소통구조를 강화해나가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차범석이 보여주는 극작술의 변모는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에 조응한 형식적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차범석은 종전의 환영주의적인 극적 형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극적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차범석이 극적 환영을 유지시키는 극작술을 활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서사적 기법을 활용하여 극 중에서 제기하는 현실의 모순에 대해 관객의 비판적 인식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차범석은 극중 인물이 극적 환영을 허물고 관객에게 직접 발화하도록 함으로써 관객이 직접

사건 진행과 대면하도록 하고 현대사에서 발견되는 문제 지점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시·공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사건을 불연속적으로 전개시킴으로써 극중 사건을 등장인물의 시각으로 주관화한다. 이로써 가부장제적 사회제도 속에서 여성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을 보다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또한 차범석은 당대 일어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하여 현실에서 발견되는 모순을 서사극적인 기법을 통해 형상화하는데, 이러한 기법은 현실의 은폐된 진실과 구조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관객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1970년대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서사적 기법의 활용은 관객이 극에서 다루고 있는 현실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장에서는 차범석이 1980년대에 이후 실존 인물의 생애를 극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현대사의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를 형상화함으로써 역사의식을 모색하는 지점을 살펴본다. 차범석은 삽화적 구조를 통해 역사적 인물의 사상적 탐구와 활동상을 그려내며, 이러한 인물의 형상화는 분신이나 코러스 등의 연극적 기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차범석은 분신과 코러스의 활용이라는 연극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인물의 내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인물이 겪는 갈등의 해결을 돕는 보조적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역사적 인물이 사상적 지향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또한 차범석은 역사적인 인물을 특정한 사건 중심으로 다루기보다는 인물의 일대기를 긴 시간과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형상화한다. 이는 인물들의 삶과 당대 역사가 만나는 지점을 성찰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이는 영상 매체의 활용을 통해 역사에 대한 정보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플로로그와 에필로그 등의 매개적 소통구조를 통해 역사적 인물의 생애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고 평가하여 이를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차범석은 기존의 환영주의적인 극작술로는 1970~80년대의 현실의 문제적인 지점을 담아낼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극작술의 변화를 통해 당시의 관객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 기존의 극적 환영을 유지하는 극작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극적 기법을 활용하는 극작술 상의 변화는 한국 연극에서 1970년

대에 뚜렷해진 양식 실험의 맥락 속에서 일회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한국 연극이 다양화되는 과정에 기여하였다. 차범석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사유하고 그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극작술의 모색을 통해 대중과 호흡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극작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해방 후 최정희 소설 연구

- 여성 목소리의 재현양상을 중심으로 -

서 여 진

2010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권영민 선생님

이 글은 해방 후 최정희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목소리의 재현양상에 주목함으로써 최정희가 민족적 담론에 의해 은폐된 하위주체로서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 고유의 주체적인 정체성을 탐색하고자 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해방 후 건국과 전후 국가 재건의 이데올로기는 여성에게 국가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일한 여성상 즉 ‘현숙한 어머니’상을 강요한다. 그러나 이 시기 최정희는 일제 말기 협력의 이력과, 제도적 승인을 받지 못한 아내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처지로 인해 주류적인 이데올로기의 장 속에 편입되지 못하였다. 이에 최정희는 당시의 ‘민족주의적’ 담론을 강하게 의식하는 한편, 다양한 소설 기법을 활용해 주류 담론에 의해 은폐되고 배제된 비단일한 여성의 정체성을 탐색한다. 또한 창작 말기의 장편들을 통하여 민족주의 담론에 기초한 공식적인 역사 서술에 대비되는 새로운 역사 서술의 원리를 모색하고 새로운 역사공간을 창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해방 직후 대표적인 작품집인 『風流 잡히는 마을』은 기존의 연구에서 ‘경향적’이라고 평가되어 온 작품군(作品群)과 순수 서정의 세계를 그린 것으로 평가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작품군으로 대별되어 왔다. 첫 번째 작품군에서 최정희는 서술자로 하여금 익명적으로 오고가는 ‘풍문(rumour)’을 독자에게 전해주는 방식을 서사의 중심에 놓는다. 즉 작가의 페르소나를 배면으로 후퇴시키고 서술 층위에 불균형을 가하는 방식을 통해 해방기의 민

죽적인 비전이 촌락 공동체의 권력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소작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적하는 것이다. 또 그간 순수 서정의 세계를 그린 소품으로 처리되어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두 번째 작품군에서는 다른 대상과의 동일시(同一視)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여성 주인공의 좌절이라는 공통된 플롯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한다.

이는 동일시의 실패를 경험하는 주체를 특히 여성으로 설정함으로써 해방기 민족담론에 여전히 편입될 수 없는 하위주체로서의 여성을 부각하려는 시도이다. 결국 상이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작품군은 특히 여성으로 대표되는 하위주체들이 새로운 민족적 비전으로부터 배제되고 그것과의 동일시를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게 된다.

한국 전쟁 직후 최정희는 민족주의 담론의 외부에 위치한 자신의 발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연작형식으로 이루어진 『彈琴의 書』에서 해방기부터 전쟁직후까지 자신의 체험을 자전적 글쓰기의 방식으로 서술해 나가는 것이다.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는 극단적인 고백의 방식을 통해 최정희는 일제말기 자신의 상황과 전쟁 직후 수난상을 독자에게 호소함으로써 발화공간을 확보하고 자신의 개인적 경험들을 전후 여성의 보편적인 조건으로까지 확대한다. 또한 이 시기부터 장편소설을 포함한 다수의 작품들을 창작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전쟁 직후의 주류적인 이념을 다분히 고려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는 특징을 드러낸다. 즉 ‘아프레 걸(apres girl)’ 등 주류 담론이 제시하는 단일한 여성상에서 벗어난 여성들을 남성 화자를 통해 질타하고 재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상적인 수법의 활용, 소설 표면의 담론 층위와 플롯 전개 of 고의적 낙차를 통해 당시 주류 담론이 폭력적으로 규정하는 여성상의 비단일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여성 주체 사이의 연대가능성까지 모색한다.

이후 본격적인 장편 작품들을 연이어 창작한 최정희는 민족주의적인 담론에 기초한 공식적 역사 서술에 대비되는 역사 서술의 방법을 모색한다. 특히 한 여성 주인공이 다른 인물들에 의해 재현되고 그 ‘타인에 의한 재현’이 충돌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식적인 역사 서술에 의한 여성의 재현

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균열지점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균열지점에 ‘구술성’에 기반한 서술을 도입, 여성화자 자신의 목소리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여성 개개인의 내적인 목소리를 복원한다. 나아가 말년의 작품에서는 주로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개인적인 맥락 속에 배치시키는 전유의 방식을 통해 기존의 남성적인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특히 이 시기 작품에서는 이념이나 주류 담론에 함몰되지 않는 고유의 공간을 탐색하고 그 공간을 여성을 통해 지켜내게 함으로써 격동의 역사를 보듬는 주체로서의 여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이때의 역사는 직선적인 민족의 발전사와는 대비되는 새로운 역사 즉 순환적 역사이며 이것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는 단일한 모습으로 환원될 수 없는 주체로서의 여성이 된다.

이렇게 최정희는 창작 초부터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지배적인 여성 담론이 가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부터 여성의 정체성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해방 전후에 걸쳐 관철한 유일한 여성작가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이광수 역사소설 연구

- 역사담론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서 은 혜

2010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선생님

본 연구는 이광수의 역사소설과 사학계에서 구축된 역사담론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여 이광수의 역사 인식과 역사소설 창작 동기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근대 역사소설 장르 형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신적 토대로서의 작가의 역사인식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광수 역사소설이 근대적인 장편소설로서의 서구 근대 역사소설의 장르적 규범 내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다양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 자체가 한국 역사소설의 고유한 장르 형성의 과정을 이룬다는 전제하에 ‘역사’를 작품 내에 형상화하는 방식 및 그 효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이광수 역사소설이 형상화하고 있는 역사가 ‘현재의 전사로서의 역사’라기보다는 현재의 시대상, 사회상과는 현저히 다른 철저한 과거임과, 이러한 과거의 사실(事實)을 작품 속에 구조화하는 역사적 개연성의 문제가 이광수 역사소설의 다양한 서술방식을 결정짓는 동인임을 전제하였다.

역사소설이라는 장르를 규정짓는 역사적 개연성의 문제는 ‘역사적’이라는 용어의 외연과 내포 혹은 사실성과 허구성의 조합 양상이라는 측면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해리 쇼는 ‘역사적 개연성’에서의 ‘역사’의 의미를 ‘역사적 현재로서의 과거’와 ‘과거로서의 과거’로 구분하고 ‘과거로서의 과거’, 즉 현재의 시대상 및 사회상과는 현저히 다른 과거를 작품 속에 들여와 구조화하는 방식을 고찰하였다. 이광수 역사소설의 경우 『삼국유사』, 『연

려실기술』, 『조선왕조실록』, 『육신전』 등의 다양한 사서(史書)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변형하여 현재의 전사(前史)로서의 과거 재현보다는 ‘과거로서의 과거’를 작품 속에 구조화하여 다양한 역사소설 창작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역사적 개연성은 ‘역사성’과 ‘개연성’의 조합이란 문제와도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조셉 터너는 역사적 개연성을 구성하는 사실과 허구의 조합 정도에 따라 역사소설의 재현 방식 및 그 효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논한 바 있다. 역사적 기록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서술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받는 기록적 역사소설(documented historical novel), 공적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 소재로 삼으면서도 역사 서사의 해석을 뒤집고 새로운 해석을 가하여 역사적 개연성을 부각시키는 가장적 역사소설(disguised historical novel), 역사적 인물과 관련하여 공적 역사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세부 사실들을 재구축하는 창안적 역사소설(invented historical novel)의 분류는 역사적 개연성의 구조에 따른 역사소설의 다양한 효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광수 역사소설은 기록의 재현이 우세한 〈단종애사〉, 〈이순신〉 및 역사적 상상력의 투영이 우세한 〈마의태자〉, 〈이차돈의 사〉, 사실성 및 허구성이 비슷한 정도로 구성되어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세조대왕〉, 〈원효대사〉 등 다양한 종류의 서술 방식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허구의 공존 및 길항이 전통구축, 계몽적 역사관 확립, 지배담론의 우회라는 다양한 역사소설의 효용을 낳는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로서의 과거’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사실(史實)을 사실(事實)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천이 필요하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사학계의 구축과 함께 널리 퍼진 역사담론이 이광수의 역사소설 창작에 있어서의 원천이었다. 특정 담론은 그 담론의 형성과 변환을 지배하는 인식론적 장(le champ épistémologique), 관계들의 집합 속에 놓여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담론의 생산에는 그 담론의 생산을 통제하고 선별하고 조직화하고 재분배하는 일련의 과정, 즉 ‘배제’의 과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담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내용들은 금지, 분할 및 배척, 진위의 대립 등의 외적 조건이나 주석, 저자의 원리, 과목의 형성 등과 같은 내적 원리에 의하여 배제

된다. 식민지 시기 다층화된 역사담론에는 식민지인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이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묻고 답하는 정체성에 관한 여러 층위들의 논의가 중첩되어 있다. 근대 사학의 성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식민사학, 민족주의 사학, 마르크스 사학 등의 역사담론은 식민 지배와 민족적 정체성 찾기라는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광수는 이러한 담론으로부터 역사관을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역사 담론을 구성하는 언표들을 수용하여 서사 전개에 중요한 한 축으로 두고 있다. 소설 속의 역사 담론은 그 자체가 특정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지식을 생성 시킴으로써 당대 현실에 관한 설명을 산출하는 언표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 담론을 구성하는 언표들과 역사소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작가의 역사인식과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고의 2장에서는 신라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인 〈마의태자〉, 〈이차돈의 사〉에서 나타나는 최남선, 신채호 등의 민족주의 사가(史家)들의 영향 및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두 작품은 ‘신라’라는 시대의 풍속을 재현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서술 양태 이면에는 민속학적 관점에서의 역사인식 및 새로운 사료의 활용이라는 문제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역사 탐구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민속학적 관점에서 『삼국유사』 소재의 설화, 향가, 민요의 가치에 주목하려는 흐름이 최남선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이는 문헌 중심적 역사연구에서 배제된 단군 조선 등 고대사를 복원하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이광수는 『삼국유사』 소재의 설화를 사료로 하여 〈마의태자〉, 〈이차돈의 사〉를 창작하였으며 민요, 이두문 등을 삽입하여 민속학적 관점에서 중시된 사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신채호의 사대주의 비판 서사, 고구려 표상, 신채호 및 최남선의 화랑 표상 등을 작품 내에서 중요한 서사적 갈등 구도, 공간, 인물 형상화 방식으로 활용하여 민족적 기원과 계보를 인식하는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장에서는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 창작된 역사소설인 〈단종애

사), 〈이순신〉을 대상으로 기록 수집 및 재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 경성제대 중심의 실증사학 설립, 고적보존연구사업 등에 의한 유물, 고분 발굴 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광수는 ‘기록 수집 및 보존’의 측면에서 일면 수긍하지만, 유물 중심의 ‘발굴’ 태도와 타율적인 조선사 연구 방향에 문제의식을 가진다. 그리고 조선인에 의한 주제적 역사 연구 및 역사로부터 ‘충의’와 같은 도덕적, 정신적 구심점을 이끌어낼 방편으로서 〈단종애사〉, 〈이순신〉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이 다양한 사료를 직접 인용한 비중이 높으며 논평을 통하여 당대 현안을 적극적으로 환기하고 ‘충의’와 같은 계몽적 덕목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 가능하다.

4장에서는 1940년대 창작된 역사소설인 〈세조대왕〉, 〈원효대사〉가 앞서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역사적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려 한 작품임에 착안하여 사료의 변형 지점 및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두 작품은 역사적 인물의 전기적 서사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상상력이 투영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속학적 지식을 삽입하고 작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투영하여 일선동조론을 전유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광수의 역사소설은 시기별로 시대상의 묘사, 기록의 재현, 역사적 상상력의 투영 등과 같이 지배적인 역사 형상화의 목표를 지니고 있어 다양한 역사소설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각 시기별로 역사담론을 수용하는 작가의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민족주의 사론의 수용을 통한 전통의 구축, 기록의 재현을 통한 조선사 탐구, 역사적 상상력의 투영을 통한 지배담론의 수용 및 우회의 다양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광수의 역사소설을 역사담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이광수의 역사 인식 및 역사소설의 다양한 창작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한국어 금지 화행 연구

성 은 실

2010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장소원 선생님

본고의 목적은 금지 화행이 성립하는 조건과 그 범위를 살펴봄으로써 ‘금지 화행’의 개념을 화용론적으로 정리하고 금지 화행이 어떠한 언어적 표현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그 표현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떠한 기제에 따라 금지 화행으로 실현되는지 유형화 하는 것이다.

‘금지’란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음성 혹은 문자로 즉, 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금지 화행’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화행을 수행하는 언어적 표현들 중에 관습화되어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금지 표현’이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금지를 대부분 ‘부정’의 ‘명령’이라는 측면에서 통사론적으로 바라보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금지’라는 행위를 수행하는 언어적 표현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하여 살펴본 경우는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해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도였다. 그리고 몇몇 표현에만 얽매이지 않고 금지 화행 전체를 포괄하여 유형화하거나 금지 화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표현들의 실현기제를 살핀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본고는 구어체와 문어체 말뭉치에서 금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표현들을 추출한 후, 금지 화행의 실현 기제를 유형화하고, 관습화되어 고정적으로 금지 화행의 실현에 사용되는 금지 표현 목록을 설정하여 고정적 금지 표현의 실현 양상과 특징을 정리했다.

2장에서는 금지 화행의 개념과 구성 요소, 성립 조건과 다른 화행들과의 관계, 화행과 표현과의 관계를 다루어 금지 화행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금지 화행은 ‘화자’, 금지할 행위의 주체인 ‘청자’,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로 구성되며, 명령, 충고, 경고, 위협, 기원, 거절 화행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관습화되어 고정적으로 금지 화행을 실현시키는 표현들은 ‘금지 표현’으로, 비고정적으로 금지 화행을 실현시키는 표현들은 ‘금지의 표현’으로 보아 그 표현들을 나누어 보았다.

3장에서는 금지 화행의 구성 요소인 ‘화자’, ‘청자’, ‘행위’ 요소를 바탕으로 금지 화행의 실현 기제를 살펴보았다. ‘화자 관련 요소’로는 화자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기제와 화자가 가진 정보를 제시하는 기제가 포함되어 있고, ‘청자 관련 요소’로는 금지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기제와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기제가 포함되어 있다. ‘행위 실현 요소’로는 발화시 청자의 행위가 실현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뉜 ‘예방’, ‘중지’, ‘재발 방지’ 기제가 포함되었다.

4장에서는 금지 표현 실현에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어휘들과 구문을 중심으로 금지 표현의 형태, 통사, 의미, 화용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전 풀이 및 사용되는 환경, 대우법 체계의 적용, 핵심 어휘의 선후행 요소, 문체적 특징, 공손성 기제의 적용 양상 등이 세부적인 내용이다.

5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통합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남은 문제들을 정리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1910~1920년대 ‘조선주의’ 연구

- 최남선의 역사시학을 중심으로 -

안 지 영

2010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신범순 선생님

본 연구는 최남선이 ‘서구’를 보편으로 하는 근대에 대항하여 과거의 신화, 상징, 전통 등을 통해 조선의 현실에 맞는 근대문명을 모색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처럼 새로운 문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는 문학과 역사라는 서로 다른 장르를 넘나드는 글쓰기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고에 서는 이를 ‘역사시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다.

기존 연구에서는 최남선의 민족의식을 문화 개념과 연결시켜 문화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그동안 최남선의 민족주의 사상을 지나치게 ‘근대주의(modernism)’의 틀 안에서만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근대화 시기 이전에 존재했던 고유의 정신, 문화, 사상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모든 것이 ‘근대’로부터 기원되었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망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근대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정신들을 통해 다양한 근대성이 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 가운데는 서구적 근대성을 비판할 수 있는 반근대적인 측면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남선의 시와 시조부흥운동 및 국토순례기행문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제시되었던 1910~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장 1절에서는 최남선의 시 작품에 나타나는 ‘바다’의 의미에 대해

서 살펴보겠다. 최남선의 시 작품에서 ‘바다’는 인간 문명이 자연과는 달리 보편적 가치의 덕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비판하는 최남선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는 존재이다. 최남선은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에서 나폴레옹과 진시황에 대한 비판을 통해, ‘바다’가 영원성을 지닌 존재임에 반해 인간의 역사적 권력은 한순간에 스러져 버리는 초라한 것임을 이야기한다. 이는 자연물을 통해 문명을 비판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낭만주의적 의식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너름스구름」 등 자연물을 소재로 한 시에서 인간 문명과 대비되는 자연에 대한 예찬이 나타난다. 한편, 「관해시(觀海詩)」와 「바다를 보라」에서는 ‘바다’가 만물이 번창하는 풍요로운 생명력과 온갖 더러움을 받아들이는 덕을 가진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최남선이 바다를 부정적인 인간 문명을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장 2절에서는 최남선의 시에 나타나는 ‘하늘’과 ‘산’의 의미에 대해 검토한다. 「태백산 시집」에 실려 있는 ‘태백’을 소재로 한 일련의 시 작품들에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산’과 ‘바다’가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최남선이 대중교의 영향으로 ‘하늘’과 ‘산’, ‘태양’을 숭배해왔던 조상들의 정신을 발견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히 ‘과거’의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조선적인 것’을 우주의 보편적인 질서 안에 자리매김 시키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장 1절에서는 최남선이 고대사 연구를 통해 제천의식과 관련이 있는 ‘노래’의 신성함을 부각시킴으로써,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서 벗어나 민요를 검토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대의 신성한 의의를 잃어버리고 비속한 것으로 전락해 버린 고대의 흔적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한 그는 조선인의 사상적 경향이 민요를 통해 이어져 내려왔다고 주장하면서도, 1920년대에 시조를 부흥시키려는 운동을 벌였다. 이는 최남선이 세계 문학의 보편성과 형식과 내용상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기교시(Kunstpoesie)로서 시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남선의 문화운동은 무가(巫歌)적 전통을 전유하여 근대의 단선론적이고, 패권적인 ‘역사’ 개념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노랫가락을 통해 풍류정신을 되살려 주체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장 2절에서는 국토기행을 통해 그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문명 공동체로서 ‘나라’를 탐구하고 있음을 고찰하고, ‘나라’라는 문명 공동체의 추구가 그의 근대 비판 인식과 어떤 지점에서 연결되는지 살펴보겠다. 그는 자신의 국토기행을 신라의 화랑들이 국토순례 풍속과 연결시켜 국토에서 ‘숭고’를 체험하기 위한 과정으로 파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샤머니즘과 조선 고신앙의 관련성을 발견했으며, 이 신앙의 핵심이 자연으로 “돌아감”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백두산의 천평(天坪)에 들어서서는 자연친화적인 문명 공동체로서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는데, 이를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 하늘의 이상을 따르며 살았던 시절에 대한 동경을 읽어낼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이어령 문학 비평 연구

이 수 향

2010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성창 선생님

본고는 이어령 이어령의 문학 비평의 비평적 주체성과 문학적 논리를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이어령 비평 전반으로 확장하였다.

기존의 문학 비평에 관한 연구들은 문학 내적 논리를 파악하는 데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신 비평을 이루는 외연과 내포의 양 측면, 즉 비평의 내용 뿐 아니라 그 비평을 전달하는 비평적 주체의 담화의 방식을 문제 삼아야 한다.

전후세대의 비평가들 중에서 이어령이 흥미로운 것은 그가 비평적 자의식을 실현 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사학의 방법론을 풍부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평적 언술이 텍스트의 이차 독법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분석을 매개로 한 비평가 자신의 비평적 자의식이 표출에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어령의 비평을 읽는 독법이 비평의 내용 뿐 아니라 전략적인 담화의 방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어령의 문학 비평에 나타난 내적 논리들이 수사적인 전략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어령의 문학 비평은 발화의 어조가 강하고 단언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은 초기 비평에서 두드러진다. 이것은 이어령이 작품의 독해를 통한 비평적 평가나 판단보다는 비평적 발화나 담론의 행위 자체의 영향력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어령은 다수의 비평 논쟁을 통

해 자신의 문단적 입지를 구축해 나갔다. 논쟁은 기본적으로 비평 주체의 발화가 상대방에 대한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 또한 논증으로서의 수사학적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이어령 비평의 주체 형성의 수사학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해방 후에서 전후를 아우르는 시기는 문단의 재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이 시기는 민족문학 다시세우기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문학적 담론이 산재된 상태로 존재했다. 전후의 한국은 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과 폐허라는 상황에서 기존의 가치들이 전도된 문제적인 공간이다. 전후의 한국이 가지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론적 구도를 이어령은 비평에서 해명하려 하였다.

이어령에게 있어 이상 연구는 주체성의 소멸이라는 당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구세대와의 대결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상연구에서부터 드러나는 선언적 수사법과 분석주의에 대한 관심은 이 세대 다른 비평가들과 구분 지을 수 있는 이어령 만의 특성이다. 이것은 전후 세대의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수사법의 내용과 형식이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이어령은 전후의 피폐한 현실에서 당대의 상황을 인식하고 한국문학을 지방성에서 벗어난 세계적 동시성의 관점에서 위치시키려 하였다. 이어령이 실존주의를 수용한 것이나 김동리나 조연현 등의 문협정통과와 대결한 것은 상황과의 대결 의식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이어령의 비평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논리적 비판의 성격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소 감정적이고 당위론적인 차원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존주의의 수용에 있어서도 전후의 문학적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기보다는 지적이고 문화적인 수용에 머무른 것이다. 즉, 전후의 불안한 시대 인식으로서 실존주의를 수용했던 것이다.

문협정통과와의 대결에 있어서는 세대론적 구분을 통해 그들의 이론적 한계를 반박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어령은 그들이 내세우는 순수주의 혹은 토속주의적 문학론을 지방주의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들이 좀 더 보편적인 차원의 예술성이라는 공통향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한 쪽에만 치우쳐진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이어령의 비평적 궤적은 결국 한국문학이 보편주의적 세계문학이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부

분, 즉 그에게 있어 한국문학을 여전히 낙후하게 만든다고 생각되는 모든 상황들과의 대결 의식에서 온 것이다. 그 대결이 초기에는 문협류의 지방주의였고, 후기에는 문학 외적 관점을 투사시키는 참여론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어령의 비평적 궤적은 기존 연구사의 지적처럼 단순히 초기의 '참여'의 어법에서 '비참여'로 변절한 것이 아니라 그가 초기부터 지니고 있었던 문학 내적인 공리성의 강조였다.

3장에서는 이어령이 이론 비평의 수용을 통한 방법론적 비평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의 '비참여'적 성격이 전면에 드러난 계기가 순수/참여논쟁이었다. 이 논쟁을 통해 이어령은 이 논쟁에서 참여론 진영의 이론적 불성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후, 이어령은 신비평의 수용에 열중한다. 이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부터 문단이 사회참여론 중심으로 재편되자 비평적 자의식이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어령은 문학 내재적인 비평의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아카데미한 이론적 근거로서 신비평을 전략적으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70년대에 이르면 현실참여론 일색의 문단에서 벗어나 저널리즘과의 연관성 속에서 문화론적인 세계에 시선을 돌린다. 이를 통해 기호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어령은 문학 외적인 논리-구조-약호의 세계에 천착하게 되고 문화론적 에세이의 세계에 천착하게 됨으로써 문학 비평적 소임을 마무리한다.

이어령은 문학 비평에 있어서 수사적 전략을 사용하여 내적 논리를 효과적으로 발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어령은 한국 문학을 지방주의에서 벗어나 보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려하였던 것이다. 이어령의 내재적 비평의 강조와 이론적 엄밀성의 강조는 이후의 비평사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인정될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와 마오둔의 〈무지개〉의 비교 연구

진 술 민

2010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선생님

본고는 입센의 명작인 『인형의 집』을 비슷한 시기에 패러디한 두 작품인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와 마오둔의 『무지개』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의 조선과 중국의 사회의 사회 현실과 민중의 생활상을 밝히고 작가의 여성관, 여성해방에 대한 시각 및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를 밝히고자 한다. 이 외에 채만식이 『인형의 집을 나와서』가 『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로 개작한 것을 분석함으로써 작가의 의식 변화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이다.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는 입센의 『인형의 집』을 패러디하여 창작한 장편소설로 ‘『인형의 집』의 후일담’이라고 하기도 한다. 『인형의 집을 나와서』의 주인공 노라는 남편의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한 후, 자신이 남편의 인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출하였다. 사회로 진출한 노라는 가정교사, 화장품 판매원, 카페여급 등 여러 가지 직업을 하여 정조까지 빼앗겼다. 자살 미수 후에 노라가 베벨의 『부인론』을 읽고 새로운 사상을 얻어 여성의 해방은 개인적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사회의 제도를 바꿔야 여성의 독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깨닫고 자본가의 대변인인 남편에 대항하기로 결심하였다.

마오둔의 『무지개』는 중국 1919년 5·4운동 이후 사회적 변혁을 배경으로

주인공 매여사의 사상적 변화를 보여준 장편소설이다. 매여사는 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서 자유로운 생활을 동경하며, 사랑하지 않은 남편으로 벗어나기 위해 가출하였다. 그러나 사회로 뛰어든 매여사는 목표를 세우지 못해 전진하는 방향도 뚜렷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보통학교의 교원이 되었으나 허송세월만 보낼 뿐이었고, 가정교사를 하면서는 회사장의 첩이 되기 싫어 상해로 갔다. 상해에서 매여사는 부녀회를 참석하고 량강프의 도움을 받아 사회주의 혁명에 투신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두 작품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여주인공이 봉건적 억압과 식민지인으로서의 억압이라는 이중적인 억압에 노출되어 있다는 시대적 배경이 유사하다. 둘째로, 두 작품에서는 여주인공이 두 번의 각성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유사하다. 여성해방이라는 사상적 각성 이후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고난이라는 장애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하여, 사회제도와 구조의 변모가 여성해방의 기반이라는 이차적 각성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셋째로 여주인공이 가정의 난관, 사회의 난관, 사상의 난관을 공통적으로 거친 이후 성장하고 여성 해방을 성취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두 작품은 차이점도 있다. 여주인공들이 다 신여성으로서 가출할 때의 사상적 상태가 많이 다르다. 가정주부인 노라는 집을 나온 그날 밤 당장 갈 데가 없어 고민한다. 반면에 매여사는 학교에서 신사상을 접촉하여 가출하기 전에도 계획을 세우고 여비까지 준비를 해놓았다. 가출 후에 여주인공의 인생 여정도 큰 차이가 있다. 노라는 우선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촌에서 야학을 가르쳤고 그 후에 다시 경성으로 올라간다. 노라는 농촌에서 봉건적 인습을 체험하고 경성에서 자본주의 제도 내에서의 삶을 경험한다. 이에 반하여 매여사는 학교나 상해라는 도시에서의 삶을 통하여 사회를 인식하여 농촌생활을 한 노라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와 같이 여주인공의 각성과정이 이루어지는 인생여정은 각각 여성해방과 이상적인 사회상과 관련된 작가의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면서 수난을 겪는 여주인공 노라를 통해, 채만식은 봉건적 인습과 자본주의 사회제도가 모두 여성 해방의 장애물임을 드러낸다. 반면 마오똘

은 매여사 개인적 의식보다 집단적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 여성의 해방을 실현하려면 계급적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 구축을 위한 저항방식에서 두 작가는 차이를 보인다. 채만식이 마오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온건한 저항을 그려냈다면, 마오뚱은 좀 더 급진적인 저항 방식을 그려낸다.

석사학위 논문

한국어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한 연구

파베우 키다

2010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장소원 선생님

본고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용언, 다른 부사, 절, 문장 등을 수식하는 품사로 알려진 부사의 특이한 용법, 즉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고의 대상으로 든 부사는 모두 53개이며 다음과 같다.

① 한자어 구성: 가위(可謂), 다소(多少), 단지(但只), 대략(大略), 목하(目下), 무려(無慮), 불과(不過), 소위(所謂), 약간(若干), 어언(於焉), 유독(唯獨/惟獨), 전부(全部), 천생(天生), 항시(恒時) (14개)

② 고유어 구성: 가장, 바로, 훨씬, 거의, 겨우, 꼬박, 꼭, 아주, 조금, 다만, 딱, 오직, 온통, 기껏, 곧, 꽤, 너무, 마침, 매우, 몹시, 무척, 맨, 모두, 밤낮, 벌써, 아직, 워낙, 참, 썩, 고작, 순, 자그마치, 오로지, 한껏, 한날 (35개)

③ 혼종 구성: 대체로(大體로) 정말(正말), 주로(主로), 진짜(眞짜) (4개)

2장에서는 체언 수식 부사들을 그 형태적 특성에 따라 한자어 구성 부사와 고유어 구성 부사 그리고 혼종 구성 부사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각의 부사들은 다시 기존 문법서의 부사 기능을 유지한 채 체언을 수식하는 것과, 체언만을 수식하는 것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한자어 부사 가운데 체언만 수식하는 부사에는 ‘무려(無慮), 불과(不過, 소위(所謂), 어언(於焉), 전부(全部)’ 등이 해당하며, 고유어로 이루어진 부사 가운데 체언만을 수식하는 부

사에는 ‘고작, 순, 자그마치, 오로지, 한갓, 한낱’ 등이 해당한다.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된 체언 수식 부사들은 용언을 수식하는 동시에 체언을 수식하기도 해서 체언만을 수식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3장에서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 피수식 구성을 형태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 구성에 속하는 부사들을 나누어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 구성은 크게 ‘서술어 명사’를 포함한 ‘N+이다’ 구성, ‘N-적+이다’ 구성, ‘N+뿐+이다’ 구성과 ‘비서술성 명사’를 포함한 ‘N+격조사’ 구성, ‘N+보조사’ 구성으로 나누어 보았다.

4장에서는 먼저 명사가 지닐 수 있는 속성들을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의미 속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방향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와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그리고 정도성을 지닌 명사로 나눌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논의의 결론을 내렸다.

석사학위 논문

오장환 시의 ‘비에’ 연구

공 강 일

2010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신범순 선생님

본 연구는 오장환의 시가 ‘비에의 탐구’라는 시각 아래 한국문학사에 뚜렷이 각인되는 그의 시적성취를 살피고, 전쟁과 해방이라는 역사적 질곡 속을 헤쳐나간 그의 문학적 도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오장환은 근대적 자본주의 경제구조 속에서 파생되는 좌절감, 패배감, 울분,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을 표현주의적 기법을 통해 ‘제시’하였고, ‘비에’의 원인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비에’를 ‘제시’한다는 것은 ‘비에’적 현실을 파괴함으로서 재구축하는 벤아민의 알레고리적 제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것은 ‘비에’로 대변되는 현실을 여실히 포착하기 위한 방법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2장에서는 오장환의 초기 시(1933~1936)를 중심으로 창작방법의 경향과 그 변모 양상을 살펴보았다. 오장환은 정지용의 영향 아래 童詩를 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발굴된 詩와 童詩를 통해 정지용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지용의 영향은 표현주의 회화와 접촉함으로서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광섭의 회고, 루오의 영향, 이중섭과의 교우 관계는 이에 대한 근거라 할 수 있다. 오장환은 표현주의 기법이라 할 수 있는 그로테스크와 데포르마시옹을 통해 현실을 비참하고 끔찍한 공간으로 형상화하였다. 김기림이 오장환의 시에 대해 “새 타입의 서정시”를 세웠다고 호평했던 것은, 이러한 오장환의 시작상의 특이성을 파악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작방법에 대한 관심은 1930년대 후반, ‘전형기’라는 문학사적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오장환 시의 공백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일본 유학의 2년간을 재구함으로서 표현주의 회화의 직접적 접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시의 분석을 통해 표현주의적 기법이 발현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시적화자를 계열화함으로서 그 각각의 계열들 속에서 ‘비에’의 발현 양상과 ‘비에’의 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보았다. 『성벽』, 『헌사』 시집의 시적화자는 세 가지 계열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시적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시적대상의 삶을 말하는 경우, 다음으로 시적화자가 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만 오장환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시적화자를 오장환 자신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이 계열들 속에서 드러나는 ‘비에’의 다층적 발현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첫 번째 계열의 시편들에는 폐멸해 가는 근대와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비에’가 다뤄지고 있다. 시에서 시적화자는 시적대상을 우월적 시선으로 관찰하기보다 동일한 위치에서 바라보며, 시적대상의 삶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들의 삶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변형하여 그들이 느끼는 고통, 분노, 절망을 증폭시킨다. 이것은 두 번째 계열의 시 역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계열의 시편의 시적화자는 관찰자의 위치를 버리고 근대적 삶이 가하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절망하며, 자신의 삶마저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즉 오장환 시의 시적화자는 ‘우울’의 시선을 포기하고 근대적 삶의 내부에 도사린 부정성 속에서 절망하고 이를 폭로하며, 자신의 절망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4장에서는 「나 사는 곳」(1939~1945)과 「병든 서울」 시편을 중심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진 ‘비에’에 대한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다. 오장환의 비에의 탐구는 현실 인식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로서의 ‘비에’를 인식한 오장환은 이러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상징적 질서를 세우고자 하였다. 해방직전, 일제의 압박과 전쟁의 화염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고전’에 대한 모색에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오장환은 고전의 모색을 통해 ‘비에’가 시작되기 이전의 세계, 즉 하늘과 대지가 소통하는 신화적 세계를 발견하였다. 해방 직전, 오장환이 ‘비에’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상징을 찾고자 하였다면 해방 이후, 오장환은 ‘비에’를 벗어날 수 있는 정치적 혁명을 꿈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정치적 선택이 이

를 증명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병든 서울」의 시편에서 현실의 ‘비에’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오장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용언 활용형에서 기원한 관형사 연구

김 주 상

2010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장소원 선생님

본고는 한국어 관형사 중 용언의 활용형으로부터 어휘화한 것들의 목록을 구성하고, 공시적, 통시적 접근을 통하여, 이들의 어휘화 위계와 어휘화 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작업을 위해, 우선 관형사 범주의 설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되짚어보았는데, 지난 100년 동안 관형사에 대한 각 문법가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관형사의 영역은 물론이거니와, 관형사 품사 설정에 회의를 갖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선행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한국어의 관형사는 인구의어 관사와 달리 어휘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크다는 사실, 인구의어의 형용사와 달리 수식의 기능을 압도적으로 행한다는 사실에서 범주 설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어휘화한 용언 활용형 관형사에 대한 선행 논의는 이러한 관형사들이 어휘화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어휘에서 기원했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어, 정작 어휘화의 과정과 정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본고는 공시적으로 어휘화한 용언 활용형 관형사의 어휘화 위계를 공시적인 입장에서 정리해보고, 중세와 근대 문헌을 관찰하여 이들 어휘가 어휘화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방향으로 관형사와 어휘화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어휘화는 통시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어휘화가 통시적인 과정을 거친다면 어휘화의 정도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용언 활용형에서

기원한 관형사의 어휘화 위계 측정하는 전제로 삼았다. 또한 현대 한국어 용언 활용형 관형사의 형태, 통사적인 성격을 정리해 보았다. 형태적인 특징으로는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는데, ‘-은’형 관형사보다, ‘-을’형 관형사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은 것이 관찰되었다. 그 이유는 불만족스러운 사물이나, 사람, 사건에 대한 비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어휘화한 용언 활용형 관형사는 어휘화 과정에서 형태변화를 겪기도 한다. 통사적인 특징은 대체로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으나, 용언의 관형사형과 같이 관형절의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것도 있어서 이러한 때는 용언의 관형사형과 혼동을 줄 수도 있다. 세 번째 일부 관형사는 감탄문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의 감탄문은 소형말보 구성을 가진다.

앞에서 언급했던 가정을 바탕으로 세 가지 기준을 기준으로 삼아 어휘화한 용언 활용형 관형사를 분류하였다. 그 기준의 첫째는 형태적 기준이고, 둘째는 기능적 기준, 셋째는 의미적 기준이다. 형태적 기준에서는 구성이 복잡하고, 불투명할수록 또한 현대국어에서 기원한 용언의 기본형이 소멸한 경우에 어휘화의 단계가 높으며, 기능적 기준에서는 수식과 서술의 기능을 둘 다 하는 것보다, 수식의 기능만 하는 것이 어휘화 위계가 높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미적 기준에서는 용언의 활용형에서의 의미에서 확대되거나 그 의미가 많이 벗어난 것일수록 어휘화의 정도가 높다고 분류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거친 결과 형태적 기준에 의한 어휘화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졌으며, 기능적 기준은 2단계로, 의미적 기준은 4단계로 나누었고, 각 기준을 동등하게 단계에 따라 점수화하여 용언 활용형에서 기원한 관형사의 전체적인 어휘화 위계를 조망하였다. 그러나 그 기준들 사이에 어떠한 것이, 어휘화 위계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이 본고의 한계이다.

용언 활용형 관형사의 어휘화 과정에 대한 통시적인 접근은 문헌을 통한 형태, 통사 및 의미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다루었던 어휘들을 다시 관찰하여 새로운 발견도 적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염병할-’는 20세기에 가까이 와서야 문헌에 등장한 표현으로 그렇다면 ‘염병할’ 역시 최근에 관형사로 어휘화한 단어로 볼 수 있

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허튼’은 기존의 연구에서 ‘헐-’, ‘허틀-’에서 온 것으로 보았는데, ‘헐-’이 문헌에서 일찍 사라진 반면 ‘허틀-’은 ‘헛틀-’, ‘헨틀-’의 형태로 비교적 가까운 19세기말까지 존재하고 있었다. ‘애먼’은 ‘어멀-’와 ‘○·ㅣㅁㅣㅎ-’가 모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주장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멸한 용언 활용형 관형사는 ‘녀나믄’과 ‘혀나믄’, ‘슬든’과 ‘아련’을 살펴보았는데, 더 많은 자료가 있었다면 더욱 정밀하게 이들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존의 논의가 ‘B’라는 관형사가 ‘A’로부터 유래하였다는 것만 지적하였다면, 본고는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더욱 상세하게 관찰하려고 노력하여 공시적으로 풀 수 없는 용언 활용형에서 기원한 관형사가 어휘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중세 한국어의 정도 부사에 대한 연구

백 채 원

2010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현희 선생님

본고의 목적은 중세 한국어 정도 부사의 통사·의미론적 특징에 주목하여 피수식어의 통사 범주와 의미 유형을 세분하여 살펴보고, Sinclair(1991)의 ‘없힘 의미소’(semantic prosody)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도 부사의 의미를 더 세밀히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가지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정도 부사 목록을 선정하였다. 정도성이란 무엇이며, 정도 부사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중세 한국어 정도 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논의에서 정도 부사로 잘못 분석된 것이나,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정도 부사로 쓰이지 않은 것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3장에서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의 통사 범주를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정도 부사는 상태성을 띠고 있는 형용사와 심리 동사를 수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 한국어의 정도 부사는 완료 동사도 수식할 수 있는데, 중세 한국어에서 역시 제일 널리 쓰인 부사(‘ㄴ장’과 ‘ㄴ히’)에 한정하여 그러한 현상이 미약하게나마 보였다. 그리고 명사를 수식하는 현상과 정도 부사가 정도 부사를 수식하는 예도 중세 한국어 시기에 드물지만 나타난다.

4장에서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의 의미 유형을 분석하여 어떤 의미 유형이 정도 부사의 수식을 주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피수식어의 의미 유형은 기존 논의에서 이루어진 형용사 분류들을 따라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 성상 형용사, 평가 형용사, 비교 형용사, 소재/소유 형용사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정도 부사가 어떤 의미 유형의 피수식어를 주로 수식하는지, 혹은 어떤 유형의 피수식어를 거의 수식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정도 부사 + 피수식어’ 구문의 없힘 의미를 분석하여, 그 구문이 문맥에 의해 어떤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없힘 의미소란 어떤 어휘가 문맥에 의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현상이다. 정도 부사의 의미 기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정도 부사가 쓰인 실제 문맥을 통해 살펴볼 필요도 있다. 비록 모든 부사를 대상으로 하여 없힘 의미소를 설정하지는 못했지만, 중세 한국어 정도 부사의 의미를 보다 정밀히 기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5장에서는 결론 및 남은 문제를 제시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장한몽〉 연구

이 경 립

2010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방민호 선생님

본 연구는 〈장한몽〉의 서사를 분석함으로써 그 독자성을 밝히고 나아가 이 작품이 1910년대 조선의 서사 공간에서 차지한 위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한몽〉은 1910년대의 대표적인 변안소설로서 변안의 과정에서 자국의 사회, 자국의 소설을 매우 강하게 의식하고 이에 따른 동화와 이화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변안은 문화권과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사(narrative)의 이전에 관련된 특수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번역과 그 특성을 달리 한다. 따라서 원작에 대한 ‘정확성’의 정도가 번역 작품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성립할 수 있다면, 변안은 변안자에 의해 개작을 거침으로써 원작으로부터 이질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본령이자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먼저 변안이라는 문학적 현상의 본질을 탐구한 후, 〈장한몽〉이 1910년대 서사 공간으로 동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간 〈장한몽〉을 포함한 1910년대 변안소설의 상업성은 국권의 침탈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식민지적 특성으로 환원되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시기 변안소설에서 두드러지는 상업성은 근대라는 특정 시기에 두드러지는 특징이며, 변안은 창작적 기법의 일부로서 활용된 전통을 가진 문학적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장한몽〉은 〈금색야차〉의 서사 전체를 수용 공간의 특성에 맞추어 재맥락화하고 있는데, 이때 가장 먼저 변경되는 것은 서사의 시공간적 배경이다. 〈장한몽〉은 시간적 배경의 설정에 있어 신소설의 시간 감각을 적극적으로

로 받아들이고, 공간적 배경의 설정에 있어서는 조선의 서사 공간에 친숙한 심상지리를 활용하여 주 무대를 평양과 경성으로 이원화하였다. 또한 〈장한몽〉은 선악구도를 강조하거나 ‘여인의 수난이야기’ 성격을 강화시키는 등 서사의 유형 역시 당대 서사 공간의 주류를 형성했던 신소설에 유사한 그것으로 변개시키고 있어 ‘현지화’의 양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3장에서는 〈장한몽〉을 둘러싸고 이와 상호작용하는 당대 조선의 사회적·서사적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장한몽〉이 드러낸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규명한다. 〈장한몽〉은 1910년대의 조선 사회라는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과 연관됨으로써 결국 작품 전체가 원작과는 다른 고유한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그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원작의 문제의식을 전유하여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작에는 없는 문제의식을 소설 속에서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 중 사회적 욕망과 신분 상승의 의지를 표출하는 여성 인물의 형상화는 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신소설에서 주로 남성의 계층 상승의 자격 조건으로서 수동적인 위치를 점유하던 여성이 미모를 무기로 하여 계층 상승을 능동적으로 계획하는 욕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장한몽〉의 심순애는 신소설의 여타 여성들과 변별점을 갖는다. 또한 최만경은 당대의 서사 공간에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남성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애정의 획득에도 적극적인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다. 그리고 〈장한몽〉은 양반 계층이 쥐고 있던 기득권이나 초창기의 근대적 지식인 계층이 가지던 특권이 거의 사라진 시대를 배경으로 이수일과 김중배를 통해 신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신소설에서 발견되던 신구 갈등 이후의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장한몽〉을 〈금색야차〉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개작의 방향이 신소설의 대척점에 선 담론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방향성은 신소설에서 추구하던 개화와 문명의 가치를 내재화한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혹은 무력하게 형상화함으로써 드러난다. 근대 교육의 기치 아래 조선에 유입된 서양인 세력에 의해 타락한 최만경의 서사와 근대 교육을 받은 심순애가 정절이라는 구 도덕을 저버리는 서사는 당대 조선 사회의 공적 영역에 포섭되기 시작한 새로운 근대적 여성 인물군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표출한다. 또

한 행실의 난잡함과 직결되어 묘사되는 서양식 풍속은 주로 최만경과 김중배라는 두 악인과 결합되어 있어 부정적인 느낌을 더욱 강하게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신소설에서 선인과 결합하던 ‘신(新)’이라는 기호가 악인과 결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타락한 문명과 개화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으로 전통적인 유교적 윤리관과 연계된 기독교적 윤리관이 부상한다. 이는 〈장한몽〉에 나타난 인심세대가 개화와 문명의 가치로 현재의 세대를 재단할 수 있었던 신소설의 시대 이후에 관련된 것임을 보여준다.

신소설에서 근대소설로 연결되는 특수한 시공간에서 〈장한몽〉은 소설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자국의 서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와 밀접한 공명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후대의 소설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재와 주제를 제공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소설사의 혼절적 동력원으로 작용한 〈장한몽〉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한국어 배분 표지 ‘들, 마다, 끼리, 씹’에 대한 연구

정 상 희

2010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전영철 선생님

본고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 배분 표지의 의미와 특성을 밝히고 복수 사건의 유형을 정립함으로써 각 표지에 의해 표현되는 복수 사건의 유형과 배분 표지 간의 기능 분담 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주로 사용된 자료는 2007 세종 코퍼스 형태 분석 말뭉치와 기존 연구 및 사전류이다.

‘들’의 기능을 배분성으로 본 일련의 연구들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마다’, ‘끼리’, ‘씹’ 역시 ‘들’과 같이 배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배분 표지라는 용어로 통칭하였다. 또한 이들이 배분성을 바탕으로 복수 사건을 표현한다고 보아 사건 의미론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복수 사건의 하위 부류를 유형화하고 각 표지가 나타내는 복수 사건을 배분성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집단성과 배분성은 서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기존 연구의 입장에 동의하여, 특정 환경에서 하나의 표지에 의해 두 가지 특성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를 소개하였다. 또한 배분 표지에 따라 배분성이 실현되는 정도 및 격자 구조상의 배분성 실현 층위 등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배분 표지는 일차적으로 복수 명사구를 이루는 개체의 개별성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지닌다는 입장에서, 각 배분 표지와 공기하는 술어의 상적 특성과 행위주의 관계, 관형사가 복수 명사구를 양화하는 방식, 선행 명사의 의미적 특성, 상호성 등을 바탕으로 각 표지의 배분성을 증명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배분 표지 중 가장 무표적인 배분성을 나타내는 표지는 ‘들’로, 다양

한 문장 성분 뒤에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고 집단 술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들’이 출현할 수 있음을 술어의 상적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또한 ‘들’이 추상 명사나 고유 명사와도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마다’는 선행 성분과의 결합이 비교적 제약적이어서 체언과 쉽게 결합하였으며, 가장 상위의 집단을 양화하는 관형사와의 공기 비율이 매우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다’는 총망라적 배분성과 선택적 배분성을 표현할 수 있음을 격자 구조를 들어 설명하였다. ‘끼리’는 대명사와의 활발한 결합 및 술어의 상호성을 근거로 다른 배분 표지들에 비해 폐쇄적인 배분성을 나타내며 집합의 구성원을 지시할 수 없는 총칭적인 집합 명사와 결합하면 집단적 배분성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씩’은 수량사구나 수량적 정보가 담긴 체언과 결합하여 배분성을 나타내고, 수량적 정보가 담기지 않은 체언과 결합하여 변화의 의미를 나타냄을 밝혔다.

또한 본고에서는 복수 사건 구조의 체계를 확립하고 각 배분 표지의 배분적 특성이 어떻게 사건 구조로 귀결되는지를 보였다. 복수 사건은 외적 복수 사건과 내적 복수 사건으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시차적 복수 사건과 동시적 복수 사건으로도 나눌 수 있다. ‘들’은 외적 복수 사건을 표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마다’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시차적 복수 사건의 극단적 유형인 습관적 행위를 표현함을 알 수 있었다. ‘끼리’에 의해 표현되는 사건은 그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복수 의미역으로 표상될 수 있음을, ‘씩’이 배분성을 나타낼 경우 외적 복수 사건이 표현되지만 수량 표현이 없는 명사와 결합하여 부사로 기능하면 균질적 변화를 나타내어 내적 복수 사건이 표현됨을 보였다.

각 표지의 기능과 표현되는 복수 사건의 유형을 바탕으로 이들의 조합 관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들의 조합 관계는 각 표지가 표현하는 복수 사건의 유형간 동질성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박사학위 논문

황순원 문학 연구

노 승 욱

2010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남현 선생님

본고는 황순원 문학에서 리얼리티와 상징이 상보적으로 길항작용하며 나타나고 있는 주제의식과 형식미학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황순원 문학에 있어서 리얼리티와 상징의 관계는 현실주의와 상징주의, 서사성과 서정성, 환유와 은유로도 확장하여 인식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응관계라고 할 수 있다. 황순원 문학은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들이 상호 공존하며 변증법적인 지양을 이루어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황순원이 리얼리티와 상징과 같은 대립적 관계를 상보적인 길항관계로 인식하며 변증법적으로 통합해가는 서사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황순원 문학의 리얼리티와 상징을 규명함에 있어서 서사학과 수사학의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서사학과 수사학의 통합적 논의는 내포작가의 관념적 태도를 주목한 웨인 부스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스티븐 코헨과 린다 샐리어스에 의해 개진된 서사이론 역시 서사학과 수사학의 통합적 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코헨과 샐리어스는 텍스트성의 분석을 통해 은유와 환유를 계합적·통합적으로 사분하고 서사체의 구조를 스토리와 서술로 설명하면서 서사적 주체의 이데올로기와 담화적 실천을 논하였다. 본고는 코헨과 샐리어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황순원 문학에 있어서 서사체로서의 작품의 구조와 그 원천으로서의 서사 전략이 함께 규명되는 효과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황순원 문학은 시대와 현실의 문맥적 상황에서 작품의 주제의식이 발현되

고 있다. 그 첫 번째 역사적 맥락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라면, 두 번째 역사적 맥락은 6·25 동란과 남북 분단이다. 작가의 실존적 정체성과 연결되는 이 두 가지 시대상황은 통합적 환유의 형상화 방식과 계합적 환유의 형상화 방식으로 각각 나타난다. 시대와 현실의 억압적이고 모순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가는 은유의 형상화 방식으로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 첫 번째가 탈향자의 귀향 욕망을 상징적으로 구현해가는 통합적 은유의 형상화 방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경계인의 구원 욕망을 상징적으로 추구해가는 계합적 은유의 형상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황순원의 초기 소설에서는 식민지인의 초점화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식민지 현실에 대응해가는 작품들이 발견된다. 일제의 식민통치로 억압되어 있던 초점화자는 여인과 아이, 동물들로 다변화되는 가변적 초점화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모성성에 의해 생명력이 고양되는 소년과 노인 초점화자는 엄혹한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조선과 일본,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두 기표는 일제의 억압을 통해 하나의 국가와 국민이라는 모순적 기의를 형성한다. 이때 두 기표는 함께 텍스트에 나타나기에 환유적이며 기표들의 기의가 모순적 인접성을 갖기에 통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황순원은 8·15 해방과 6·25 사변, 남북 분단 등의 민족사적 사건들을 서사화하면서 중립적 비판의식을 나타내는 소설을 창작하였다. 작품 속의 중립적 초점화자는 해방 후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은 물론 같은 조선인 간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자 타인을 기만하는 행태를 비판적 시선으로 나타낸다. 황순원은 북한의 토지개혁령의 공포와 이로 인한 지주와 소작인 간의 갈등을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남북 분단 후 남한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억압을 중층 플롯을 설정하면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자 하였다. 황순원은 해방 후부터 남북 분단까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의 갈등 관계를 포착해 내고 있다. 이때 아웃사이더는 인사이더와 인접성을 갖기에 환유적이지만 각기 자신의 영역에서 타자를 배제하려는 속성을 나타내므로 계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황순원은 월남 실향민으로서 직접 겪은 고향 상실의 체험을 문학적 상징

으로 형상화하였다. 그의 고향인 서북지역은 생명존중사상과 생명구원사상을 나타내며 민족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원형적 상징 공간으로 기능한다. 황순원의 소설에서 고향은 ‘별/흙’의 대립적 상징을 통해 ‘이상적 고향/실제적 고향’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겉 이야기’는 귀향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서사적 장치로 사용된다. 황순원 소설에서 고향을 상징하는 기표들은 현실을 상징하는 기표들과 인접하게 병치되므로 환유적이며 두 기표의 기의가 귀향 의지로 등가화되기에 은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황순원의 소설에서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영역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인물들이 형상화되고 있다. 경계선을 나누는 대립항은 ‘성/속’, ‘유랑성/정주성’, ‘이기주의/이타주의’ 등의 의미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때 작품의 해석 약호가 성서에 놓임으로 인해 황순원 소설과 성서는 상호텍스트성을 형성하며 공통된 해석의 기반을 갖게 된다. 황순원의 소설에서 ‘나무’의 상징은 성서의 지시적 약호를 해석함으로써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작가는 속된 인간의 모습에 역설적으로 현현하는 신의 형상을 형상화함으로써 경계적 인물들이 죄의식을 벗어나서 존재론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경계선상에 위치한 인물에 현현한 신성은 신과 인간의 유사성을 나타내기에 은유적이며 인간의 죄와 욕심이 신의 용서와 사랑으로 대체되기에 계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

신광수 관서악부의 대중성과 계승양상

이 은 주

2010년 2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종묵 선생님

본고에서는 18세기 남인계 시인으로 광범위한 시명을 떨쳤던 신광수를 주목하고 그의 대표작 〈관서악부〉에 대한 여러 평가와 전사본의 유통 상황, 그리고 후대에 〈관서악부〉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살폈다. 본고의 착안점은 〈관서악부〉의 특징적인 형상화 방식이 무엇이며, 후대 작품들이 이 점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하는 점이었다. 이미 다수의 전사본과 평어가 삽입되는 양상과 지역에 대한 장형 연작시가 지속적으로 창작된 사실은 〈관서악부〉가 문학의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서악부〉의 현전 상황과 〈관서악부〉의 기본 구도를 간단하게 개괄하고 이어 〈관서악부〉의 특징적인 국면이 대중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고찰하였다. 〈관서악부〉에서 그려진 평양은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중국의 ‘江南’ 이미지를 가져왔고 이는 강남을 동경하는 전통적인 인식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동일시를 통해 평양의 관변풍류는 중국의 역대 문인들이 노닐었던 강남의 문인풍류를 누리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었고, 비교적 친근감 있는 문학적 관습 위에 당대 평양의 변화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덧입혔다.

〈관서악부〉에는 부분적으로 통속적인 어휘와 표현이 등장하고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은 평이한 시어들로 구성되었지만 그렇다고 이 시가 전적으로 통속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시는 전형적인 문인의 풍류를 다

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대의 시적 전통을 계승하는 측면이 강하다. 다만 이 시에서 관찰사 채제공이 평양에 도입하여 풍류를 누린다는 점에서 전시대와는 달라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풍류로 대변되는 유흥과 쾌락을 전면에 뒀으로써 채제공의 풍류를 고아하고 품위 있는 전통적인 문인풍류의 모습이 아니라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향락을 즐기는 고위관료의 풍류로 그려냈다. 신광수는 <관서악부>에서 채제공이 평양과 관서지방을 순력하는 설정을 통해 채제공의 시선에 놓인 다채롭고 화려한 산수와 승경, 풍속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이를 통해 상상할 수 있도록 형상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풍류의 형상화에 있어서 시각성이 두드러진 표현이 갖는 의의는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선명하다는 점에 있다. 비교적 평이한 시어와 구법으로 묘사된 낯익은 유흥의 세계에서 자세한 묘사대상은 문인의 풍류가 갖는 아취보다는 유명한 승경 같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평양의 공간성이었고, 관건은 산수와 문인의 결합이 아니라 평양에서 유쾌한 감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면을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불특정 독자들 모두에게 가보고 싶고, 겪어보고 싶은 유쾌하고 낭만적인 파노라마를 펼쳐 보여준다. 이렇게 묘사된 장면들이 작자 자신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호쾌한 세계를 평양의 모습으로 치환시켰기 때문에 이 시의 주안점은 시를 읽는 사람에게 마치 이러한 풍류를 누리고 있는 듯한 대리만족의 효과를 주는 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후 유통되는 과정과 의작이 창작되는 양상을 통해 <관서악부>가 확산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관서악부>의 특징으로 제시한 강남 문인풍류의 이미지와 극대화된 관변풍류와 구경거리, 가창성은 고스란히 후대 의작들로 이어졌다. 19세기 평양의 모습을 담아낸 張之璠의 <平壤竹枝詞>는 다소 이상적으로 그려졌던 <관서악부>의 풍류를 현실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작품이었다. <관서악부>에서 보여주었던 감사의 풍류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변화한 평양에 도착해서 평양기생들을 목도하면서 평안감사의 풍류를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게 되면서 <평양죽지사>의 강조점은 현실적인 맥락으로 옮겨갔다. 장지완은 일견 화려하고 아

를답게만 비취졌던 평양에서 그 이면에 감춰졌던 불안하고 남루한 삶들을 조명하면서 현실성을 획득해갔다.

강남 이미지의 투사는 19세기 후반에 통제영이 있는 고성을 묘사했던 南一元의 〈統海百八詞〉에서도 발견된다. 남일원은 자신의 시를 柳永의 〈望海潮〉와 결부시켜 절창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피력했다. 유명이 〈망해조〉는 아름답고 변화하며 풍요로운 항주의 경치를 읊은 사로, 知杭州가 된 친구에게 자신이 온 것을 알리기 위해 지었다는 창작배경을 감안하면 어릴 때 놀던 풍경을 묘사한 이 시가 얼마나 이상화된 모습으로 그려졌을 지 상상할 수 있다. 강남의 이미지를 덧입히려는 노력은 북청을 유람한 뒤 지은 李炳勛의 〈靑海樂府〉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통해백팔사〉와 〈청해별곡〉은 화류공간으로서의 평양에 주목했던 〈관서악부〉의 착안점을 가져와 고성과 북청이라는 별개의 지역에 접맥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성과 북청은 관변풍류가 발달한 군사지역이었고 이 때문에 이곳에서 〈관서악부〉를 쉽게 떠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李厚淵의 가사 〈仙樓別曲〉과 판소리 춘향가를 소재로 한 尹達善의 〈廣寒樓樂府〉는 각각 가사로 개작하거나 판소리적 요소를 한시에 수용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관서악부〉와 비슷한 구성을 취하거나 주요 장면을 삽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서악부〉는 도입, 순시, 교방의 잔치 등 전편을 몇 개의 장면으로 구획했고 후대에 지어진 작품들은 〈관서악부〉와 유사한 구성을 취하거나 몇몇 장면을 삽입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평양을 소재로 한 시적 흐름을 조망해볼 때 鄭知常의 〈送人〉에서 부각된 이별의 정한은 그동안 평양을 상징하는 이미지였고 이러한 정조는 林梯의 〈溟江歌〉에서도 발견된다. 〈관서악부〉는 의고풍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으로 당대의 변화하고 화려한 평양의 모습과 총체적 모습을 구현하려는 지방지의 특성을 시에 수용했다. 19세기 장지완의 〈평양죽지사〉에서는 〈관서악부〉에서 부각된 풍류공간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되 민간의 삶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쪽으로 변모하였다. 한편 지역의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17세기에 朴?의 〈西京感述〉에서는 평양의 형승과 풍속이 잊혀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기록하던 차원이었으나 신광수는 〈관서악부〉를 지으면서 시

로 쓴 지방지임을 표방했고, 19세기에 洪敬謨의 〈吳洲詩志〉에 이르면 지방지의 체재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서악부〉에서 촉발되었던 지역에 대한 관심은 장형 연작시의 형식을 통해 지역을 총체적으로 구현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

[V+-이, -음, -기]가 포함된 한국어 합성명사 연구

카노크완

2010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송철의 선생님

본고는 첫째 일반 합성명사 구성에 포함된 [V+-이, -음, -기] 형태의 기능과 의미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둘째 ‘걸음걸이’형 합성명사와 ‘걸음걸음’형 합성명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셋째 음식이름 합성명사의 한 구성성분으로 나타나는 [볶음/튀김/쌈] 같은 형태가 합성명사에서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가를 밝혀 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먼저 2장에서는 합성어와 관련된 기본 전제로서 ‘합성어의 개념’, ‘기능의 변화’, 그리고 ‘합성어의 종류’를 살펴 보았다. 합성어의 종류는 ‘기본적 합성어’와 ‘종합적 합성어’, ‘내심적 합성어’와 ‘외심적 합성어’ 그리고 ‘대등합성어’와 ‘종속합성어’로 구분해서 정리했다. 또한 접미사 ‘-이, -음, -기’의 기능, 선행 성분 의미 관계, 그리고 [V+-이, -음, -기]의 지위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는데, [V+-이, -음, -기]가 ‘실재어’ 또는 ‘잠재어’인 경우, [V+-이, -음, -기]가 합성어의 선행성분인 경우, [V+-이, -음, -기]가 합성어의 후행성분인 경우, [[V+-이, -음, -기]가 선행성분으로도 나타나고 후행성분으로도 나타나는 경우 등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

3장에서는 [V+-이, -음, -기]가 일반 합성명사 형성에 참여할 때의 기능과 의미특성을 고찰하였다. [V+-이, -음, -기]가 합성명사의 선행성분일 때 어떤 동사어간의 경우에는 ‘-이, -음’과만 결합하고, 즉 [V+-이]/[V+-음]만 가능하고,

‘놀-’: 놀이/놀음 → 놀이동산/놀음터 (‘놀기+N’은 안 나타남)

‘접-’: 접이/접음 → 접이문/접음표지 (‘접기+N’은 안 나타남)

또 어떤 동사어간의 경우에는 ‘-음, -기’와만 결합한다, 즉 [V+-음]/ V+-기]만 가능하다.

‘깎-’: 깎음/ 깎기 → 깎음밥/깎기꼴 (‘깎이+N’은 안 나타남)

‘버티-’: 버팀/버티기 → 버팀기둥/버티기싸움 (‘버티(이)+N’은 안 나타남)

[V+-이, -음, -기]가 합성명사의 후행성분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가 나타났다. 첫째는 [V+-이]/[V+-음]만 가능한 경우인데 이에 해당하는 예는 ‘깎이/깎음, 놀이/놀음, 막이/막음’이다. 둘째는 [V+-음]/[V+-기]만 가능한 경우인데 이에 해당하는 예는 ‘누름/누르기, 바꿈/바꾸기, 붙임/붙이기’이다. 셋째는 [V+-이]/[V+-기]만 가능한 경우인데 이에 해당하는 예는 ‘받이/받기, 잡이/잡기, 접이/접기’이다. 마지막으로 [V+-이]/[V+-음]/[V+-기]가 모두가 가능한 경우인데 이에 해당하는 예는 ‘닭이/닭음/닭기, 떨이/떨음/떨기, 볍이/볶음/볶기’이다. ‘놀이, 놀음, 누르기, 닭이, 볍음, 붙임, 잡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단어들은 독립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이 자립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사로 취급했다.

4장에서는 ‘걸음걸이’형 합성어와 ‘걸음걸음’형 합성어의 차이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걸음걸이’형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걸음걸이, 놀음놀이, 앓음앓이, 알음알이, 얼음얼이’가 있지만, 그 외에 ‘뜨개뜨기’와 같은 단어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걸음걸음’형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걸음걸음, 꺾임꺾임, 내림내림, 배움배움, 생김생김, 앓음앓음, 알음알음, 차림차림’이 있다.

5장에서는 음식이름 합성명사에서 나타나는 [볶음/튀김/써]의 형태론적 지위와 의미특성을 주로 고찰하였다. 이들은 [V+-음]형에 해당하는 파생명사들인데, 동일한 파생명사가 합성어의 선행성분으로 나타나는가 후행성분으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위치에 따른 의미 차이를 고찰하였다. [볶음/튀김/써+N]과 [N+볶음/튀김/써]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볶음밥, 튀김고등어, 써밥’ 등은 전자에 해당하고 ‘야채볶음, 감자튀김, 상추써’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들을 고찰한 결

과 [볶음/튀김+N]은 ‘일품요리(주요리)’를 뜻하지만 [N+볶음/튀김]은 ‘반찬의 일종’을 뜻한다든지, [쌈+N]과 [N+쌈]은 둘다 ‘주요리’를 뜻한다든지 하는 사실들을 밝힐 수 있었다.

그밖에 [볶음/튀김/쌈+N]에 선행하는 성분, 그리고 [N+볶음/튀김/쌈]에 선행하는 성분으로는 어떤 단어들이 오는지, 그리고 그 선행성분들과 [볶음/튀김/쌈+N] 및 [N+볶음/튀김/쌈]의 의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박사학위 논문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정치성’의 의미 연구

차 미 령

2010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남현 선생님

이 연구는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정치성의 의미를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작가 최인훈은 작품 활동 내내 전체의 억압에 맞서서 개인의 자유로운 가치 추구가 구현되는 세계를 지향해온 1960년대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이와 같은 작가적 인식은 지배 질서와 끊임없이 불화하는 소설 속 인물들의 사유와 행위를 통해 구현되고 있으며, 굳어진 문학적 관습에 저항하고자 한 작가적 시도는 특수하게 고안된 소설적 장치들을 생산하며 종래의 감각장을 교란하는 구성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 주목하여 이 논문에서는 최인훈 소설의 내용적·미학적 자질을 관통하는 핵심요소가 정치성에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분석을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주제론과 형식론을 접합하는 매개로서의 정치성은, 그간 사실주의적 경향과 비사실주의적 경향으로 대별되어 온 최인훈 소설의 간극을 해소하고 그 전체상을 조망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최인훈 소설이 문제 삼고 있는 동시대의 정치적 현실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면서, 각각의 국면에서 최인훈 소설이 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추적하여 그 정치적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고 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작가의 대표작 『광장』 이전의 최인훈의 초기 소설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관찰자적 관조와 계보학적 검토 등 소설 속 인물들이 행위 보다 우위에 있다고 사유했던 지식인의 역량은 서사가 전개되면

서 위기를 맞는다. 그들의 인식과 판단은 자신들의 행위로 구현되지 않으며, 바깥으로 현시될 수 없는 극히 제한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한 귀결에 초기 소설들의 핵심이 자리하고 있는바, 『가면고』에서는 내적 자유의 근원적 제한성이 자기 창조와 타자의 문제를 통해 현상하고 있다. 전쟁 등의 외부적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자 하는 인물의 욕망은 이후 최인훈 소설에서 포착되는 개인주의가 발아하는 광경을 지시하는 한편으로, 스스로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율성 역시 수용하여야 함을 암시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1960년대 초중반 발표되었던 최인훈 중기 소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지배 권력의 존재 양상과 이에 응전하는 문학적 저항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먼저 최인훈 소설이 무대화하고 있는 해방 직후부터 군사독재정권에 이르기까지의 시기가 작가에 의해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를 짚어 본다. 이 계열 소설의 첫머리에 놓이는 『광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폭력의 문제가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법적 폭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후의 소설들에서 포착되는 지배 권력은 시민의 가치 판단을 주조하는 보다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혁명 직후 작가에게 시민적 역량이 결집한 최초의 사건으로 수용되었던 4·19의 소설적 형상화와 의미화 양상도 고찰해 본다. 『광장』 등에서 개진된 열정과 열광의 수사학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혁명을 성취한 동시대인의 자부심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으나, 이후 반전된 상황 속에서 작가는 시민이 해방을 쟁취해 낸 약 1년간의 과도기를 문제적인 시기로 주목하고 있다. 『구운몽』 등에서 작가는 혁명의 좌절이 외부적 탄압 뿐 아니라 혁명 세력 내부로부터도 기인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바, 1960년대 초중반 발표된 소설에서 작가는 지속적으로 4·19를 환기하며 왜 한국의 현실에서 그 폭발적인 해방의 기운이 정치적 변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소멸되었는지를 성찰한다. 특히 이 계열 소설들에서는 4·19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반복적인 강박이 주목되는데, 특히 『크리스마스캐럴』 연작에 나타나는 산-죽은자들의 훼손된 신체와 서술자의 변이된 신체는 지배질서의 억압에

맞서는 저항에 육박한다.

이와 같이 볼 때 최인훈에게 있어서 혁명은 우연적으로 촉발되는 불투명한 사건에 가까우며, 이를 일상의 삶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이 가장 협소한 의미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가의 『회색인』을 그러한 정치적 모색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소설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 동료 시민들과 토론하는 역량 등이 시민성의 자질로 부각되고 있으며, 주어진 환경과 교섭하는 시민적 능동성 또한 환기된다. 소설에 개진된 ‘사랑과 시간’의 정치학에서 전자는 자유주의 정치 문화를 안착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경험적 시간을, 후자는 이웃과의 연대를 각각 지시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까지의 작가적 탐구가 총결산된 인물로 『회색인』과 『서유기』의 주인공 독고준을 지목할 수 있다. 작가는 이 소설들을 통해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을 추구하는 것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공동체 안의 개인 윤리로까지 자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두 소설 속 독고준의 선언들은, 곧 중기소설의 자취를 포괄하는 작가 최인훈의 선언에 다름 아니다. 『회색인』에서 ‘다른 무엇과도 연루되지 않은 자기’로 대표되는 독고준의 자아관은 자유주의의 무연고적 자아관과 유사성을 풍부하게 공유하지만, 공동체 내의 다른 개인들과의 연대의 필요성이 자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행위를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이 진정 개인의 윤리에 충실한 자라고 한다면, 최인훈 소설에서 그러한 윤리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인물은 『서유기』의 독고준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발표된 후기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문제의식을 이어가고 있다. 1967년 첫 발표된 『총독의 소리』연작에서 작가는 파시즘 시대를 장식하는 상징적 매체였던 프로파간다 방송을 서사의 형식으로 차용하여 이를 해체한다. 독자가 총독이 우려하는 바와 독려하는 바를 역전해서 읽는 것을 가정할 때, 『총독의 소리』의 형식은 그 자체로 대항담론을 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후기 역작 『태풍』에서 최인훈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주인공 오토메나크

를 식민지인으로 형성케 한 ‘황민화(국민화) 기제’들에 대한 해부로, 가상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역사적 과거에 대한 고찰은 1970년대 국민화에 대한 알레고리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인훈 소설의 인물들의 의식 속에는 남과 북 어느 체제로부터도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추방된 자의 공포가 잠재해 있으며, 후기 소설인 『하늘의 다리』, 『소설가구보씨의 일일』 등에서는 이전 시기까지 파편적인 삽화로 암시되던 ‘난민의식’과 ‘망명의식’이 집중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물들은 피난의 경험을 체제로부터 버림받거나 그것으로부터 내쳐진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작가 최인훈은 그것을 난민의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한국 사회의 저변을 흐르는 사회적 무의식으로 확대시킨다. 그러나 망명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횡단의 경험은 진리의 표상들은 물론이고 그것을 향한 대중의 열광까지도 한 시대를 유리한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각성하게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논의에 의하여, 작가 최인훈이 창작 시기별로 ‘지식인’, ‘시민’, ‘개인’, ‘국민’, ‘난민’ 등을 시선의 주체로 삼아, 식민지시대부터 군사개발독재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시기의 정치적 현실을 해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에 발현된 정치적 무의식은 내적인 자유 추구에서 정치적인 자유 추구로, 또 시민적 자유 추구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가치 추구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전체를 강요하는 지배 권력의 표면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시민성과 개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음을 부조해 준다. 이와 아울러 작가는, 근대화의 파고 아래 국민화가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의 정치적 의미를 탐구하면서 자발적 망명의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탐사가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양자를 아우르며 구현되고 있는바, 정치 감각과 언어 감각 모두에서 당대의 지배담론과 무관한 망명자로 남고자 했던 작가 최인훈의 소설은 망명의 형식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이 체제의 망명자이고자 한 작가 정신과 그 결과물로서의 소설은, 직접적인 현실 참여와는 다른 자리에 있는 것으로서 문학으로의 망명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독자로 하여금 숙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대사적인 의미 이상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

조선후기 서북지역 문인 연구

장 유 승

2010년 2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종묵 선생님

이 논문은 조선후기 서북지역 문인의 존재와 성격을 조명하고, 이들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지역정체성을 고찰함으로써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서북지역 문학의 실상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전기의 徙民政策에 의해 서북지역에 정착한 이주민과 서북지역의 토착세력 가운데 일부는 비교적 수평적이고 유동적인 지역사회의 신분구조에 힘입어 지역사회의 지배계층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중앙진출을 시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兩亂 이후로 조정에서는 서북지역의 민심 수습과 이념 무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서북지역 문인들을 등용하기 시작하였다. 서북지역 문인들은 조정의 정책에 호응하여 지역 위상의 제고와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그 결과 17세기 이후 문인층의 저변은 크게 확대되었다. 아울러 지역문인들의 사승관계에 바탕한 학통이 수립되었으며, 이 학통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졌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체제 혼란과 西勢東漸으로 지역사회가 동요하자 조정에서는 서북지역의 성리학적 이념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으며, 이 시기 서북지역 문인들은 衛正斥邪의 일환으로 강학활동을 전개하였다.

서북지역 문인의 중앙진출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호전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지역사 인식의 오류와 지역문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바탕

한 차별담론은 지역문인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하였다. 차별담론의 형성에는 종족적, 문화적, 신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서북지역 문인에 대한 차별은 본질적으로 지역차별이라기보다 신분차별에 가까웠다.

차별담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북지역 문인들은 독특한 지역정체성을 형성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 문인들의 지역정체성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지역사와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평안도 문인들은 지역문화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차별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중앙과 맞서고자 하는 대결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함경도 지역의 문인들은 왕실발상지라는 지역적 자부심에 바탕하여 체제의 정통성을 확고히 지지하였으며, 중앙의 권위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인다. 서북지역 문인들의 문학작품은 이들의 정체성을 뚜렷이 반영하며, 關北詩選과 西京詩話의 편찬은 지역 정체성의 자각에 바탕하여 지역문학을 정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차별의 원인을 외부로 전가하던 이전의 서북지역 문인들과는 달리, 19세기 서북지역 문인들은 내부로 시선을 돌려 열악한 학문적 위상에서 차별의 원인을 발견하고 실력양성론으로 선회하여 지역사회에서 강학활동을 전개하였다. 강학활동의 목적은 위정척사를 위한 성리학적 이념의 보급과 사회 질서의 수립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강학활동은 지역사회의 교육기회와 그 기반이 대폭 확대하여 근대 서북지역 지식인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문화적 토대를 조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근대 서북지역 지식인들은 개화를 선도하여 당대 지식인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였으며, 이들의 위상은 비약적으로 제고되었다. 근대 서북지역 지식인들은 선구적인 개화에 대한 자부심과 전근대의 차별로 인한 피해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박사학위 논문

전남 곡성지역어와 경남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하 신 영

2010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최명옥 선생님

본고는 전라남도 곡성 지역어와 경상남도 창녕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여 두 지역에 대한 공시 음운론적 대비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음운 목록의 대비, 어간 기저형의 어간말 형태 음소 목록의 대비, 음운 과정의 대비를 통하여 두 지역어가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다.

2장에서는 두 지역어의 음소 목록을 확정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자음소 목록은 ‘ㅂ, ㅃ, ㅍ, ㄷ, ㄸ, ㅌ, ㅅ, ㅆ, ㅈ, ㅊ, ㅋ, ㆁ, ㄴ, ㄷ, ㄹ, ㅎ, ㅎ’의 19개로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이다. 모음소 목록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단모음소(單母音素)는 곡성 지역어에서는 ‘이, 에, 애, 오, 외, 으, 어, 아, 우, 위’의 10개의 단모음소(短母音素)와 ‘이:, 애:, 오:, 외:, 으:, 어:, 아:, 우:, 위’의 10개의 장모음소(長母音素)가 존재한다. 창녕 지역어에서는 모음소 /에/와 /애/의 구분이 없고 /어/와 /으/의 구분이 없으며 /위/, /외/ 단모음소가 존재하지 않아 ‘이, 애(E), 오, 어(ㄷ), 아, 우’의 6개의 단모음소가 존재한다. 이중모음소 목록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곡성 지역어에는 ‘여, 야, 예, 애, 유, 요, 위, 와, 웨, 왜’의 10개 이중모음소가, 창녕 지역어에는 ‘여, 야, 애(yE), 유, 요, 위, 와, 왜(wE), 위(wi)’의 9개의 이중모음소가 있다. 곡성 지역어에는 ‘위(u)’가 단모음소로 존재하고 이중모음소 ‘위(wi)’는 없는데 반해 창녕 지역어에는 이중모음소 ‘위(wi)’가 존재한다. 또한 곡성 지역어에서는 이중모음소 앞 초성에 자음이 위

치할 수 있으나 곡성 지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3장에서는 두 지역어의 곡용과 활용의 형태론에 대해 논하였다. 공시적인 음운 과정은 어간과 어미가 통합될 때 관찰되므로 이 장에서는 음운 과정에 작용하는 어간말 형태음소를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활용과 곡용 어간말 음소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곡성 지역어에서 10가지, 창녕 지역어에서 6가지이다. 즉, 각 지역어에 존재하는 모든 모음소가 어간말 음소로 존재한다. 자음소의 경우에는 두 지역어의 차이가 확인한데, 창녕 지역어의 어간말에 올 수 있는 자음소의 종류가 곡성 지역어에 비해 많다. 곡성 지역어 곡용 어간말에는 ‘ㅂ, ㅁ, ㅅ, ㄴ, ㄱ, ㅇ, ㄹ’가, 창녕 지역어 곡용 어간말에는 ‘ㅂ, ㅍ, ㅁ, ㅅ, ㄴ, ㅈ, ㅊ, ㅋ, ㅇ, ㄹ, ㅁ, ㅂ’가 올 수 있다. 복합기저형의 유형에서는 그 세부 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두 지역어 공통적으로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곡성 지역어는 7가지 유형 모두, 창녕 지역어는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복합 기저형이 있다.

4장에서는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 드러나는 음운과정에서의 두 지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두 지역어에서의 공통적인 음운과정에는 ‘평파열음소화, 비음소화, 원순모음소화, 어미초 /으(어1)/의 완전순행동화, 경음소화, 연구개음소화, 양순음소화, 유음소화’의 교체 현상과 ‘성문음소 탈락, 유음소 탈락, 어간말 /아/나 /어/ 탈락, 어간말 /으(어1)/탈락, 어미초 /으(어1)/ 탈락’의 탈락 현상이 있다. 차이가 나타나는 음운과정은 한 지역어에만 존재하는 경우와 두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나 적용 환경이 다른 경우로 나뉜다. 곡성 지역어에만 존재하는 것에는 ‘전설고모음소화, /y/ 활음소 탈락, /y/ 활음소 삽입, /여/의 /예/화’가 있고 창녕 지역어에만 존재하는 음운 과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어미초 /아/의 완전순행동화, 자음소군단순화, 유기음소화, 축약으로서의 경음소화’는 두 지역어에 모두 존재하는 음운과정이나 그 적용환경이나 제약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박사학위 논문

평북 철산 지역어의 접미파생법 연구

정의항

2010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송철의 선생님

본고는 중국 요녕성 무순시 전진진 지역에 거주하는 평북 철산 지역 출신 화자의 자연발화를 대상으로 하여 철산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접미사에 의한 파생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중부방언을 비롯한 한국어 일반에 걸친 파생법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어느 특정 방언의 파생법을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은 업적은 보기 드물다. 한국어의 전체적인 언어양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각 방언의 언어양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듯이 파생법의 경우에도 그것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각 방언의 파생법을 폭넓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방언마다 파생접사의 목록 및 파생어형성 규칙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서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평북 철산 지역어의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파생법 논의를 위한 기본 전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주로 단어형성 기제로서의 규칙과 유추, 단어형성의 공식성과 통시성 그리고 단어형성의 유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단어형성법 연구의 최종 목적은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화자의 언어능력의 탐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성형태론에서 통사론이나 음운론에 적용된 ‘규칙’의 개념을 단어형성법에도 적용해야 한다. 생산성이 낮은 일부 단어들은 규칙보다는 유추를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지만 항상 유추를 기제로 하여 단어를 형성하지는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단어는 규칙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단어형성이 언어의 다른 현상과 마찬가지로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생성형태론의 어휘론자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적으로는 규칙에 의한 단어형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접미사에 의해 형성되는 파생어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3장, 4장, 5장, 6장에서는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형성을 각각 명사파생, 동사파생, 형용사파생, 부사파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이 지역어에 나타나는 접미사의 형태를 찾아내어 접미사목록을 확인한 다음, 그 접미사들의 형태론적 특징 및 의미기능을 검토하였다. 이 지역어의 명사파생에는 ‘-이’, ‘-음’, ‘-기’, ‘-개’, ‘-쟁이’, ‘-뱅이’, ‘-통이’, ‘-질’, ‘-노리/노릇’, ‘-앙/엉’, ‘-앙이/영이’, ‘-악/억’ 등에 의한 파생이 있고, 동사파생에는 사·파동접미사에 의한 파생, 그리고 ‘-거라’, ‘-대-’, ‘-이-’, ‘-티-’, ‘-하-’ 등에 의한 파생이 있으며, 형용사파생에는 ‘-스럽-’, ‘-롭-’, ‘-답-’, ‘-하-’, ‘-차-’, ‘-앙/엉-’, ‘-압/업-’ 등에 의한 파생이 있으며, 부사파생에는 ‘-이/히’, ‘-시리’, ‘-우/추’ 등에 의한 파생이 있다.

7장은 본고의 결론으로서 논의를 요약하고 본고의 미진한 부분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평북 철산 지역어의 파생법은 물론이러니와 평북방언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파생법 연구도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앞으로 평북방언의 파생법을 규명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한국어의 파생법 연구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역사적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어 학습서의 경어법 연구

- 1880년대~1930년대의 외국인 저술을 중심으로 -

최 은 규

2010년 8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송철의 선생님

본고의 목적은 188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외국인이 집필한 한국어 학습서에서 경어법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으며 경어법이 사용되는 양상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어 경어법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성공적인 의사소통 수행을 위해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핵심적 문법 범주이므로 한국어 학습서에서 주요 학습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경어법 기술은 학습서의 문법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경어법 사용 양상은 학습서의 회화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어 경어법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과 시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관점으로 선별된 언어 자료를 통해 현대전기한 국어 시기의 한국어 경어법 사용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서의 자료적 성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 37종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학습서의 회화문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자료라는 특성상 당시의 구어에 근접한 구어체 문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대화 참여자의 관계가 명료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자료의 제약이 있으므로 그러한 한계 내에서 경어법 사용 양상에 대한 기술을 하게 된다.

3장에서는 연구 자료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경어법과 관련된 개념 및 경어법 하위 범주의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어법의 범주는 문법적 경어법(주체경어법, 청자경어법)과 어휘적 경어법으로 구분하

였다. 주체경어법은 화자가 문장에서 주체의 역할을 하는 인물에 대한 존재의향을 ‘-사-’로써 나타내는 문법적 방법으로 규정하였다. 현대전기한국어 시기의 청자경어법은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와 함께 두루높임(높임), 두루낮춤(안높임)의 해요체, 해체로 구성되는 이원 체계로 보았다. 어휘적 경어법에서는 이분 체계 또는 삼분 체계로 존재와 비존재의 대립을 보이는 어휘를 어휘적 경어로 보았다. 또한 경어법 내용 기술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서의 경어법 내용 기술을 분석하고 기술상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양인 저자의 학습서는 초기에는 경어법 체계, 청자경어법 등급의 위계, 형태소 인식 등이 부정확하지만 후대로 가면서 이전의 체계를 보완하고 경어법에 대한 기술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서양인에 의한 경어법 기술은 Ridet(1881)이 바탕이 되어 Underwood(1890)에서 체계화를 이루고 Eckardt(1923)에 이르러 완성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서양인 저자의 학습서가 종적 계보를 형성하며 경어법에 대한 기술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 비해 일본인 저자의 학습서는 상호 영향 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경어법 기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경어법 기술상의 특징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경어법 기술의 유무, 경어법 기술의 위치와 범주, 경어법 범주의 구분과 배열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폈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경어법 체계에 대한 인식, 경어법 결정 요인, 형태소 인식과 주체경어법, 청자경어법 등급 체계와 등급 명칭, 어휘적 경어법과 기술 유형, 언어 교육적 접근법으로 나누어 특징을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서의 회화문에 나타난 문법적 경어법을 주체경어법과 청자경어법으로 나누어 사용 양상을 기술하였다. 주체경어법은 통사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단문과 복문, 보조용언 구문, 주격중출문에서의 ‘-사-’의 사용은 현대후기한국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주체와 청자가 일치하는 경우 ‘-사-’는 문장종결형과 결합하여 청자경어법에 관여하는데 이는 한국어 학습서의 주체경어법 사용에서 중심적인 특징이다. 청자경어법은 형태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등급별로 사용된 문장종결형을 문장 종결법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등급별 형태 목록을 작성하였다. 또한 청자경어법 등급별 사용 분포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변천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대전기한국어 시기에 하계체가 하오체와 함께 활발하게 사용되었다는 종래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하오체의 사용 빈도는 아주 높으나 하계체의 사용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하계체의 사용자 제약과 관련된 등급 특성 및 한국어 학습서의 교육 자료적 특성과 관계가 있다. 당시 하오체는 중심적인 청자경어법 등급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1930년대 이후 유사한 높임 등급이었던 해요체 사용이 증가하면서 쇠퇴하게 되었다. 해요체와 해체의 사용 빈도는 아주 낮다. 해요체와 해체의 형성이 오래 되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청자경어법 체계에서 확연하게 자리 잡은 등급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합쇼체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용 빈도가 증가하여 아주 높임 등급으로 확고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6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서의 어휘적 경어법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존칭어, 평칭어, 비칭어(겸칭어)의 삼분 체계에 따라 체언, 용언, 조사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어휘적 경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체언은 명사와 대명사로 나누고 명사는 다시 인물을 지칭하는 어휘와 사물을 지칭하는 어휘로 나누었다. 이때 전자는 화자 관련 인물에 대해서는 상위자에게만 존칭어를 쓰고, 타인 관련 인물에 대해서는 상하 관계를 막론하고 존칭어를 쓰며 비칭어는 화자 관련 인물에만 사용하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후자는 이와 같은 제약 없이 화자의 존대 의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대명사의 경우, 1인칭 대명사는 화자 관련 어휘이므로 존칭어가 없이 평칭어와 겸칭어만 쓰인다. 2인칭 대명사는 존대의 대상을 대명사로 지칭하는 것을 꺼리는 한국어의 어법 때문에 대용명사가 발달되어 나타난다. 3인칭 대명사는 관형사와 의존명사가 결합된 합성어가 3등분 체계로 나타나고 재귀대명사, 부정대명사는 존대와 비존대의 이분 대립만을 보인다. 용언은 주어로 나타나는 인물을 높이는 주격 대상 존칭 용언, 여격으로 나타나는 인물을 높이는 여격 대상 존칭 용언, 목적어로 나타나는 인물을 높이는 대격 대상 존칭 용언이 사용된다. 조사는 주격 존칭 조사 ‘께서(시니서, 게서, 시키서)’와 여격 존칭 조사 ‘시니, 시키’가 사용되었다.

7장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았다.

박사학위 논문

일재 조중환의 변안소설 연구: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최 태 원

2010년 8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권영민 선생님

이 논문은 1910년대 「매일신보」에 연재된 일재 조중환의 변안소설에 관한 연구이다. 그의 연재 소설 중 그동안 변안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작품들의 일본어 원작을 밝히고, 변안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신파극, 서양소설, 일본소설) 속에서 변안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했다.

조중환은 변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의 '변안 행위'는 자국화 번역과 각색이라는 점에서 번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조중환이 극단 문수성 시절 각색한 변안극 「불여귀」는 「쌍옥루」, 「장한몽」을 변안하는 기본 원리가 됐다. 조중환은 신파극을 매개로 메이지 30년대 일본의 가정소설을 번역하거나 변안했지만, 그 뒤에는 구로이와 루이코의 변안소설을 선택했다. 이 사실은 조중환이 일본을 경유한 서양 소설 수용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조중환과 1910년대 후반의 변안소설사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가 된다. 20세기 초반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번역·변안의 연쇄의 사례로서, 「비봉담」의 중역 변안 과정과 함께 그 외의 중국어, 한국어 번역본들을 살펴봤다.

한편, 「단장록」과 「속편 장한몽」은 일본에서 1910년대 초반에 유행한 신파극의 원작 가정소설을 변안한 것으로, 이상협이 변안소설 「눈물」이 신파극으로 크게 성공한 데 자극을 받은 결과였다. 「눈물」과 「속편 장한몽」은 또한 와타나베 가테이의 연재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변안한 것이었다. 서양

소설의 영향 아래 있었던 작품들이 여학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연애의 파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것과 달리, 「눈물」, 「단장록」, 「속편 장한몽」에서는 서사의 중심이 결혼 이후의 가정으로 이동한다. 처첩갈등과 모자이합이라는 전근대적 서사 모티프 역시 일본어 원작에서 온 것이었다. 와타나베의 가정소설은 상속과 이예를 서사의 중심 문제로 다루지만, 이는 조선의 관습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관습이기 때문에 번안자를 곤경에 빠뜨렸다.

일본어 원작이 서양 소설과 친화적일 때는 자국화 번역으로서의 번안이 비교적 수월했다. 조중환의 번안은 서구의 근대성을 서사적으로 선취(이식)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서양적인 것’을 배제하고 ‘일본적인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와타나베의 번안소설은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와 관습의 차이를 노출했고, 그 결과 번안자들은 원작의 많은 부분을 생략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다. 이상협은 「눈물」을 번안하면서 원작에 서양적인 요소들을 뒤섞는 방식의 절충을 선택했고, 조중환은 「장한몽」의 「속편」이라는 장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속편 장한몽」은 결국 원작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미완에 그치고 말았다.

박사학위 논문

염상섭 소설의 서사 시학과 현실 인식의 관련 양상 연구

장 두 영

2010년 8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권영민 선생님

본고는 식민지시기에 발표된 염상섭의 소설을 대상으로 서사 시학과 현실 인식의 관련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소설의 미적 구조와 내용 사이의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하고, 개별 작품에 대한 형식적 분석을 통해 서사적 장치와 서술 방법을 추출한 다음 상동성을 지니는 작품을 묶어 계열화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파악된 계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사 기법상의 효과를 개별 작품의 내용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주제를 파악하였다. 나아가 작품 계열 간의 편차를 비교·대조함으로써 식민지시기 염상섭 소설의 변이 과정을 살펴보았다.

염상섭의 소설은 ‘보여주기’에 충실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서사물은 언어를 통한 의미화 작용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보여주기’란 생생한 서술을 통해 모방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말하기’의 한 방식에 속한다. 곧 염상섭 소설이 어떻게 식민지 현실을 재현하는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모방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가라는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때 환상을 부여하는 주체이자 소설 속 허구적 세계의 인식론적 관점을 매개하는 주체로서 서술자의 존재 방식에 대한 점검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2장에서는 일인칭 서술 상황이 우세한 작품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일인칭 서술 상황을 활용한 작품은 서술자와 경험자의 분리에 기반을 둔 존재론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1920년대 초반 염상섭의 작품에서는 자기학

대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자아각성을 거쳐 자기해방의 상태로 비약하는 과정을 서사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개 자아각성의 순간은 서술자의 중개성이 사라지고 내적 독백이 전면화 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때 서술자와 경험자아의 존재론적 거리가 상실되어 두 자아는 하나로 합치된다. 즉 서술 상황의 역동화를 통해 일체의 외적 해방의 전제로서 자아의 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소위 초기 삼부작을 관통하는 서사적 기본 원리이며 또한 『만세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인칭 서술자인 이인화는 여행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관찰하고 ‘무덤’이라 판정 내리고 있는데 그가 관찰한 현실은 『조아의 제공에게 호소함』에서 비판하고 있는 식민지 조선의 모순과 일치한다. 나아가 『만세전』은 편지를 활용한 내적 독백을 통해 자아각성에 도달한 이인화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현실 극복 방법으로서의 자아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E선생』과 『해바라기』는 자아가 지닌 신념과 이상이 생활 세계와 충돌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너희들은 무엇을 어땠느냐』와 『진주는 주었스나』는 서로 상반된 초점화의 실험을 통해 식민지 사회의 세태 해부와 사회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3장에서는 인물적 서술 상황의 효과를 활용한 작품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남충서』와 『숙박기』를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인물의 생각과 느낌 주기에 주력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1920년대 초반 자아각성의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일인칭 인물의 심리 상태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던 기법이 삼인칭 서술 기법으로 변형된 것이며, 개인적 차원의 자아각성은 외연을 넓혀 민족적 차원의 자아각성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출발』 같은 작품에서는 신간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혁신청년단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사랑과 죄』에서는 신간회의 민족협동전선이 김호연의 사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반성자-인물 리해춘은 심적 방황 상태를 극복하고 김호연의 사상에 감화된다. 『사랑과 죄』에서는 반성자-인물의 시선으로 식민지 사회를 관찰하게 하고, 그 인물의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룸으로써 지향해야 할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십』과 『광분』에서는 부정적인 반성자-인물을 제시함으로써 피지배민족의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4장에서는 작가적 서술 상황의 강화를 활용한 작품을 살펴보았다. 『삼대』에서는 초점화의 분산을 통해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 인물의 존재 방식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조·부·손 삼대의 충돌을 통해 식민지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 반성적인 시선에서 성찰하고 조덕기와 김병화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념적 공감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이러한 탐색의 노력은 1930년대 초반 신간회의 전망이 약화된 상황과 일정한 관련이 있으며, 여러 인물을 배치하고 통제하는 주체로서의 작가적 서술자의 역할 강화로 이어진 것이다. 『삼대』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방향성은 작품 후반부의 반식민운동의 잠재력에 관한 서술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1931년 신간회의 해체와 만주사변의 발발로 인한 정세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 발표한 『무화과』에서는 이원영의 몰락을 형상화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작가의 시대적 중압감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원영을 대체하는 여러 인물을 배치하여 작가의 가치 지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완식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중압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객관적인 외부 상황 변화에 대한 불가피한 승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 의지의 표명은 통속소설의 도식적 구성을 전유하여 반성적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일련의 작품에서도 이어진다. 『모란꽃 필 때』는 명확한 이분법적인 도덕적 단순성을 특징으로 하는 통속소설의 세계관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여 식민지배의 동화논리와 민족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불연속선』에서는 도식적 서사 구성을 역전시켜 외부 상황의 중압 속에서 꿈과 이상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여행을 시작하는 주인공이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만주로 떠나는 작가 자신의 형상이 투영되어 있다.

박사학위 논문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본 한국어 연어 연구

범 기 혜

2010년 8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선생님

본 연구는 대조언어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해서 연어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객관적으로 하위분류한 다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용 연어’ (‘학습용 연어’로 줄임)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해서 연어 대조의 결과물을 한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와의 연계성을 살피고, 논문의 연구범위와 방법 그리고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광의의 연어의 개념, 특성, 구조,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연어를 넓은 의미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어휘성, 이항성, 인접성, 유의성, 투명성 등 다섯 가지 특성을 지닌 어휘 결합을 광의의 연어라고 보았다. 그리고, 구성요소의 품사에 따라 연어의 구조를 세분하고 구성요소의 의미적 또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연어의 관계를 세분하였다. 또 두 구성요소가 선택과 피선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선택하는 관계라는 것을 밝히고 언어핵과 언어변을 구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협의의 연어를 판별하는 기준을 재검토하면서 협의의 연어의 개념,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어의 두 구성요소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인식되는 특성을 연어성이라고 보고 광의의 연어 중 연어성이 뚜렷한 연어를 협의의 연어로 규정하였다. 협의의 연어는 다시 인식 과정에 따라 인지적 연어와 대조적 연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인지적 연

어는 한국어의 범위 안에서 어휘의 인지 거리로 인해 특별해 보이는 언어이고, 대조적 언어는 두 언어(일반적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범위 안에서 어휘의 결합 영역의 차이로 인해 특별해 보이는 언어라는 것을 밝혔다. 본문에서는 협의의 언어 이외의 언어는 일반 언어라고 칭하였고, 언어성과 관용성은 각각 언어와 관용어의 특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언어성과 관용성의 판단 방법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일반 언어, 협의의 언어와 관용어의 생성 및 상호 전환 과정도 밝혔다.

4장에서는 학습용 언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 한국어 언어에 해당되는 중국어 대응 표현의 성격에 따라 크게 대응형과 비대응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또 중국어의 언어 개념과 대조하면서 한국어 언어가 중국어의 언어, 자유구성, 어휘 각각에 해당되는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요약하고 본고의 한계점을 밝혔다.

본고에서는 언어의 언어 간 대조가 한국어 교육의 실용적인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 언어의 이론적 연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방법론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국어학 연구에 있어서 언어는 일반적인 존재에 불과하지만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기존의 주요 학습대상으로 여겨져 온 어휘와 문법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응용언어학적인 범주로는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고는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언어를 다시 고찰함으로써 언어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하였다.

박사학위 논문

〈수호전〉과 〈임궽정〉 비교연구

허 이 령

2010년 8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희병 선생님

본고는 한국 역사소설(歷史小說) 『임궽정』(林巨正)과 중국 백화장회소설(白話章回小說) 『수호전』(水滸傳)의 비교문학적 연구를 목표로 한다.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임궽정』이 지니고 있는 ‘동아시아 서사물’로서의 보편성과 독자성을 살피고 아울러 작품이 지닌 문학적 위상과 의의를 밝혔다.

『수호전』과 『임궽정』을 비교의 대상으로 다룬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일방적인 영향수수관계에 치중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비교문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두 작품을 비교문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를 위한 공통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두 작품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공통기반을 갖고 있다. ① 형성과정의 측면에서 구연(口演)을 문자화한 전대자료를 흡수했다는 점, ② 작품 내용의 측면에서 반체제적 군도(群盜)이야기라는 점, ③작가의식의 측면에서 반항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상의 공통기반을 근거로 두 작품의 같고 다름을 살피는 비교문학적 연구는, 개별 작품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된다.

『수호전』은 중국의 화본(話本)을 전대자료로 수용했고, 『임궽정』은 한국의 야담(野談)을 전대자료로 수용하였다. 이는 주목을 요하는 부분인데, 화본과 야담이 구연(口演)의 문자화 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한편 두 작품은 전대자료의 수용태도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한다. 『수호전』

의 경우 정사(正史)에 구애받지 않고 재미위주로 쓰여진 서사물이라면, 『임꺽정』의 경우 정사의 사실(史實)에 근거하되 야사(野史)와 야담(野談) 등과 같은 민간의 기록을 대량 흡수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두 작품은 서사기법에 있어서 유사성이 보이지만, 그 차이점 또한 뚜렷하다. 『수호전』과 『임꺽정』은 둘 다 하층민중의 생생한 언어를 통해 인물을 보다 생생하게 형상화하는 구연체를 구사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두 작품 모두 서술자가 서사진행에 출연하는 화본소설(話本小說)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서사단위의 사용에 있어서 『임꺽정』과 『수호전』은 다른 면모를 보인다.

『수호전』과 『임꺽정』은 군도(群盜)를 다룬 작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어떠한 집단이든지 지도자에 의해 그 성격과 운명이 결정된다고 본다면, 두 작품의 주인공 역시 집단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속한 집단의 성격과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이 점에 유의하여 본고에서는 두 작품의 주인공의 성격과 면모를 비교 검토하였다. 한편 남녀의 혼인관계가 두 작품에 각각 어떻게 그려져 있고, 두 작품의 서사에 어떤 차이를 낳고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였다.

체제로부터 이탈하여 반사회적 도적생활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양산박패와 청석골패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양산박패가 체제로부터 일시적으로 이탈한 이후 다시 체제로의 편입을 도모한다면, 청석골패는 부당한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는다. 이는 작가의 사회비판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수호전』과 『임꺽정』이 군도집단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군도집단의 형상화에 있어서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수호전』에서 양산박패는 ‘의기’를 추켜세우며 여러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집단으로 미화되어 형상화된다. 반면 『임꺽정』에서 청석골패는 양산박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적집단을 보다 리얼하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임꺽정』이 동아시아 서사의 전통을 계승하되, 한국 근대소설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을 확인하였다. 먼저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임꺽정』은 동아시아 서사의 ‘승선계후’(承先繼後)적 면모를

보이는 소설로서 동아시아 문학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또한 한국 국내적 차원에서, 『임꺽정』은 1930·40년대의 한국 사회가 직면했던 일본제국주의와 좌·우분열이라는 복잡다단한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세계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 독자성이 분명해진다.

박사학위 논문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교육장과 계몽의 논리

조 윤 정

2010년 8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남현 선생님

본 연구는 신교육제도의 수용과 정착 과정이 식민지 조선의 문화에 미친 영향력을 고찰하고, 소설에 나타난 교육장(場)과 계몽의 논리가 가진 의미를 구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근대 교육제도의 유입과 변천에 따른 조선의 정치문화·사회적 변화가 식민지 작가들에게 있어서 소설 창작의 문제의식으로 기능했음을 진제했다. 또한, 학교가 작품의 중요 모티프로 기능하는 소설을 중심 대상으로 삼아, 작품을 교육령의 변화에 근거하여 통시적으로 고찰했다.

본 연구는 학교의 규율권력화 과정, 즉 성립·심화·성숙·변질의 과정을 감안하여 각 장을 구성하고, 학교문화의 변화에 대한 작가들의 대응 양상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담론의 형성, 작가의 소설 창작이 갖는 유기적 관계성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일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부터 제4차 조선교육령까지 조선에서 크게 네 차례에 걸쳐 정책의 변화를 꾀했다. 학교의 변화에 따라 신문명, 학교설립, 입학단, 고학생, 야학, 동맹휴학, 내선공학, 문화사업과 같은 단어들이 각 시대의 핵심어로 등장했다. 작가들은 학교를 둘러싼 문화적 열기의 중심에 존재했으며, 시대적 상황은 작가에 의해 변용과 굴절을 겪고 문학작품에 반영되었다.

제Ⅱ장에서는 근대 교육제도가 유입되던 과도기의 양상에 집중하여 서당으로부터 학교로 교육공간이 이동하는 장면을 담은 소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안창호와 이승훈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사학설립을 환기하는 소설, 조선의 교육적 상황을 비판하는 소설들을 중심 작품으로 삼았다. 김교제, 이 해조, 김일엽의 작품을 통해 근대 초기 ‘(여성)교육의 비판 논리’를 살펴보고, 장응진과 이광수의 소설을 통해 ‘사실소설’에 담긴 ‘학교 설립=국가 독립의 사명’의 논리가 인물의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고찰했다. 또한, 이상춘, 현상윤, 이광수의 단편소설을 통해 학생문화를 구성하는 ‘자유’, ‘입신출세’, ‘연애’와 같은 개인성의 언어들이 ‘고학’, ‘민족애’와 같은 당위성과 충돌하거나 포섭되어 버리는 양상을 고찰했다.

또한, 이 장에서는 근대 교육제도 유입과 관련하여, 근대 초기의 현재적 시점은 아니지만 초창기 교육제도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된 김남천, 이기영, 이태준, 한설야의 자전적 장편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소설들은 근대 초기 교육적 상황에 대한 조선인들의 대응논리, 30여년이란 시간적 거리감을 통해 획득한 교육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단발’이라는 사건성이 구세대 윤리에 대한 저항의 속성을 갖는 이유, 작품의 결말에 보이는 ‘복수의 계몽’이 가진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신교육 제도가 유입되는 상황을 그린 작가의 의도를 살피고, 당대 지식인들이 가진 계몽의 논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제Ⅲ장에서는 학교문화가 정착하고 조선인의 교육열이 심화된 시기에 창작된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장에서는 입학난과 고학, 동맹휴학 등 학교를 둘러싼 학생과 교사의 모순과 갈등을 담은 소설이 중심작품으로 거론되었다. 신필희, 이태준, 채만식, 한설야, 김남천 등의 단편소설은 향학열과 학력주의의 형성 과정 속에서 조선인이 겪었던 입학난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보여주었다. 또한, 박화성, 강경애의 단편과 채만식의 연작소설은 ‘고학’하는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학부모를 통해 사회적 지위와 문화자본이 출신 계급에 따라 결정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교육제도를 몸소 체험한 작가들은 학교의 입시문화와 고학생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학생의 증가=문명화’라는 도식에 문제제기하고 ‘학교 무용론’으로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소설적 특성은 당대 교육정책이나 사회문화적 담론과의 간극을 형성했다. 또한, 이 시기 소설에서는 교사가 소설의 주요인물로 등장할 때, 그 인물은

시대적 사명감과 자기 변민 속에서 갈등하는 태도를 취한다. 염상섭, 나도향, 이익상, 이태준, 유진오, 장혁주의 단편소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작가들은 교사인물들 통해 ‘권력·지식의 주체’이자 ‘권력·지식의 대상’인 지식인의 정치·종교적 압박과 서열화에 대한 회의를 그려냈다. 그리고 학교를 이탈한 교사가 새로운 교육장을 설립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새롭게 구축되는 교육장(場)의 모습을 제시한다.

학교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지적권력을 알려주며 그것은 우등 혹은 입신의 형태로 나타난다. 김명순과 박화성을 대상화한 소설이나 이태준의 장편소설은 신지식에 대한 학생의 ‘지식욕’을 제시하는 동시에 학교교육을 둘러싼 ‘젠더규범의 자기화 과정’을 드러낸다. 염상섭, 이광수, 박영희, 유진오의 소설들은 학생이 종교적 권위, 월사금, 취업과 관련하여 규율권력의 원칙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도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을 환기한다. 작가들은 이러한 소설적 경향을 통해 학생들의 배울 권리가 ‘수치’의 경험으로 전락하는 데에 문제제기했다. 또한, 작가들은 학교가 가진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데, 동맹휴학 체험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가 이를 방증한다. 작가들은 교육장 내부에 형성된 ‘우정관계’를 통해 학생이 학교가 가진 규율권력을 전복하는 사건을 그려냈다. 이때, 학교에서 배운 말하기와 쓰기의 방법은 전유의 과정을 거쳐 학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된다. 본고는 이처럼 규율과 원칙이 표상하는 합리성과 정당성이 작가에 의해 훼손되는 방식과 이에 수반되는 작가의 의도가 어떤 의미를 획득하는지 구명했다.

제IV장에서는 1930년대 초에 급증한 야학과 관련한 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야학은 저널리즘과 조선총독부의 농촌개발운동과 관련을 맺고 시작되었으며, 정식 교육제도의 외부에 창출된 공간이다. 그러므로 야학은 I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규율에 의해 학교로부터 축출되거나 학교 내부에 들어설 수 없었던 민중들을 수용하는 기능을 했다. 이와 관련된 작품으로는 최서해, 이광수, 이기영, 심훈, 이효석, 송영, 강경애의 소설을 들 수 있다. 본고는 이들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야학이 조선인에게 향학열을 심어주고, 농민과 노동자로서 ‘자기에 대한 각성’에 이르게 한 공간임을 언급했다. 또한, 야학에서의 독본 읽기가 문해력의 획득과 지식의 평등성 추구에 기여했

음을 밝히고, 수업 중에 ‘자유’, ‘평등’, ‘사회’, ‘민족’과 같은 단어들의 학습을 통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작가들은 소설을 통해 매체에 광고되는 브나로드 운동의 성과 이면에 은폐된 ‘야학 교사의 감옥행’이나 ‘야학 폐쇄’와 같은 정치적 개입을 폭로했다. 지주와 공장주의 방해나 관청의 감시와 같은 대타항의 출현은 농민과 노동자의 집단적 결속력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야학의 학생들은 자신이 처한 계급적 억압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 있었다. 작가들은 이러한 집단적 결속이 노동자와 농민 뿐 아니라, 지식인에게도 각성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설정을 보여줌으로써 야학이라는 교육장이 가진 교육적 실천성을 극대화했다. 본 연구는 야학의 집단성이 정식 교육제도를 전유하는 장면들을 고찰했고, 이를 통해 조선의 교육적 실천성이 갖는 의의를 언급했다. 또한, 브나로드 운동에 그치지 않고, 관제야학 시기에도 꾸준히 명맥을 이어간 야학을 모티프로 차용하여 소설을 창작한 이무영과 엄홍섭의 작품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브나로드 유행의 열기를 넘어 조선인의 학문적 신념을 서사화하는 작가의 의식에 의미 부여했다.

제V장에서는 일제말기 내선일체의 교육장과 관련한 소설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조선어 교육이 금지되고, 군인, 총후부인이 되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환기하는 소설을 통해 이 시기 이념적 단일성이 소설과 갖는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유진오, 최명익, 김사량, 한설야, 이태준, 정인택, 이광수, 이석훈의 소설을 통해 일제말기 교육적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장을 상실한 조선어 급 한문 교사의 상실감이 ‘비애’와 ‘허무’의 정조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했다. 그리고 신체제의 명량성과 달리 슬픔의 정조가 두드러지는 작품이 교육령의 이상성을 전복시키는 장면에 주목했다. 박태원, 최명익, 이광수, 정인택, 장혁주, 안도 마스오, 김사영의 소설은 군인되기의 이념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신체적 결합이나 언어적 결합을 가진 학생을 초점화했다. 작가들은 지원병되기의 사상에 적응해가는 학생을 그렸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규율권력의 표준이나 모범에 도달할 수 없는 조선인, 학교 건축에 대한 반대 세력과의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일본인을 중심에 둠으로써 지배 이념을 균열했다.

일제 말기 전시체제 하에서 청년이 총동원의 중심에 있었다면, 조선의 여성들은 총후부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내선공학이 하나의 정책으로 공포되었다면, ‘군국의 어머니’ 만들기는 사회문화적 담론 내의 모순과 충돌 속에서 구성되고 만들어졌다. 과거 가족중심의 현모양처 교육을 받았던 조선여성들이 일제 말기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호명되는 과정은 그 내부에 교육적 배제,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가치관 갈등의 문제, 문화사업의 주체되기 문제를 품고 있다. 이태준과 최정희, 정인택, 변동림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은 그 갈등 속에서 총후부인론을 조선적으로 전유하여 문화사업의 중심에 선다. 그러나 대부분 담론의 당위성을 획득하기 위해 설득의 언어를 남발하거나, 아들과 남편의 원조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이루는 양상을 보였다. 중요한 것은 작품 속에서 군국의 어머니로 호명되는 여성들이 과거 학습했던 현모양처론을 갖고 총후부인의 ‘포즈’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기모순 속에서 조선인들은 다시금 모성에 회귀하여 완전한 일본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제국의 ‘정치적 환상’을 굴절시켰다.

박사학위 논문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탈식민주의적 계보학 연구 : 일제말기 만주 관련 시를 중심으로

조 은 주

2010년 8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신범순 선생님

이 논문은 일제말기 만주 관련 시를 디아스포라 정체성(diaspora identity)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이다. 1920년대 고대사의 공간, 독립운동과 아나키즘의 근거지, 가난한 농민의 이주지 등으로 인식되었던 만주는 1930년대 들어서면 다양한 이미지를 거느리는 중층적 공간으로 표상되기 시작했다. 비극적 유랑의 공간, 생존을 위한 투쟁의 공간, 풍요를 보장받는 경쟁의 공간, 동아신질서가 구현되는 평화적 공간 등, 전혀 다른 상반된 이미지가 발견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 만주의 심상지리에 당대 저널리즘을 통해 생산되었던 만주 유토피아니즘과 1932년 건설된 만주국의 ‘민족협화(民族協和)’와 ‘왕도주의(王道主義)’의 이데올로기가 추가됨으로써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적 담론과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디아스포라로서의 재만 조선인의 위치였다.

디아스포라는 젠더, 인종, 계급, 종교, 언어, 세대 등의 복합적 기준들 틈에서 이주국과 모국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들은 만주에 정착하려고 노력하지만 공간적 경계를 넘나들며 스스로를 모국과 연결시키려는 이중적 태도를 표출한다. 특히 ‘민족협화’는 ‘내선일체’와 충돌하며 조선인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과적으로 ‘조선’이라는 민족에 대해 사유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은 조선에서는 일본인이었지

만 만주에서는 다시 조선인이 되어야 했다. 본고는 바로 이 특수한 조선인의 위치가 경계인으로서의 비판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제말기 만주 관련 시에서 정체성이 탐색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이러한 배경 아래 이해될 필요가 있었다. 디아스포라 정체성은 만주에서 이주자로서의 조선인의 욕망과 더불어, 민족 혹은 모국과의 연계의식 등을 해명하는데 적합한 방법론인 것이다.

II장에서는 만주 관련 문학에서 디아스포라가 갖는 비판적 위치성을 확인했다. 만주국의 공식이념인 왕도주의와 민족협화는 동양의 전통적 윤리를 내세우며 공존공생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했으나 실상 제국주의적 체제를 위해 가공된 허구의 담론이었다. 디아스포라가 지닌 모국을 향한 연계 의식은 만주국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과 지배 원리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었다. 디아스포라 작가들은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해석하는 동시에 그 통제의 기호에 반하는 대안적 기호를 만들어냈다. 예컨대 명량한 신화를 창출하며 개척과 정착을 강조하던 만주국 이데올로기와는 달리 퇴폐주의적 애수를 담고 향수의식을 표출하고 있거나, 폭력적 문명에 대한 환멸감, 고도의식 등을 환기시키는 작품들이 II장의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III장에서는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혼합적 측면을 변방지대에서 이루어진 타자성(otherness) 체험을 통해 분석했다. 타자성 체험은 제국의 중심으로부터 타자화 된 주체로 하여금 스스로를 ‘추방자’ 혹은 ‘망명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우와, 이질적 공간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텍스트에 끌어들이는 경우로 대별된다. 여기서 만주는 여성, 마이너리티, 다른 민족 등과 같은 대상을 만나고 이러한 만남이 의식적으로 변용되어 주체의 정체성 탐색에 연결되는, 포스트 콜로니얼의 공간으로 기능했다. 특히 만주 관련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팔려온 여성’ 모티프는 주변부의 소외된 계층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민족의 메타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민족과 소수자(minority)가 중첩되어 있는 특별한 은유였다. 이들을 향한 연대의식은 보편적 인류애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제3세계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처지에 놓인 주체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통해 국민국가의 총체화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만주에서 다양한 층위의 타자 체험을 거치면서 ‘민족’ 역시 일종의 타자로 재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민족중심적인 정체성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타자적 차원으로 인식함으로써 형성되는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임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탈식민주의 이론이 해체하는 민족적 주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의 디아스포라 이론이 지닌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IV장에서는 디아스포라의 모국 지향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살펴보았다. 민족을 재발견함으로써 스스로를 공동체적 주체로 재정립한 디아스포라는 모국과 연결된 집단적 기억을 회상했다. 문화적 정체성은 집단적 기억과 공통적 문화와 가치 등인 문화적 기억을 통해 탐색된다. 이러한 탐색은 개인이 아닌 집단적·공동체적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민족의 전통과 역사 등 문화적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기억의 ‘회상’은 지배적 역사주의에 반하는 계보학적 작업의 일환이었다. 디아스포라는 문화적 정체성의 탐색을 통해 수동적으로 규정된 정체성과 가치 체계를 전복시키며 적극적인 집단의 위치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탈영토적인 호모-노마드적 주체, 진실한 정신으로서 역사를 새롭게 구축하는 ‘슬픔’의 주체가 정립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만주 관련 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정체성은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는 디아스포라적 주체가 지닌 비판적 위치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정체성 탐색의 요소로 추출된 ‘유랑’, ‘슬픔’ 등은 역사 비판적 요소로 기능하며 탈식민주의적 계보학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탐색은 폐쇄적 민족주의를 넘어 보편적 인류애를 지향하고 있으며 근대적 정체성 개념에 내재된 폭력적 동일화의 원리와 달랐다. 이러한 시각 아래 일제말기 시인들의 만주 관련 작품을 검토하는 작업은, ‘협력·저항’이라는 기왕의 이분법을 넘어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준거에 포섭되지 못했던 탈식민주의적 상상력과 시적 은유를 구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사학위 논문

함북 부령지역어의 통시음운론

오 선 화

2010년 8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정승철 선생님

이 논문은 中國 吉林省 延邊朝鮮族自治州 龍井市에 거주하고 있는 咸北 富寧地域語 화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부령지역어의 음운변화를 기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어 또는 다른 방언과의 비교를 통한 비교방법이나 현대 부령지역어에 나타나는 교체 현상을 통하여 이전 시기의 형태를 재구하는 내적 재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부령 지역은 역사적으로는 육진 지역에 속하는 곳이다. 그러나 부령지역어는 접촉방언의 성격을 띠며 육진방언보다는 동북방언의 음운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은 통시적 관점에서 부령지역어를 자음의 변화와 모음의 변화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모음의 변화와 관련하여 모음체계의 변화, 상향이중모음의 변화, 원순모음화, 모음조화, 움라우트 등을 살펴보았다. 모음체계의 변화에서는 이 지역어의 모음체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음의 변화를 다루었다. 이를 위해서는 單모음, 이중모음에 대한 재구가 선행되었다. 그리고 상향이중모음의 변화에서는 j계와 w계로 나누어 이중모음이 단모음화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원순모음화에서는 순자음과 원순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를 관찰하고 원순모음에 의한 대립쌍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 음운변화에 의한 동북, 육진 방언의 영향관계를 보여주었다. 한편 모음조화에서는 형태소 경계에서 잔영으로 남아있는 모음조화를 바탕으로 선행시기 모음조화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어떤 음운변화에 의해 모음조화가 파괴되었는

가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움라우트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로 나누어 형태소 내부에서는 개재자음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형태소 경계에서는 개재자음의 제약이 엄격히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자음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중자음, 구개음화, 비음 탈락, ‘ㄴ’ 첨가, 어간말 자음의 변화, 특수 교체 어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어중자음에서는 중세 문헌어의 ‘*b*’, ‘*Δ*’, ‘*o*[*u*]’과 이 지역어의 자음 ‘*β*’, ‘*ʰ*’, ‘*ɣ*’의 대응 예들을 통해 유성마찰음의 존재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개음화에서는 ‘*ɕ*’ 구개음화, ‘*ɲ*’ 구개음화 ‘*ɕ*’ 구개음화로 나누어 그 실현양상을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ʃ*, *ʃʰ*, *ʃʰ*’의 음가와 전설모음화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었다. 아울러 이 음운변화에 의한 동북, 육진 방언의 영향관계를 보여주었다. 비음 탈락에서는 어두와 어중에서의 ‘*ɲ*’ 탈락, 어중과 어말에서의 ‘*o*’[*ɰ*] 탈락에 대해 기술하였다. ‘*ɲ*’ 첨가에서는 파생어나, 복합어, 구 구성에서 보이는 공식적 ‘*ɲ*’ 첨가와 ‘어근+어근’의 구성에서 보이는 통시적 ‘*ɲ*’ 첨가를 기술하였다. 한편 어간말 자음의 변화에서는 단자음말음 어간과 자음군말음 어간으로 나누어 어간말 단자음과 어간말 자음군의 재구조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특수 교체 어간에서는 체언 어간의 특수한 교체를 서술하고 이들이 모음과 자음과의 결합에서 단일화를 지향하였음을 밝혔다.

4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논의를 요약하고 이 논문의 미진한 부분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동북, 육진방언권 사이의 영향관계를 잘 보여주고 동북방언의 구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함북 방언의 음운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석사학위 논문

〈삼국유사〉 설화의 초월적 조력자 연구

전 주 경

2010년 8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현설 선생님

본고는 『삼국유사』 소재 설화에 나타난 초월적 조력자 인물형의 형상화 방식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초월적 조력자의 종교적 배경에만 집중한 것에 비해, 본고는 초월적 조력자가 보여주는 인물로서의 형상과 기능, 등장 방식에 주목하여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삼국유사』가 불교 서사 전통의 계승과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장에서는 초월적 조력자의 형상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먼저 초월적 조력자의 형상은 인간인 경우와 비인간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초월적 조력자가 인간의 형상을 한 경우는 연령·성별·사회적 위치 등의 세부 기준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었으며 비인간의 형상으로 등장한 경우는 진신으로 출현하는 경우와 조류로 변신하여 등장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초월적 조력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육성형, 구원형, 인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조력자 인물형 일반에 적용 가능한 세 가지 분류가 된다. 먼저 육성형은 남성 노인과 젊은 여성의 모습을 한 초월적 조력자가 구도자를 깨우치는 발몽형과 성불인도형 조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원형은 구명(救命)과 치병(治病),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해주는 경제적 도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인도형은 인물과 장소로의 인도, 미래에 대한 예언과 주구전달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초월적 조력자의 형상화 특징과 그 서사적 효과를 살펴보았

다. 초월적 조력자의 특이한 등장 방식으로 화현 모티프에 대해 알아보았다. 화현은 초월자의 정체를 능력을 은폐했다가 다시 드러내는 것인데 이는 육성형과 구원형 조력에서 주요한 갈등유발 요인으로 기능한다.

초월적 조력자의 형상화의 특징으로는 초월자가 연령적, 계층적, 성적 약자로 묘사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약자로서의 형상화 방식은 조력 대상과 조력자의 전복적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서사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초월적 조력자와 조력 대상 간, 초월자의 내외(内外)와 전후(前後) 간의 형상 대비는 설화의 주제와 구조를 구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며, 설화의 흥미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소로도 작용하였다.

초월적 조력자의 기능상 특징은 신격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인 기능 분화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삼국유사』를 불교설화와 기이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불교설화에서는 불보살과 토착신격이 모두 조력자로 등장하나 불보살이 토착신격보다 우월한 위치로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토착신격은 대부분 불신의 보조적인 역할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차별적 기능 분화는 초월자의 형상 및 등장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기이편의 토착신격들은 이러한 차별적 형상화에서 다소 벗어난 면모를 보였다.

제4장에서는 『삼국유사』소재 초월적 조력자에 나타난 불교 서사 전통의 계승과 변용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국 설화집인 『태평광기』와 고려의 불교 설화집인 『법화영험전』과의 비교를 통해 『삼국유사』가 전대 불교 서사의 전통을 수용하였지만, 초월적 조력자의 등장 빈도 및 형상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가 불교 서사 전통의 변용을 통해 보편 종교에서의 초월자인 불보살이 지닌 한계를 넘어 민족 고유의 사상적, 문화적 특수성을 융합시킨 나름의 초월적 조력자 인물형을 형상화했다는 점을 밝혔다.

석사학위 논문

〈동패〉의 변이양상 연구

정 보 라 미

2010년 8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희병 선생님

본고는 저자와 연대 미상의 야담집 〈동패〉(東稗)를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현재까지 〈동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바, 본고는 〈동패〉계 이본들의 변이양상을 통해 〈동패〉가 갖는 고유한 면모를 밝혀내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고에서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동패〉를 고찰하게 된 것은 〈동패〉계 자료들의 이본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동패〉 텍스트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천예록〉(天倪錄), 별본(別本) 〈동패낙송〉(東稗洛誦), 〈청야담수〉(靑野談藪) 등 여타 야담집의 형성과정 및 향유양상을 밝히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제II장에서 〈동패〉계 야담집 가운데 새 자료 5종을 포함한 8종의 자료 및 별본 〈동패낙송〉을 검토하였다.

제II장에서 9종의 〈동패〉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9종의 자료는 추록의 존재양상과 수록 이야기의 유무 및 그 순서를 기준으로, A계열(연대본 〈동패〉, 정명기본 〈동패〉, 고대본 〈동패집편〉(東稗輯編), 정명기본 〈동패집편〉, 〈화산파수록〉(華山罷睡錄)과 B계열(연대본 〈화헌파수록〉(華軒罷睡錄), 정명기본 〈화헌파수록〉, 별본 〈동패낙송〉)로 구분하였다.

둘째, 추록의 존재양상과 몇몇 특정 이야기들의 수록 여부 등을 기준으로 두 계열의 선후관계를 가늠해 본 결과, 두 계열 가운데 원본에 가까운 계열

이 A계열임을 추론하였다.

셋째, 원본에 가까운 계열인 A계열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명 기본 〈동패〉가 현전(現傳)하는 자료들 가운데 가장 선본에 가까운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오탈자 및 탈락된 문장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동패〉를 원본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에 원본은 아니지만, 현전하는 9종 자료들 가운데 비교적 가장 선본(善本)인 정명기본 〈동패〉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선본인 〈동패〉로부터 각각의 〈동패〉계 이본들이 변이해가는 양상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변이의 계보를 가늠해 보았다.

먼저 〈화산파수록〉 및 〈동패집편〉의 변이양상에서는 이들이 모두 A계열에 속하는 이본들임에도, 각각 다른 양상으로 변이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산파수록〉은 A계열의 〈동패〉가 생략·축약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된 이본이지만, B계열의 저본 또한 참조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2종의 〈동패집편〉의 경우, 〈동패〉를 생략·축약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동일한 저본을 필사한 이본들로 제명(題名) 뿐 아니라 변이의 발생부분이나 양상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B계열에 속하는 〈화헌파수록〉과 별본 〈동패낙송〉의 변이양상을 살펴본 결과, 〈동패〉가 2종의 〈화헌파수록〉과 별본 〈동패낙송〉으로 전제되면서 축약과 탈락이 차례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동패〉→〈화헌파수록〉→별본 〈동패낙송〉’의 필사과정을 상정하였다.

다음으로 〈파수록〉(罷睡錄)의 변이양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수록〉의 계열과 계보를 가늠해보았다. 그 결과, 〈파수록〉은 A계열에 속하는 저본과 B계열에 속하는 저본을 함께 참조하여 필사하는 과정에서 주로 축약과 탈락을 거쳐 형성된 이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화산파수록〉과 〈파수록〉이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 A계열과 B계열의 필사저본 가운데 A계열에 속하는 저본이 동일한 것이었음을 추정하였다.

제Ⅳ장에서는 〈동패〉에서 보이는 변이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그 예비적 작업으로 〈동패〉의 본래적 면모를 간단히 살펴보고 〈동패〉에서 확인되는 특징들이 〈동패〉계 이본들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변이

되는지 고찰하였다. 〈동패〉의 특징으로는 (가) 군주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 (나) 도가계 인물을 많이 다루고 있음, (다) 군주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감지됨, (라) 서술자가 전면에 나서고 있음, 이 네 가지를 확인하였다.

후대의 이본들에서는 이 네 가지 특징 가운데 제재와 관련된 특징인 (가)와 (나)는 거의 그대로 유지된 반면, 서술시각 및 서술방식과 관련된 (다)와 (라)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변이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다)와 (라)의 특징을 중심으로 그 변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바, (다)의 특징은 주로 서술시각이 보수화되면서 변이되었으며, (라)의 특징은 서술자의 적극적 개입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변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제V장에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결과, 〈동패〉가 18~19세기의 야담집들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점, 이인설화(異人說話)에 대한 관심을 야담으로 풀어낸 사례를 보여주는 점, 〈동패〉계 이본의 변이에서 보이는 호기취향(好奇趣向)의 강화가 당시의 문학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 환상적 문학의 성격을 잇는 야담집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 등에서 야담사적 의의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고전장편소설의 공주형 인물 연구

최 헤 리

2010년 8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정병설 선생님

본고는 고전장편소설의 유형성을 잘 드러내는 인물유형 가운데 하나인 공주형 인물을 설정하여 그 성격과 기능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7세기 이후 장편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 인물유형의 존재가 함축하고 있는 문학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른 등장인물보다 고귀한 계층 출신으로서, 그로부터 비롯된 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여성인물이 17세기 이후 고전장편소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은 임금의 딸인 공주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주라는 태생은 바로 위와 같은 성격의 인물유형을 발생시키는 전형적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물유형을 공주형(公主型)이라고 명명하였다. 한편 작중 인물을 분석하고 유형화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환경과 기질이라는 두 가지 조건의 조합으로 인물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인물의 행위를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 이 조합이 범(汎)작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하나의 인물유형으로 설정하였다.

공주형 인물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II장에서는 고전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공주의 형상을 살펴보았다. 〈구운몽〉,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화씨충효록〉, 〈명주보월빙〉, 〈완월회맹연〉 등의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모습의 공주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공주라는 공통적 환경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서사 내 비중과 역할, 형상화 수준 등에 있어서 각기 다르게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주

라는 환경 설정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작품마다 설정된 기질에 따라 공주형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Ⅲ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공주형 인물의 범주를 보다 분명히 설정하였다. 공주형 인물은 출신 계층이 혼인한 상대 가문보다 높고, 친정에 대한 소속 의식과 자부심이 강한 기질의 인물이다. 또 태어날 때 부여되었던 위치가 혼인을 계기로 하강하는 인물이다. 고전장편소설 속의 여성인물은 공통적으로 혼인이라는 통과 의례를 통해 남편의 가정에 편입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때 그 과정 전후로 빗어지는 여러 사건 속에서 자기 고유의 성격을 드러내게 된다. 그런데 공주형 인물들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친정이 남편 집안보다 우위에 있다는 특수한 환경 조건을 의식하며 행위한다. 그러한 기질이 발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실제로 권위를 행사하는 친정 가문이다. 그러므로 이 특수한 인물유형의 성격을 규정하는 환경적·기질적 조건은 매우 밀착된 결합관계에 있다.

Ⅳ장에서는 위와 같은 성격으로 정의되는 공주형 인물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첫째, 억압자 역할이다. 공주형 인물은 친정 권력이라는 환경을 기반으로 남편 집안을 위시한 작중 인물들에게 권력과 억압을 행사한다. 이는 작중의 계층적 구도에 기인한다. 두 번째 기능은 성적(性的) 권력 구도에서 발생하는 피억압자의 역할이다. 공주형 인물들은 높은 출신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타고난 성별 지위로 인해 욕망의 제약을 겪을 수밖에 없다. 즉 가부장제의 억압 속에 있는 여성의 역할에 놓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주형 인물은 반발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공주형 인물은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위치에 동시에 처했으면서도 자아정체감이 억압자 쪽에 기울어 있는 성격의 인물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신을 억압하는 주변의 다른 권위와 맞서고 충돌하게 된다. 즉 공주형 인물은 다층적 권력관계 속에서 하나의 권력자인 동시에 권력을 빼앗기게 된 피지배자이며, 이를 빼앗기지 않고자 권력에 반발하는 복합적인 인물로 기능하고 있다.

V장에서는 공주형 인물의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공주형 인물은 여성문학사 차원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고전장편소설의 주 독자층이었던 중

상층 이상의 여성들 대부분은 혼인으로 인한 지위의 하강을 겪어야 했다. 가문 내 위치의 하강은 여성 일반에게 당연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상층 여성은 대부분 남편의 가문에 크게 뒤지지 않는 명문가를 친정으로 둔 딸들이었기 때문이다. 소속가문 자체의 위치와 가문 내에서의 위치가 이중으로 하강하는 공주형 인물은 이러한 구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유형이다. 요컨대 가부장제의 사회규범에 의해 인위적으로 억제되고 있었던 당대 여성의 자존감과 권력욕이, 더 높은 가부장에 의한 합법적 환경의 뒷받침으로 노출되는 인물유형이 바로 공주형 인물인 것이다. 그것이 고전장편소설에 공주형 인물이 꾸준히 비중 있게 등장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와는 여성의 지위 및 혼인 풍속이 매우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주형 인물의 계보를 잇는 인물유형이 범텍스트적으로 존재하는 오늘날에도, 이 인물유형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

아일랜드문학 수용을 통한 조선근대문학의 기획 양상 연구

김진규

2010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성창 선생님

아일랜드문학 수용에 대한 연구는 아일랜드와 조선의 민족적 기질의 유사성과 정치적 상황의 유사성을 전제로 아일랜드문학 수용 전반과 개별 작가들의 영향관계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아일랜드문학 수용의 기본 전제가 되는 조선과 아일랜드 유비관계를 정치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아일랜드문학 수용의 적극적인 측면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의 아일랜드문학 수용을 창조적 수용으로 보고, 식민지 조선의 정세 변화에 따라 아일랜드의 정치운동과 문학 수용이 달라지는 양상을 생동감 있게 포착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에 대한 동류의식과 선망의식을 가진 조선이, 근대국가건설과 근대문학수립이라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아일랜드의 정치운동과 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

식민지 시기 조선과 아일랜드의 유사성에 대한 담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은 고정불변하다기 보다는 각 시기별 담론의 지향점에 따라 구성되었다. 1920년대에는 3·1 운동 이후 조선의 장래를 놓고, 조선과 아일랜드의 유사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조선과 아일랜드의 비교를 통해, 일본은 지배정책을 모색했으며, 조선은 탈식민의 방법을 모색했다. 일제의 탄압으로 정치·사회적 활로가 경색된 1930년대에는 문화방면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세계문학의 지위를 획

득하고 정치적 독립의 밑거름이 되었던 아일랜드문학을 조선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조선과 아일랜드민족의 유사성은 수용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 말기, 내선일체와 대동아공영의 논리 속에서 조선은 강제적으로 일본민족으로 편입되게 된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아일랜드와 일본으로 편입되고 있었던 조선과의 유사성은 더 이상 제기될 수 없게 되었다.

조선과 아일랜드의 유사성은 결국 일본과 조선, 영국과 아일랜드라는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일본과 조선, 영국과 아일랜드의 유비관계는 당시 정치적 지형도 아래에서 형성되고 폐기되었다. 아일랜드자유국 수립(1922)으로 일본과 조선, 영국과 아일랜드의 유비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아일랜드자유국 수립의 원인이 영국과 아일랜드가 서로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본 일본에게, 그들과 조선이 동일한 민족인지는 지배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동화론자들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내세워 동화정책을 지속하고자 했고, 자치론자들은 일본과 조선이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조선에 자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선 민족의 독자성을 바탕으로, 독립을 결코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조선인들은, 아일랜드자유국 수립을 통해 조선과 일본민족의 동일성 문제보다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민족주의진영은 아일랜드 내부의 경제적·계급적 대립을 소거한 후, ‘은 민족이 일치단결한 아일랜드의 정치운동’을 조선독립운동의 이상적 모델로 삼았다. 하지만 사회주의 진영은 아일랜드의 정치투쟁이 자치단계에 머물렀다는 점을 들어, 자유국 수립이 제국의 지배세력과 식민지 부르주아지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비판하였고, 조선의 독립은 무산계급 중심의 계급운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일제말기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은 동양담론 속에서 일본과 동양의 정체성을 모색하였다. 일본제국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조선은 여전히 황국화의 대상일 뿐 일본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최재서 등은 ‘신일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조선을 의미 있는 존재로 위치 짓고자 했다. 이때 최재서가 구상한 이상적인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아놀드가 기획한 영국과 아일랜드

드의 통합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나, 아일랜드의 독립으로 인해 조선과 아일랜드의 유비관계 자체가 폐기되었다.

1930년대 전반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아일랜드문학 수용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1920년대 후반 이후 정치·경제적 방면의 민족운동이 탄압을 받게 되자, 민족주의 운동은 문화방면에서 활발히 일어났다. 따라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정치적 자유획득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은 아일랜드문학이 조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둘째, 아일랜드문학 수용은 1920년대부터 이루어진 조선의 근대극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1920년대에도 아일랜드 연극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봉건적 요소 타파와 근대문명 도입이라는 근대극 운동의 목표와 애비극장이 어울리지 않았고, 에이즈 등의 작품이 사실주의극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연극에 비해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30년대 전반기에는 식민지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민족운동의 차원에서 아일랜드 연극이 주목을 받았다. 셋째로 아일랜드문학 수용은 조선근대문학의 기획과 긴밀한 관련을 맺었다. 당시 조선에서 아일랜드문학은 민족적 특질과 세계적 보편성을 동시에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조선은 아일랜드문학을 통해 조선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조선의 근대문학을 기획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일랜드문학이 나타내는 민족적 특질은 결국 제국주의 지배담론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제국의 지배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운 식민지 독자성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조선은 아일랜드문학 수용을 통해 조선의 민족정체성을 구현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일랜드문학이 구현한 민족성의 핵심이 제국의 타자담론에서 형성된 반근대적인 켈트성이라는 사실과 아일랜드의 민족성 구현을 통해 내부적으로 단일한 아일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문예부흥기 작가들이 아일랜드 민중·계일주의자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은 조선의 아일랜드문학 수용 목적과 배치되었다. 따라서 아일랜드문학은 조선의 수용목적에 따라 변형을 겪게 된다. 그들은 현실도피적이고 반근대적인 켈트성이 아일랜드민족의 정체성 구현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 특성을 상 혹은 오케이시 이전으로 돌리고, 조선문학이 구체적으로

참조해야 할 문학을 오케이스 이후의 현실참여적 문학으로 삼았다. 아일랜드문학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들, 즉 영국계 아일랜드인과 아일랜드 민중 간의 갈등, 영어창작과 아일랜드어창작의 갈등, 계급 갈등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 이러한 변형은 조선이 아일랜드문학을 능동적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선이 참조해야 할 아일랜드문학을 현실에 밀착된 문학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아일랜드가 가진 다양한 현실의 갈등을 외면하고 민족의 하나 됨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조선의 아일랜드문학 수용의 관념적 속성을 엿볼 수 있다.

아일랜드 희곡의 공연과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아일랜드의 정치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은 김열 등의 이유로 활발히 소개되지 못한 반면, 현실과 유리된 작품들은 활발히 수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자와 달리 전자의 경우 조선의 아일랜드문학 수용의 목적을 반영하는 흥미로운 변형이 일어난다. 유치진은 아일랜드문학이 민중의 생활을 표현해 정치적 각성을 일으켰다고 보고 이를 조선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유치진은 조선의 정체성 탐구가 벽에 부딪히게 되고,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자 리얼리즘극에서 낭만주의극으로 선회하게 된다. 유치진은 아일랜드문학이 현실도피적인 문학에서 현실에 밀착된 문학으로 나아갔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그의 문학적 행보는 이와 정반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유치진의 아일랜드문학 수용의 포기는 아일랜드문학 수용의 관념적 속성과 긴밀한 연관을 맺는다. 해외문학과 유치진 등은 아일랜드문학 수용을 통해 현실에 밀착된 조선문학을 기획하면서도, 아일랜드와 조선 내부의 다양한 갈등을 소거하고 본질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모순적이고 관념적인 태도를 지녔고,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인 성과를 맺기 어려웠던 것이다.

아일랜드의 영어창작은 당시 조선 문단에 민족성의 구현이라는 내용과 민족어라는 형식 중 무엇으로 민족문학을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민족의 민족성은 조선어를 통해서만 구현가능하다고 본 조선문인들은 영어로 창작된 아일랜드문학을 영문학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아일랜드문학의 반영적(反英的) 속성과 아일랜드민족성의 구현이라는 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아일랜드문학의 내셔널리티를 인정했다. 아일랜드문학의 내셔널

리티에 대한 인식은 일제말기, 조선어창작 옹호논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1930년대 중반이후 조선어의 위기라는 시대상황에서, 조선은 속문주주의의 강화를 통해 조선어창작을 옹호한다. 이에 따라 영어로 창작된 아일랜드문학의 내셔널리티는 전반적으로 부정된다. 그러나 언어민족주의에 기반한 속문주주의의 논리는 민족의 범주가 달라질 경우, 즉 조선이 일본에 포섭될 경우 일본어 사용을 용인하게 된다. 따라서 조선민족이 부정당하는 1940년대 전후에는 언어의 현실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조선어를 옹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 영어창작은 역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석사학위 논문

아산 지역어의 활음 w 탈락 현상 연구

이 현 주

2010년 8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송철의 선생님

이 논문은 충남 방언의 하위 방언인 아산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활음 w 탈락 현상에 대한 연구이다. 일차적으로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w탈락 현상과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w탈락 현상으로 나누고, 가능한 모든 음운 환경에 따라, 또는 세대에 따라 나타나는 w탈락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산 지역어의 어두 음절에서 자음 뒤의 하향이중모음 uy, oy는 각각 ‘uy>u>wi>i’, ‘oy>o>we>e’의 변화 과정을 겪는다. 이 변화 과정은 선행자음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C_%% 환경에서는 w가 완전하게 사라진 어형이 발견되지 않는다. #C_a, #C_? 환경에서도 역시 w탈락이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0~50대에서 조금씩 w가 약화된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어에서 #C_?, #C_a, #C_? 환경에서의 w는 유지형을 고집하기 보다는 조금씩 탈락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두 음절에 선행자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w가 완전히 탈락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w 약화형만이 보인다. 이로써 어두 음절에서의 w탈락은 ‘#C_V’의 환경에서부터 시작되어 ‘#_V’의 환경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2음절 이하에서 선행자음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V\$C_i, VC\$C_i 환경에서 현재에 이르러 wi>i로의 변화가 이미 완료된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w탈락은 같은 환경의 어두 음절보

다 제2음절 이하에서 더 활발히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제2음절 이하에서 선행자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전체적으로 w가 완전히 탈락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w 약화형만이 보일 뿐이었다. 이로써 제2음절 이하에서의 w탈락은 어두 음절에서의 w탈락과 마찬가지로 선행자음이 있는 환경에서부터 시작되어 선행자음이 없는 환경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2음절 이하라는 조건보다는 선행자음의 유무라는 조건이 w탈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w탈락 현상을 용언 활용에서의 단어 경계에서의 w탈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용언 활용에서는 제1음절에서 w가 거의 탈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용언 활용에 있어서 제2음절 이하에서 어미 ‘-a’와 결합하여 w를 가지는 경우를 ‘놓다, 보다, 오다’가 보조용언이 되어 본용언 뒤에 결합한 후 어미 ‘-a’와 결합하는 경우와 ▮불규칙 활용 어간 ‘돕-’이 어미 ‘-a’와 결합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 경우 선행자음이 없을 때는 w가 전혀 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용언 활용에 있어서도 제2음절 이하라는 조건보다 선행자음의 유무가 w탈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용언 활용에 있어서 제2음절 이하에서 어미 ‘-?’와 결합하여 w를 가지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이다.

다음으로 단어 경계에서의 w탈락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체언과 조사 ‘와’가 결합할 때의 w탈락을 살펴보았는데, 이 환경에서 w가 탈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 이것은 조사 ‘와/과’의 음운론적인 특성 외의 것에 기인한다. 다음으로 관형사와 의존명사 ‘원, 월’이 결합할 때의 w탈락을 살펴보았는데, ‘VC#_?n’, ‘VC#_?l’인 경우에는 V(C)\$C_? 환경에서의 w탈락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V#_?n’, ‘V#_?l’의 환경에서는 #_? 환경에서의 w탈락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오다’에 어미 ‘-a’가 결합한 ‘와’와 ‘원하다’가 앞의 단어와 결합할 때의 w탈락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V#_a, V#_?’의 환경이든 ‘VC#_a, VC#_?’의 환경이든 상관없이 ‘#_a, #_?’의 환경에서의 w탈락 양상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따라 w탈락 현상을 살펴본 결과, w탈락은 선행자음 또는 후행모음의 종류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선행자음이 있을 때는 어두음절 보다 비어두음절에서 더 활발하지만 음절 위치보다는 선행자음의 유무가 탈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음운 환경이나 세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인 양상이나 변화의 속도를 보았을 때, 나머지 어형들도 w탈락 또는 약화의 과정을 겪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어의 w탈락 현상은 60대를 기점으로 60대 이상의 화자와 60대 미만의 화자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어의 이중모음체계를 둘로 양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타이포그래피적 관점에서 살펴본 이상 시의 시각적 양상

초호 기테

2010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성창 선생님

이상(1910~1937)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다. 이는 이상의 문학작품이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시각예술가로서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비상한 시각적 감각과 재능은 작품활동에 큰 영향을 미쳐, 그의 시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본 논문은 이상 시의 타이포그래피적인 형태를 분석하여 시의 형식과 내용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타이포그래피는 읽기 편한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 이용되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유럽의 전위파 예술가들이 그러한 기존 패러다임에 변화를 추구하였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도 작가들이 인쇄과정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지만, 이상의 문단 등단과 함께 비로소 타이포그래피적인 실험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은 독일 바우하우스 미학, 그중에 특히 라즐로 모허이-너즈 교수의 작업과 입체파 미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의 삽화와 시를 비교하면 그의 회화작업방식과 글쓰기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상 작품의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은 시에서 비(非)관습적이고 비(非)언어적인 기호를 등장시킨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기호체계를 창조하며 전형적인 표현방식을 거부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 과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불가해

함과 더불어 문법과 맞춤법을 무시하고 작품을 쓰는 것도 독자와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 이상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은 일본 점령기의 지배적인 담론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이며, 따라서 당대 식민지의 실상에 대한 진술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은 또한 독특한 시의 형태로 독자들의 주의를 끈다. 그는 문학의 창작 과정을 내용과 형태의 측면에서 도상적으로(iconically) 표현한다. 시 몇 편에서 이상은 양가적인 인쇄과정을 의인화하여 인쇄가 잔인하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진보를 예찬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모더니티의 다의(多義)성을 드러낸다.

교도소 모티브는 이상의 도상성이 가장 잘 형상화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시의 엄격한 타이포그래피적인 형태를 통해 이상은 식민지의 갇힌 공간을 종이 위에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결론적으로 이상이 타이포그래피적인 가능성을 이용한 것은 그의 시 작품이 단순히 실험과 유희의 차원을 넘어 당대의 지리, 정치 및 역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은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고 시인으로서 자신이 창작하고 있는 세계의 시공간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석사학위 논문

한국어 위치어 및 관련 단어 연구

손 퇴

2010년 8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송철의 선생님

본고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의 위치어 및 관련 단어의 구조적 양상과 어휘 의미적 특징을 기술하는 데에 있다. 위치어란 어떤 한 공간에서 참조대상을 전제로 하여 지시대상의 위치를 표현하는 용어로, ‘위, 아래, 앞, 뒤’ 등과 같이 어휘 자체가 위치의 개념을 포함하는 낱말들의 총칭이다.

위치어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위치어의 의미를 다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위치어가 포함된 복합어를 분석하여 복합어 후행 요소의 형태 및 후행 요소에 따른 위치어의 의미 특성을 밝혀 보려는 연구는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치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위/아래(꼭대기/밑), 앞/뒤, 왼-/오른-, 안/바깥(밖), 속/겉’이 복합어의 제1요소 자리에 나타난 경우를 중심으로 관련 복합어들을 분석하여 위치어 관련단어들의 구조적 양상과 위치어의 의미특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위치어 관련 합성어를 보면 후행 요소가 단일어인 고유어 명사인 경우가 가장 많고, 한자어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으며, 복합어 즉 파생어인 경우가 가장 적다. 고유어 명사, 한자어 명사, 파생명사 중 2가지 형태가 위치어 뒤에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위치어와 관련된 동사의 형성에는 크게 합성동사의 형성과 ‘하다’에 의한 동사의 형성이 있다.

위치어 관련 합성어에 비해 위치어 관련 파생어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 위치어 관련 접미사가 존재하지 않고 위치어 관련 접두사도 ‘웃-, 밟-, 걸-’

세 개박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 세 접두사는 대체로 형태적으로 변화를 겪었거나 의미적으로 원어기와의 유연성을 크게 상실하여 접두사화한 것들이다. 이들은 분포적으로도 상당한 제약을 보인다.

단어 형성에서 위치어는 후행 요소의 영향을 받아 공간적, 시간적, 추상적 의미를 드러낸다. 위치어의 공간적 의미는 그의 원형의미와 위치 개념의 전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 위치 개념의 전의는 위치어와 후행 요소가 함께 의미변화를 겪어서 원형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 개념을 표현하게 된 경우를 뜻한다. 위치어의 원형 공간 개념과 관련하여, ‘위/아래, 밑’, ‘앞/뒤’는 후행 요소의 속성을 통해 확정된 참조대상과 지시대상의 관계에 따라 그 의미를 나눌 수 있다. ‘왼쪽/오른쪽’은 상황 공간적 속성에 의해 지시대상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고, 화자 중심 혹은 청자 중심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안/바깥, 속/겉’의 공간적 구분은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공간적 의미는 이들이 포함된 복합어에서 드러내는 일정한 경계선에 따라 분류해 봤다.

위치어가 복합어에서 시간적 의미로 쓰일 때에는 대체로 시제적 의미, 순서적 의미, 영역적 의미를 드러낸다. ‘위/아래’와 ‘속/겉’은 순서적 의미만 표현하며, ‘안’은 영역적 시간 개념을 표현한다. ‘앞/뒤’는 시제적 의미와 순서적 의미로 모두 쓰인다. 시간적 의미로 얼마나 활발하게 쓰이는지에 따라 위치어를 배열해 본다면, ‘앞/뒤 > 밑 > 위/아래, 안, 속/겉 > 왼쪽/오른쪽, 바깥, 꼭대기’의 순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위치어가 추상적 의미로 쓰일 경우, ‘위/아래, 앞/뒤, 왼쪽/오른쪽, 속/겉’은 지향적 은유를 통해 ‘긍정 대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안/바깥’은 존재론적 은유를 통해 ‘범주, 한도’의 의미를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위치어가 포함된 합성어 사이에 반의어 관계를 형성하는 정도를 보면, ‘위/아래’, ‘왼쪽/오른쪽’이 포함된 합성어들 사이에 반의어 관계가 가장 잘 성립되고 ‘앞/뒤’가 포함된 합성어들이 그 다음 순위이다. ‘안/바깥’과 ‘속/겉’이 포함된 합성어들은 반의어 관계가 가장 잘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어 관련 파생어의 경우에는 ‘발-’과 관련된 파생어를 제외하면 대부분 파생어 사이에 반의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김수영의 ‘몸’의 시학 연구

최 호 영

2010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유중 선생님

본 연구는 김수영 시에 나타난 ‘몸’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그의 문학에 내재한 미학과 정치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순수-참여’의 문학사적 구도에 수렴되지 않는 김수영 문학의 내적 원리를 해명하고자 한다. 김수영 시에 나타난 ‘몸’(육체)의 문제는 그의 시의 근대성을 밝히는 근거이자 근대의 이성적 인식에 대항하고자 하는 체계로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김수영의 ‘몸’적 사유를 ‘심미적 근대성’이라 규정해버림에 따라 근대적 역사를 극복하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못했으며 ‘몸’의 시학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인 ‘자연’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만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감안하여 김수영의 문학에 나타난 몸의 다양한 범주를 살피고 김수영 식의 몸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자 한다. 김수영의 ‘몸’의 시학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사유에서 파생한다는 점에서, 그의 시에 나타난 몸에 대한 다양한 미학적 탐색은 정치적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해명할 수 있다. 아울러 본고는 김수영이 한국의 낙후된 현실에서 오는 정신의 위기의식을 몸의 시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의 질서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김수영의 몸에 대한 인식은 한국 전쟁과 같은 실존적 체험에서 연유하였으며 그 출발점은 당대 지식인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일정 부분 맞물려 있다. 김수영을 비롯한 전후의 지식인들은 ‘정신’과 ‘육체’의 관점에서 폐허가 된 한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민을 전개한다. 특히, 김수영은

‘뺨’와 ‘백골’과 같은 파편화된 육체의 기호를 통해 기성 정신의 질서를 거부하고 백지화하는 실험을 감행한다. 이때 김수영의 초기 시에서 ‘꽃’은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 김수영은 이상과 현실의 갈등에서 당대의 모더니스트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꽃’)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거부하고 현실을 새롭게 구성해갈 ‘몸’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는 한국의 열악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갈 ‘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서구의 첨단 문물을 담고 있는 책은 몸을 매개로 하여 공식적 담론과 획일적인 사회질서를 생산하려 한다는 점에서, 김수영에게 있어 또 다른 극복의 대상이 된다. 김수영은 도구적 이성애 소외된 육체의 상태를 ‘피로’ 또는 ‘설움’으로 노출하면서 고정된 가치질서를 형성하려는 권력의 전략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는 몸이 고정된 가치질서를 해체하고 가능한 세계를 건설하는 생산양식이자 다양한 삶을 향해 열리는 텍스트임을 자각한다.

이와 같이 김수영은 실재적인 현실에 접촉해 있으며 현실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갈 매개인 ‘몸’을 그의 미학적 원리로 정립해간다. 여기서 김수영 시에 나타난 몸은 실재적인 몸, 비유적인 몸, 수사적인 몸 등 다양한 범주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그는 몸의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 내면의 자유와 건강한 생명력을 표출하고 외부 현실에 대한 부정성을 드러낸다. 이때 시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변이는 상향식 변이와 하향식 변이로 구분된다. 김수영은 벌레(곤충)로의 긍정적 변이를 통해 편협한 자기에서 벗어나 타자의 영역으로 나아가려는 의도를 보인다. 그리고 추악한 대상으로의 전략을 통해 당대의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부정성을 나타내고 기존의 가치질서를 해체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김수영은 ‘기침’, ‘설사’와 같은 몸의 생리적인 행위를 통해 지배하는 힘과 지배당하는 힘 간의 관계를 전복해버린다. 이처럼 김수영은 몸이 정신과 육체가 일체화된 생산양식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그의 ‘온몸’의 시학으로 정립한다. 김수영은 ‘온몸’의 이행과 실천을 통해 획일적인 사회질서와 고정된 가치체계에 저항하고 스스로 현실의 삶을 구성해가려는 실험을 전개해간다. 그래서 ‘온몸’의 다양한 층위는 그의 시의 미학적인 측면을 보

여주면서도 정치적인 전략의 성격까지 아우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김수영은 당대의 권력이 효율적인 지배방식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으며 자본주의 체제가 그의 일상생활에 편재해 있음을 자각한다. 김수영은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해갈 대안으로 자연을 발견하는데, 이는 단순히 초월적인 세계로 볼 수 없다. 그는 몸의 이미지이자 자연의 표상인 ‘꽃잎’과 ‘풀’의 ‘초연한 내맡김’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를 극복해갈 태도를 터득하였으며 사유의 영역이 확장되는 순간을 경험한다. 또한 김수영은 ‘몸’의 상호주체성을 통해 타자의 영역으로 나아가면서 파편화된 우리의 역사의 존재를 복원하고 이에 미래적인 가능성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김수영은 세대와 세대와의 횡적 만남과 과거와 현재와의 종적 만남을 통해 서구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주체적인 역사를 창조하려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김수영의 ‘몸’의 시학은 ‘순수-참여’의 문학사적 구도에 수렴되지 않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해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자연의 다양한 이미지는 김수영 시의 새로운 영역으로 거론할 수 있다. 아울러 김수영의 ‘몸’의 시학은 전후의 폐허의 현실에서 파생한 정신의 결핍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수영의 역사의식을 해명할 매개가 된다.

석사학위 논문

중세한국어 ‘나다’류 어휘의 의미에 관한 연구

가와사키 케이코

2010년 8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현희 선생님

본고는 한국어의 기본동사 중의 하나인 ‘나다’[出]의 다양한 의미 중에는 종래 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나다’[經]라는 의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이와 관련되는 중세한국어의 몇 가지 어휘들의 형성과정이나 의미·용법을 다시 새로운 시각에서 정리·기술해 보고자 하는 시도다. 기술의 주된 대상은 ‘내내’, ‘내’(부사), ‘겨△-르내’, ‘내즈고△내’, ‘口・天・口내’, ‘몬 내’ 등의 이른바 ‘내’류 부사들 및 ‘디나다’[過], ‘견나다’[渡]등의 동사들이다. 분석에 있어서는, 《月印釋譜》나 《釋譜詳節》의 底經도 가능한 한 참조하고, 日本語 등과의 대조에서 얻을 수 있는 根據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한국어의 ‘나다’[出]에는 단순히 ‘어떤 영역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도 ‘그 영역 내부를 가로지르듯이 다 거친 후에 밖으로 나감’을 뜻하는 ‘나다’[經]라는 의미가 존재한다. 현대어에서는 ‘세 살 난 아이’, ‘겨울을 나다’ 등의 예가 이에 의해 설명되는 대표적인 예들이며, 또한 부사 ‘내내’도 ‘나다’[經]의 파생어로서, 아직도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認知言語學的인 입장에서 原型理論(prototype theory)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나다’의 특수한 의미를 파악한 뒤에, 이를 실제로 응용함으로써 중세어 어휘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同時に 이와 같은 ‘나다’[經]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

다.

중세어의 ‘입시우리 내 口・르라’, ‘(거스 卜 〇) 三年을 내 우리’, ‘묻 내’ 등에서 나타나는 ‘내’는, 日本語의 보조동사 ‘kiru’[切와 매우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相的 副詞’이며, 完了相이나 ‘貫徹’, ‘極度까지 이룸’을 나타낸다. 이는 ‘나’[經]의 파생어이며, 그 기능의 일부는 현대어의 보조동사 ‘-어 내’로 이어지는 것으로 논의할 수가 있다. ‘겨△-르내’나 ‘너름내’ 역시 ‘나’[經]와 밀접하게 관계되며, ‘끝까지 내내’를 뜻하는 ‘내즈고 〇내’나 ‘너름내’의 형성은 이들에서의 ‘확장’(혹은 ‘유추’)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거기서는 ‘겨△-르’과 의미적으로 대응하는 ‘[내즈고 이까지의 시간]이라는 ‘일정한 폭을 가진 시간’을 ‘내?’이라는 짧은 말(단순한 개념)을 빌려 포착하는 일종의 換喩(metonymy)가 작동된 것으로 해석된다. ‘묻 내’(~해낼 수 없이)는 의미변화를 거쳐 ‘끝없이’를 나타내는 하나의 부사로서 어휘화되어 현대어 ‘못내’로 이어지는데, 그 어휘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소위 ‘-어 ㅎ -’ 構文이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디나다’[過], ‘걸나다’[渡]에 대해서는, 종래 聲調論的인 관점에서 의심되었던 것처럼 역시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는 비통사적 합성동사로 분석되며, 제2요소에 ‘나’[經]를 共有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서로 對立的인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적어도 이러한 ‘나다’[經]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이들 어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이러한 견해가 이에 관한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